금주의 법구-〈법구경〉
쉬지 않고 계속하면
마침내 이뤄진다.
시냇물이 흘러 바다로 가듯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3월 16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43호 2017년 4월 12일 수요일

사찰 노인대학, 신도 평생교육 이끈다

[진단] 사찰 노인대학 활성화 방안은?

"군에서 전역 이후 손자 · 손녀 봐주는 것 말고는 무료했는데, 사찰에서 다른 곳에서는 듣지 못하는 강의를 듣고 도반들도 만나니 참 좋네요."

대구에 사는 문관도 씨(70)는 매주 화요일이면 활력이 넘친다. 불광사 경북불교대학이 올해 1월부터 개학한 노인대학에 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문 씨는 "불교교리나 사상 등은 이미 사찰에서 많이 배웠다"며 "건강과 손자 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데, 사찰에서 하는 노인대학 강좌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찰이 진행하는 노인대학이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노인대학을 신도 평생교육을 위한 새로운 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어르신들 다양한 교육열 충족

노인대학은 노인 복지시설 중 복지관, 경로당과 달리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취미 및 소득보장,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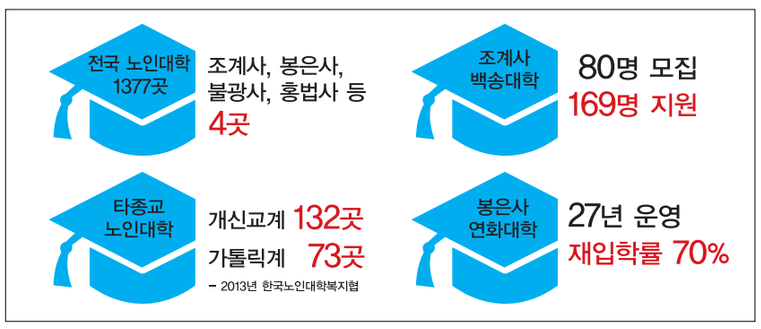
불교계에서 가장 최근 노인대학을 개설한 곳은 서울 조계사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3월 24일 조계사 노인대학인 '백송대학' 문을 열었다. 백송대학은 생활습관건강법, 금융사고예방, 스마트폰활용법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매주 금요일마다 강좌가 열리며 1년 2학기제로 운영된다. 조계사 측은 당초 80명 정원으로 모집을 진행했으나 169명의 입학생이 몰려 2개 반으로 분반해 운영하고 있다.

불교계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봉은사 연화대학은 1990년부터 27년간 운영되고 있는 장수 프로그램으로 현재도 평균 110여 명의 어르신이 수강하고 있다. 봉은사는 연화대학 어르신들이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매년 학기당 6명을 선정해 장학금을 수여한다. 또한 연화대학 재학생과 졸업생들로 구성된 연화시니어봉사단도 있다. 5년 전인 2013년에 비해 2017년에는 10%가 증가한 121명이 입학을 신청하는 등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인기에도 사찰 참여는 '미미'

이러한 인기에도 사찰 노인대학은 서울 봉은사, 조계사, 대구 불광사와 부산 흥법사 등 네 곳으로 파악됐다. 불교계에 문화강좌는 많지만 이를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스템화한 노인대학은 극소수였다. 불교계가 수탁하는 복지관이 190여 곳에 이르고 불교교리를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불교대학이 140여 곳에 달하는 것과는 천양지차다.

종교계 노인대학 현황



고령화에 관심 · 참여 높아져
신도 재교육 · 동기부여 효과
재입학률 70%, 평생교육 수단

불교계, 4곳 정도 운영에 불과
강사 커리큘럼 구성 · 재정 문제
"지자체 지원 및 불교대학 활용"

보건복지부 2016년 현황자료에 따르면 노인대학은 1377곳으로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기독교계는 이런 움직임에 이미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3년 사단법인 한국노인대학복지협의회 회원사 중 개신교계는 132곳, 가톨릭계는 73곳이었다.

사찰들의 관심이 부족한 이유는 강사 배정과 문화 강좌 커리큘럼 구성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앞선 사찰들도 각각 5~10만원 수준의 강의료를 받고 있지만 재정적 부담 속에 신도 서비스 차원으로 진행하고 있다.

조계사 교육국장 승묵 스님은 "규모가 작은 사찰의 경우 재정문제와 외부 강사 섭외의 한계,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 기성 신도 수 부족 등으로 노인대학 개설을 주저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노인대학 시스템을 갖추면 지자체에서 강사 파견 등 지원한다. 복지관과 달리 사찰에서 강좌를 진행해 포교에도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홍법사 평생교육원 이름으로 노인대학을 운영 중인 흥법사의 진창호 종무실장은 "요가, 악기연주 등 강좌를 진행하는데 지자체로부터 강사 파견을 무료로 지원받고 있다. 최근에는 정식허가를 받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1월 15일 노인대학 과정을 개설한 대구 불광사 경북불교대학(주지 돈관)은 기존 불교대학의 인력풀을 적극 활용한 경우다. 경북불교대학 노인대학에는 예상보다 많은 65명의 어르신들이 입학했다.

신문희 경북불교대학 학사담당자는 "지역 동사무소에 노인대학이 없어 입학자 중 절반 가량인 30여 명이 외부 어르신들이다. 기존 불교대학 자문단으로 구성된 대학 명예교수들이 힘을 보탰다"고 소개했다.

신도 재교육 차원서 '필수'

노인대학은 어르신 포교 뿐만 아니라 신도 재교육 및 유지 차원에서도 필수란 지적이 많다. 김영환 봉은사 교육국 팀장은 "노인대학은 평생 신도교육 시스템"이라며 "문화강좌 위주의 노인대학은 지속 동참 가능하다. 봉은사만 해도 재입학률이 7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조계종 포교원 교화팀 관계자도 "현재 신도 재교육 차원에서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현재 신도 재교육은 권고사항에 불과하지만 지속적인 신도관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사찰 신도를 대상으로 재교육에 대한 의향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인대학 성패는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의 질이 관건이다. 조계사의 경우 기존 불교대학이나 합창단 프로그램과 유사한 청춘학당을 2016년 개설했으나 입학자가 40명을 밑돌아 폐쇄했다. 이에 대해 승묵 스님은 "청춘학당과 달리 백송대학은 스마트폰 강좌 등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커리큘럼을 짰다. 어르신들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수준 높은 강사진이 중요하다. 불교 사상을 담은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노덕현 기자**



광화문 광장에 피어 오른 '화합과 평화'의 불

"활활 타오르는 이 평화의 불처럼 이 땅에 화합과 평화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4월 5일 광화문 광장서 개최한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평화의불 점등식에서는 불자들과 사회 각 분야 지도자들이 한마음으로 평화를 기원했다. 봄비가 내리는 와중에 우의조차 입지 않는 열정을 보이는 스님들의 모습이 가슴을 더욱 뜨겁게 한다. 〈관련기사 5면〉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도난 성보, 오욕 세월 건너 본래 자리로

조계종 · 피해사찰協, 4월 4일 이운 고불식

2014년부터 회수된 48점
전국 사찰 원소장처 환수

宗·警·官 협력 우수 사례
"성보 환수운동 계기되길"

도굴꾼과 장물업자들로 인해 원 소장처인 사찰에서 떠나 은닉됐던 성보 문화재들의 환지본처(還至本處)가 이뤄졌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과 도난불교문화재피해사찰협의회(회장 지거)는 4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다치 찾은 성보' 이운 고불식을 봉행했다.

이날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된 성보들은 31건 48점. 이들 성보는 짧게는 14년, 길게는 30년 이상을 도난 범죄로 인해 본래 사찰에서 떠나있었다.

이들 성보들이 본격적으로 환수되기 시작한 것은 2014년 조계종과 문화재청, 경찰청이 협력 MOU를 맺고 은닉범을 검거하면서부터다. 조계종과 기관들은 회수된 성보들의 법적 절차 및 소유권 환부까지 완료하고, 불교중앙박물관에 임시보관해 왔다.

이날 고불식은 박물관에 보관된 성보들을 원소장처로 환지본처함을 부처님께 알리는 자리였다.

고불식 참여 대중은 송광사 주지 진화 스님이 대표 낭독한 고불문을 통해 "도난된지 수십 년만에 나투신 이 성보들은 종단과 문화재청, 경찰청 등 국가 기관이 함께 협력해 회수한 큰 원력의 결과물"이라며 "오늘 고불식의 인연과 부처님의 가피로 도난당해 소식이 묘연한 모든 성보들이 청정한 도량으로 돌아오기를 앙망한다"고 기원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치사를 통해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귀중한 성보가 하루속히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달라"면서 "많은 문화재가 제자리를 떠나고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우리 사회에 환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이운 행사에서는 원 소장처까지의 여법하고 안전한 이운을 기원하는 의미로, 석가모니불 정근에 맞춰 피해 사찰 주지스님과 사부대중이 유물 운송차량까지 성보를 이운했다.

해당 성보들은 4월 7일까지 전국의 원 소장처 사찰과 위탁보관소 16개소로 이운돼 봉안됐다. 또한 조계종 문화부는 48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대비사 영산회상도, 청도 용천사 영산회상도, 순천 송광사 지장시왕도 등 불화 6점을 문화재청에 보물 지정 신청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선운사
삼사순례 안내

삼사 성지순례는 영험깊은 기도도량을 순례하며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벗어나 지극한 심신으로 업장소멸을 다짐하는 불교의 오래된 풍속입니다.

강학과 수선도량 선운사는 미륵지장기도성지 **도솔암**과 참회수행도량 **참당암**이 자리잡고 있어 성지순례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사찰경내에 **대형저수지(도솔제)**가 자리잡고 있어 방생법회와 삼사 성지순례의 명소입니다.

유서깊은 기도도량의 순례를 통해 신심을 다져보시기 바랍니다.



1코스 : 선운사 ⇨ (5분) ⇨ 도솔제(방생)(5분) ⇨ 참당암(5분) ⇨ 도솔암

2코스 : 도솔암 ⇨ (5분) ⇨ 도솔제(방생)(5분) ⇨ 문수사(고창) ⇨ 문수사(부안)

오시는 길

- 서울출발 : 경부고속도로 → 천안 논산 고속도로 → 서해안 고속도로 → 선운산 I.C → 선운사(약 3시간 소요)
- 부산출발 : 남해고속도로 → 담양 고창 고속도로 → 서해안 고속도로 → 선운산 I.C → 선운사(약 3시간 소요)
- 대구출발 : 88올림픽고속도로 → 담양 고창 고속도로 → 서해안 고속도로 → 선운산 I.C → 선운사(약 3시간 소요)

※ 사전 연락주시면 사찰안내 및 방생 편의를 제공해 드립니다.
※ 대형버스 진입가능.


선운사 강학과 수선 도량


도솔암 도솔천 내원궁 해동 제일 미륵 · 지장보살 성지


청량산 문수사(문수보살 기도성지)


능가산 내소사(서해제일 관음기도도량)


참당암 참회수행도량


방생 최적지 도솔제 (경내 차량 5분거리에 위치)

■ 문의 : 선운사 종무소 063)561-1422 / 도솔암 063)564-2861 / 내소사 063)583-7281 / 문수사 063)562-0502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선운사 http://www.seonunsa.org/

종교문화 현상에 인문학 사유 담다

종교문화硏, 〈종교인문학〉 창간

종교 문화 현상에 인문학적 사유와 성찰을 담은 월간 온라인 칼럼이 발행된다.

한국종교문화연구소는 최근 온라인을 통해 〈종교인문학〉 1호를 창간·발행했다. 첫 호에는 종교문화연구소 이사장인 정진홍 서울대 명예교수가 '생로병사'를 주제로 한 자전적 에세이가 실렸다.

월간 온라인 칼럼을 표방하는 〈종교인문학〉은 매월 200자 원고지 50~60매 분량의 에세이 칼럼을 수록한다. 올해 주제는 '생로병사'로 투고 필자들의 차별적 관점이 반영된 글을 모으자는 의도가 반영됐다.

종교문화연구소는 "월간 〈종교인문학〉은 해마다 주제를 정해 매월 한편씩 글을 싣고 이를 강연, 출판 등과 연계해 대중과 소통의 폭을 넓혀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종교인문학 대중강연, 종교인문학 총서가 연계돼 기획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차별금지법 제정, 대선 공약 나와야"

김상겸 교수, 종평위 토론회서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종교차별 등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공약으로 제시돼야한단 의견이 제시됐다. 박근혜 前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선이 7개월이나 앞당겨진 가운데, 대선주자들이 차별금지법 관련 공약에는 뒷짐을 지고 있어 이 같은 주장이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3월 31일 열린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주최 '종교평화 문화정착을 위한 토론회'서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대선공약과 관련해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차별과 증오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여부"라며 "특히 남녀차별 문제 뿐 아니라 종교차별의 문제는 대선후보자들이 풀어야할 숙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간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던 정치인이나 공직자의 종교편향 논란을 지적하고,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이번 대선에서 차별금지법 제정과 및 차별을 원인으로 한 증오범죄 방지 제도개선이 공약으로 제시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부처님 原音 전파 30년… 초기불교 대중화 견인

창립 30년 맞은 (사)고요한 소리

1980년대 한국불교에서 초기불교는 불모지와 같았다. 초기불교 경전에 담긴 부처님의 원음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는 텍스트가 필요했다. 초기불교 불모지였던 당시 오롯이 빠알리어 원전 번역을 목적에 두고 창립한 첫 원전 번역 단체가 (사)고요한 소리다.

(사)고요한 소리는 1987년 활성 스님이 중심이 돼 창립됐다. 1992년에는 사단법인으로 전환됐다.

(사)고요한 소리의 주요 사업은 역경불사다. 이들 단체는 근본불교 대장경인 빠알리 경전을 우리말로 옮기는 불사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스리랑카 불자출판협회(BPS)에서 간행한 양질의 불서 및 논문들을 국내에 번역·소개하고 있다.

30년 동안 △금구의 말씀 △소리 △법륜 △보리수잎 등 4개 시리즈를 통해 81권의 책이 출간됐다. 4개 시리즈는 각각의 특징이 있다. '금구의 말씀'은 부처님 말씀을 담은 경전이며, '소리'는 활성 스님 법문을 수록했다. '법륜'은 경전 교리를 깊게 소개하고 있으며, '보리수잎'은 생활불교, 불교실천론 등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폭 넓은 주제의 책자들은 초기불교는 물론 불교실천론, 응용불교 등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높였다. 특히 초기불교·근본불교가 한국불교계에서 대중화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빠알리어 원전 번역 위해
활성 스님이 1987년 창립

철학·실천론·수행법 담아낸
법륜·보리수 등 시리즈 내놔

15일 중도포럼 등 기념행사
중도적 관점서 현 시대 조명
활성 스님 첫 대중 법문 '눈길'

변영섭 (사)고요한 소리 공동대표(前 문화재청장)는 "근본불교·불교철학·심리학·수행법 등 실생활과 연관된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다루는 이 책들이 실천불교의 진수"라면서 "지난 30년 간 불법과 수행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사)고요한 소리의 운영 특징은 '무주상보시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역점 사업인 책자를 발간에 있어서도 윤문 자원봉사자들의 동참으로 이뤄진다. 윤문팀은 매주 토요일 모여 하루 종일 번역·윤문 작업을 진행한다. 또한 (사)고요한 소리는 책값은 30년 전과 같이 500원과 1000원을 유지하고 있다. 모두 '자본주의를 벗어난 보시·봉사의 순환을 만들자'는 회주 경봉 스님의 뜻이 반영됐다.

변 대표는 "활성 스님은 평시 '돈 받지 않고 하는 일이 가장 고상한 일'이라고 말씀한다"면서 "윤문 번역봉사를 하면 자연스럽게 자기 공부가 됨을 알기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는 (사)고요한 소리는 기념행사로 불교의 중도에서 공생의 길을 찾는 포럼을 연다. 이번 포럼은 '중도'를 주제로 한 3년 기획 시리즈 중 첫 번째로 2019년까지 2번 더 열린다.

오는 4월 15일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중도(中道), 이 시대의 길'을 주제로 열리는 중도포럼에서는 현대사회의 제반 문제에 대한 중도적 고찰부터 초기불교 안에서 중도 실천·수행 등이 조명된다.

주요 발제자로는 양형진 고려대 물리학과 교수, 홍창성 미네소타주립대 철학과 교수, 임승택 경북대 철학과 교수, 백도수 능인대학원대 불교학과 교수, 김재성 능인대학원대 명상심리학과 교수, 이유미 스리랑카 캐라니야대 불교철학 박사가 참여한다.

포럼에 앞서 (사)고요한 소리 창립 30주년 행사도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지리산 토굴서 수행 중인 활성 스님이 처음으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법문을 설할 예정이라 눈길을 끈다.

중도포럼의 좌장을 맡은 상도선원장 미산 스님은 "고요한 소리는 대승과 선 중심의 한국불교에서 초기불교를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초석을 만들었다"면서 "부처님 가르침의 귀결점은 '중도'다. 일체의 갈등을 극복하고 지속적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길은 중도사상 이외는 없다는 사실이 이번 포럼을 통해서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숫자로 본 고요한 소리 30년

1987
고요한 소리 창립연도

81
금구의 말씀·소리·법륜·보리수잎 시리즈 총 권수

50
윤문 참여 봉사자 연평균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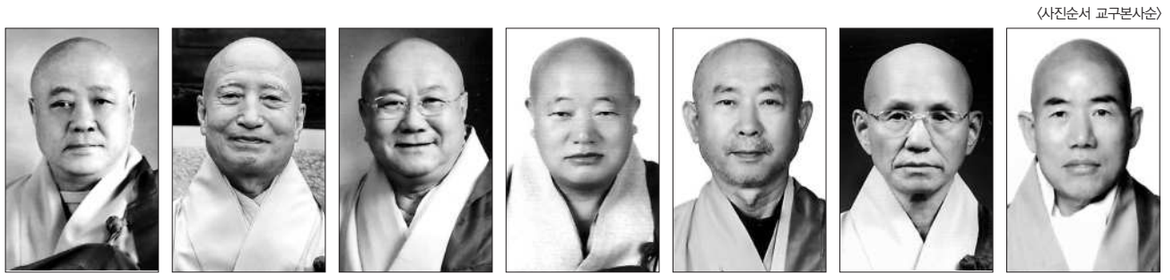
500 and 1000
30년째 변함없는 책값



조계종 새 원로의원 7인 만장일치 선출

4월 6일, 원로회의 부의장엔 세민 스님

〈사진순서 교구본사순〉



철웅 스님 | 설정 스님 | 법타 스님 | 성타 스님 | 지하 스님 | 월주 스님 | 보선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가 추천한 신임 원로의원 7인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밀운)는 4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서 제53차 회의를 열고, 중앙종회가 추천한 원로의원 철웅(마곡사)·설정(수덕사)·법타(은해사)·성타(불국사)·지하(쌍계사)·월주(금산사)·보선(대흥사)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는 現 원로의원 밀운·원명·명선·도문·월서·혜승·현해·고우·법흥 스님의 임기가 오는 4월 26일 만료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아울러 부의장 명선 스님이 사임원을 제출해 후임으로 세민 스님을 선출했다. 원로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전원 임기가 만료될 시 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원로회의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신임부의장 세민 스님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부의장 임기는 올해 12월 11일까지. 따라서 새 원로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세민 스님이 의장직을 대행한다.

기존 원로의원 임기만료 앞서
부의장 임기는 12월 11일까지
원로회의법 개정안 추후 논의

의장단 동시 사임 등으로 인한 법리적 보강 등의 내용을 담은 원로회의법 개정안은 원로의원 9명의 임기가 만료되므로 새 원로의원 임기가 시작되면 추후 회의를 소집해 다루기로 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전국비구니회, 5월부터 의료비 지원

백천문화재단과 협약… 복지기금 마련해

전국비구니회가 비구니 복지 향상을 위해 5월부터 의료비 지원에 나선다.

전국비구니회(회장 육문)는 3월 31일 서울 법룡사 전국비구니회관서 제1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비구니회 위상과 회원 소속감을 높이고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나설 것을 밝혔다.〈사진〉



전국비구니회에 따르면 이 사업은 백천문화재단과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시행된다. 지난해 전국비구니회가 비구니 편익 증진을 위해 고민하던 때 백천문화재단 측에서 복지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국비구니회와 백천문화재단은 각각 매월 200만원씩 예산을 편성, 5월부터 12월까지 총 3200만원의 사업비를 바탕으로 비구니 스님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국비구니회 소속 비구니 스님과 자비원 광명노인요양원에 입소한 비구니 스님이며, 본인부담 의료비 20%(1인 100만원 한도)가 지원된다. 전국비구니회는 지속적인 복지기금 모연을 통해 지원규모와 대상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비구니회는 이외에도 △불교적 호스피스 교육과정(9/8~10) △종단사업 지주회사 도반HC와 달력 및 생수사업 협약 △불교영어통번역과정(9/13~17) △전문가 양성을 위한 사찰음식 승가교육 등을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회칙 개정을 통해 조계종단 승적과 함께 전국비구니회에 등록한 회원에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키로 했다. 또 비구니의 자존과 정체성, 자율성 확보를 위해 명사 법계 추대위원회를 종단 법계 법령에 맞춰 신설하도록 했다.

윤호섭 기자

대한불교원효종

追 원효보살 열반 1331주기 추모대재 慕

대한불교 원효종의 종조이신 원효보살의
열반 1331 주기 추모대재에
종도 및 불자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하시어
원효보살님의 뜻을 기리고 추모합시다.

일 시 : 불기 2561(2017)년 4월 25일(화) 10시
장 소 : 경주 서라벌 대학교 원석체육관(웰빙센터)
(경북 경주시 태종로 522)

종 정 설제 정광

원로원장 창해 자문위원장 금봉 종회의장 태일
총무원장 우석 총무부원장 보원 규정원장 성암
상벌위원장 일륜
원로위원 혜초 수경 혜봉 성호 법진 서응
종회부의장 자안 보광
종회의원 법진 자광 법원 현수 지광 향봉 수월 자성 일륜 성죽 마명 청암
선거관리 위원장 석불 선거 관리위원 현수 무공 정운
종학원장 옥천 고시원장 자광 의전실장 석해 포교원장 선운
문화원장 효산 복지원장 범일 교육원장 행광
부산교구원장 석불 울산교구원장 지광 대구교구원장 석해 경남교구원장 월함 전북교구원장 경오
제주교구원장 법원 전남교구원장 마명 대전충남원장 자성 경북교구원장 성죽 강원교구원장 성암
(사)대한선불교원효종 이사장 청암

대한불교원효종 종정 설제 정광 총무원장 법광 우석
주소 : 경주시 충현로 3길 4-1 TEL : 054)743-0700

‘우리 모두의 연등회’ 대단원 막 오른다

4월 12일 서울 광화문광장 점등식으로 개막

불기 2561(2017)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가 불자뿐만 아닌 모든 시민을 위한 행사로 다가간다.

올해는 특히 ‘차별 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힐링체험과 형형색색의 등(燈)으로 화합 분위기 조성에 힘을 싣는다.

올해 연등회는 4월 12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광장 점등식을 시작으로 대단원의 막이 오른다. 점등식에는 국보 제11호이자 한국 석탑 최대 걸작으로 일컬어지는 미륵사지석탑을 원형으로 삼은 탑등이 설치된다.

이 탑등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며 불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세월호가 3년 만에 뭍으로 올라오고, 대통령 탄핵정국을 보낸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 맞춰 모두가 고귀한 존재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대국민 화합이라는 의의가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탑등 사방에 사물등(법고 · 범종 · 운판 · 목어)이 세워져 광화문 일대를 더욱 환히 밝히게 된다.

연등회 본행사인 어울림마당과 연등행렬, 회향한마당, 전통문화마당은 28~30일 펼쳐진다. 29일 오후 4시 30분 동국대 운동장서 시작되는 어울림마당에는 40여 단체 1000여 명의 연희단이 율동공연으로 축제 분위기를 한껏 돋우고, 아기부처님 관욕을 통해 부처님이 중생의 성불을 돕고자 진리를 설한 대자대비를 되새긴다. 또한 예년과는 달리 가설관람석을 대거 설치해 행사 집중성과 연희단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이어 진행되는 연등회 백미 연등행렬은 동대문부터 종로 일대를 10만개의 행렬등

‘차별 없는 세상’ 주제로
28~30일 종로구 일대서
어울림마당 · 연등행렬 등
시민과 화합의 장 연출

과 장엄등으로 수놓는다. 올해 테마등은 사물등이지만 이보다 초등학생을 포함한 가족들이 함께 만든 현대적 장엄등이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 SNS에 사용되는 이모티콘 캐릭터등을 비롯해 복주머니, 버선, 탑 등 세대전승과 가족공동체 정신을 높이는 창작등이 다수 등장한다. 또 행렬을 맞이하는 관람객에게는 기다리는 동안 27개국 80여 명으로 구성된 글로벌 서포터즈와 함께 배우는 연등회 율동 시간도 진행된다.



2017 봉축표어포스터

같은 날 오후 9시 30분 종각사거리서 연등회를 기념하고 피날레를 장식하는 회향한마당은 민요와 강강술래, 대중율동곡 등으로 대동제를 연출한다.

30일 조계사 앞 우정국로서는 130여 부스가 참여하는 전통문화마당이 열린다. 올해 눈길을 끄는 프로그램은 정목 스님의 토크콘서트.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서로 공감하고, 삶의 희망을 찾아가는 시간이 제공된다. 이외에 참선 · 명상 · 심리상담 등 다양한 방식의 힐링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애니메이션 · 컬리링 · 미니게임 등 청년마당 또한 강화된다. 특히 7개 사찰이 제각기 다른 메뉴를 선보이는 사찰음식코너는 최근 건강한 먹을거리를 찾는 이들에게 좋은 안내가 될 전망이다. 연등회는 이날 저녁 인사동과 종로 일대서 다시 한 번 소규모 연등행렬을 펼친 뒤 막을 내린다.

한편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조계사 옆 우정공원과 청계천, 봉은사 등서 펼쳐지는 전통등전시회는 서울 도심을 전통과 낭만의 빛으로 물들인다. 청계천서는 ‘염천(念天), 흐르는 물에서 하늘을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험한 세파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빛이 끝내 절망을 이겨내고 비상하는 모습을 표현한다. 아울러 봉은사서는 ‘화동세중(和同世中)’을 주제로 가족 화합을 도모하고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전통등을 전시한다.

연등회 보존위원회 사무국장 대안 스님은 “많은 분들이 연등회를 단순히 불교행사라고 느낀다. 하지만 연등회는 과거부터 이어져온 국가행사인데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였다”며 “너와 내가 결코 다르지 않다는 평등의식을 바탕으로 민족 풍습인 연등회에 국민 모두가 참여해 화합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광화문광장을 밝힌 미륵사지석탑등

책 한권에 成佛 인연을

불교인권위, 동화책 · 경전 보내기

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진관) 등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도서벽지 어린이에게 동화책 보내기 및 전국 교도소 양심수에게 경전 보내기 운동을 펼친다. 불교인권위는 4월 4일 조계사불교대학 4층 교육장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날부터 어린이 동화책 및 불서 모연에 나선다고 밝혔다.〈사진 아래〉 도서벽지 초등학교 및 전국 구치소, 교도소의 양심수들에게 보내기 위함이다.

불교인권위는 “교도소에서 불서를 읽는 것은 자유가 통제된 수감생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면서 “수많은 양심수들은 수감생활 동안 자신을 성찰하고 마음을 치유하며 재충전의 기회로 삼는다. 그래서 이번 운동이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지혜의 등불이며, 새 세상으로 인도하는 감로의 샘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어린이 동화책 및 불서를 보내기 희망하는 자는 불교인권위원회 앞으로 부처님오신날 전까지 보내면 된다.

이번 동화책 및 경전 보내기 운동엔 무진장불교문화연구원, (사)경허연구소, 한국불교종단협 인권위원회가 함께한다. 후원계좌 110-450-460811(신한은행 예금주 박용모)

박아름 기자



분단 아픔 치유할 평화의 법당 문열다

조계종 군종교구, 3월 31일 판문점에 무량수전 낙성



남북 분단의 아픔이 서려있는 판문점에 평화를 상징하는 법당이 문을 열었다.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정우)는 3월 31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무량수전 낙성법회를 개최했다.〈사진 위〉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과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등 불교계 인사들과 군승, 이종화 육군1사단장, 박정이 예비역불자회장 등 군불자 600여 명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법어에서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긴장감이 감도는 이곳 판문점에서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무량수전을 낙성하게 돼 뜻 깊다”고 말했다.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오늘의 불사는 수많은 인연들의 동참으로 이룰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전하며 “평화의 종소리가 울리는 날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육군1사단장 이종화 소장은 “무량수전 신축불사가 원만히 성취됐다. 대한민국의 최전방을 지키는 장병들이 이곳에서 불퇴전의 용맹정진으로 참불자가 돼 나라를 지키는 호법신장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낙성된 무량수전은 공동경비구역 안보견학관 옆에 자리해 있으며 82.32㎡(24.9평)의 규모다. 고려시대 양식인 수덕사 대웅전과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을 본떠 만들어졌다. 이와 함께 왼편에는 9㎡(2.72평)의 종각에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6.25관의 ‘평화의종’이 조성됐다.

내부에는 아미타삼존불과 함께 한국전쟁 당시 참전한 16개국 전사자 위패와 국군장병 위패 등이 모셔져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목포신항에 미수습자 수습 발원 기도법당 설치

조계종 사회노동위, 매일 독송 및 염불 기도 정진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 이하 사회노동위)는 세월호가 육상 거치되는 목포신항만에 미수습자 9명의 조기 수습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컨테이너 임시법당을 설치했다.〈사진〉 사회노동위는 이곳서 미수습자가 온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발원하는 독송 및 염불 기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임시법당은 사회노동위 수석 부위원장 도철스님과 양한웅 집행위원장이 상주하며 매일 1000배, 관세음보살 정근, 금강경 독송, 염불 등 기도를 진행한다. 또한 대흥사를 비롯한 목포 · 영암지역 사찰 스님들과 신도들도 기도에 동참할 계획이다.

4월 8일을 첫 번째 집중기도회를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미수습자 온존수습을 위한 집중기도회’를 봉행하는 사회노동위는 기도 동참 불자를 모집한다. 매주 토요일 오전 8시 서울 조계사 앞에서 무료 운행 버스가 출발하며, 당일 오후 11시 서울 도착한다. (02)2011-1822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일 주 문



수불장학금 전달

수불 동국대 국제선센터장 스님은 4월 4일 동국대 본관 로터스홀에서 연구업적우수자 등 8명에게 수불장학금을 전달했다.



마음출가학교 모집

정념 월정사 주지 스님은 4월 14일까지 월정사 마음출가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학교는 4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진행된다.



군종특별교구 군승안거

정우 군종특별교구 교구장 스님은 4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간 김천 직지사에서 2017년 군승안거 및 포살법회를 진행했다.



불국사어린이 그리기 대회

종우 경주 불국사 주지 스님은 4월 23일 불국사 범영루 광장에서 제32회 불국사어린이 그리기 글짓기 대회를 개최한다.



팔만대장경의날 기념법회

향적 합천 해인사 주지 스님은 4월 7일부터 8일까지 해인사에서 제57회 팔만대장경의날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전등사기 게이트볼대회 성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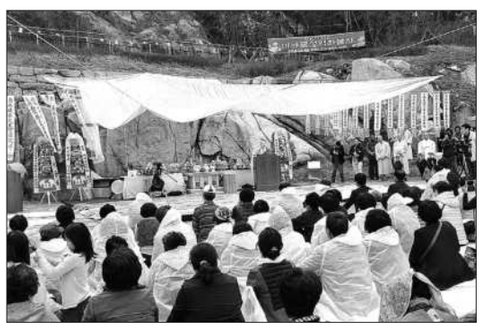
승석 강화 전등사 주지 스님은 4월 4일 강화 공설운동장에서 제12회 전등사기 강화게이트볼 대회를 성료했다.



동아시아차문화硏 사단법인 승인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소장은 3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연구소 사단법인을 승인 받았다.

낙단보 마애불 보존 관리동 기공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주지 호성)와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4월 1일 의성 낙단보 마애불 앞 광장서 마애불 관리동 기공식을 봉행했다. 관리동은 마애불 수호를 위한 조계종과 고운사 의지로 마련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사찰림 경제성에 종단차원 관심 필요"

Interview

한국사찰림연구소 이사장 종수 스님



지역사찰 수종 선정 · 보급
묘목장 등 사찰림 개발 제안
숲힐링 · 시민교실 전개
"국민과 사찰림 가까워져야"

"종단차원서 산림과 관련된 국가 지원책을 각 본사나 말사별로 알리고 지원할 때입니다. 즉 산림탄소상쇄제도나 조림지원제도, 산지경영제도, 산지환경 보호 관련 매뉴얼 등을 제작해 수행공간으로서의 사찰림 면모를 갖추도록 하고 수익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지난달 식목일에 앞서 의왕 청계사 인근 산에서 '사찰숲 복원을 위한 나무심기'를 개최한 한국사찰림연구소. 이사장 종수 스님은 식목일을 맞아 실시한 본지 인터뷰서 사찰림의 경제성과 보호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종수 스님은 "사찰별로는 식생복원과 소득증대를 꾀하기 위해 지역에 알맞은 수종을 선정하고, 대량으로 생산해 수요처에 공급할 수 있다. 특히 묘목장이나 특화작물을 단지화 해 기술집약적이고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면 사찰림 경제성을 한껏 끌어올릴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선 국가산림경영체계와 연계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불교계가 많은 산림을 소유하고 있지만 보존이나 활용방안이 뚜렷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정책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단계란 얘기다.

종수 스님은 사찰림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면 불교계 이미지 변화에도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스님은 "올해 연구소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숲힐링사업'과 '숲과 함께하는 시민교실'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소외계층 여성만을 위한 별도의 직능교육도 준비 중"이라며 "이 같은 대사회적 프로그램이 꾸준히 이어지면 지역사찰은 물론 전반적인 불교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 탈종교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현 시대에 조금이나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수 스님은 끝으로 연구소 운영계획에 대해 사찰림과 전통문화와의 공존관계서 얻는 유익성을 중심으로 국가적 산림정책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스님은 "종단과 뜻을 함께해 사찰림의 가치를 구현하고, 공익성을 재정립하는 연구를 실시하겠다. 아울러 전문적인 보호체계 DB를 구축해 사찰림이 국민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관련 정책연구와 각종 공모사업 등을 통해 국민과 더욱 가까운 사찰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청명한 날씨 전하듯, 부처님 법 전해요"

女기상캐스터 1호 이익선 씨, 조계종 신도등록 홍보대사로

조계종 포교원 4월 4일 위촉
"재능 적극활용, 불교 발전 기여"

뉴스에서 남성캐스터가 날씨를 전하던 26년 전, 한 여성캐스터의 등장은 여성 사회진출의 상징이 됐다. 그 주인공이었던 '여성 기상캐스터 1호' 이익선(49, 법명 수선행) 씨가 첫 여성 조계종 신도등록 홍보대사로 나섰다.

조계종 포교원은 4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 위치한 포교원장 집무실에서 이익선 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조계종 포교원은 2002년 가족 최초로 남일우 · 김용림 부부와 아들 남상진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한데 이어 2009년 신도증 발급을 시작으로 개그맨 이수근 씨를 신도등록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2010년 산악인 엄홍길 씨, 2011년 야구선수 이대호 씨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했으며 2017년 여성 단독으로 이익선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됐다.



이익선 씨가 신도증을 들고 밝게 웃고 있다. 재적사찰에 홍보대사란 부분이 재치있다.

이 씨는 "기획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전히 방송생활을 이어가는 또래 여성방송인이 많지 않다. 방송활동을 이어가는 것도 부처님의 가피 덕분"이라며 "부처님이 가진 재능을 잘 쓰라고 복을 주셔서 방송을 하고 있다. 불교와 종단의 발전을 위해 힘닿는 대로 돕겠다"고 말했다.

이런 이 씨에게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신행혁신운동 '붓다로 살자'를 설명하며 "마음 내주셔서 감사하다. 많은 분들에게 인지도가 있는 만큼 불자로서 신도등록 장려에 좋은 홍보효과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한편, 신도등록 홍보대사는 불교 포교를 위한 각종 행사에 참여하며 신도등록 관련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이 씨는 1991년부터 2006년까지 15년간 KBS서 기상캐스터로 활동했으며 현재 tv토크쇼와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 등 방송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노덕현 기자

조동종, 동산 양개 스님 헌다례재



(사)대한불교조동종(총무원장 덕우)은 4월 4일 총무원 수락산 도선사에서 '종조 동산존자 양개대화상 헌다례재 및 묵조선풍 수미산문 법통계승 합동 입실건당'을 개최했다.

덕우 스님은 "조동종 종도들은 묵조선풍으로 세계 속에 한국, 한국 속에 세계불교의 상을 정립하고 우리의 이상인 정토구연의 대승보살도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다례재 행사 전에는 세월호 희생자의 극락왕생과 미수습자 9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금강경 독송을 사부대중이 함께 했다. **청운 경남남부 지사장**

대관음사, 봉축 동자승 단기출가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회주 우학)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동자승 단기출가를 4월 4일 대웅전 4층 대법당에서 봉행했다.

회주 우학 스님은 동자승에 수계하고 "스님들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면서 불교를 쉽고 가깝게 체험할 수 있길 바란다. 스님들의 일상생활과 참 모습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동자승 단기출가엔 대관음사 부설 참좋은 어린이집 유치원생(6~7세) 10여명이 동참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동국대 경주캠, 수계대법회 봉행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4월 5일 10시 30분 교내 문무관에서 재학생, 교직원, 동국대 경주병원, 일반 신도 등 1,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제25회 전 동국인 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

신성민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4월 29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국민행복 발원하는 '평화의 불' 밝히다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2부 행사에서 참석 내빈들이 평화의 불을 점등하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사진 왼쪽 아래)과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사진 왼쪽 아래서 두 번째)을 비롯해 주호영 국회의원 등 내빈들이 평화의 불을 점등하고 있다.

[현장]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개막

조계종 중앙신도회 5일 광화문서 개최
2만 불자 운집해 〈금강경〉 독송 정진
"우리사회 평화, 국가 안녕 바라요"

봄비가 내린 4월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민화합을 염원하는 뜨거운 불길이 치솟았다. 2만 불자들의 금강경 독송소리가 촛불과 태극기로 가득했던 광화문광장에서 울려 퍼지고, 정치 지도자들은 한데 모여 평화와 화합의 불을 점화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이사장 이기흥)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한 '2017행복바라미 문화재축전' 현장은 비가 오는 와중에도 국민화합과 국가안녕을 바라는 이들의 마음으로 따뜻했다.

대축전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빗줄기가 거세지는 와중에도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에서 온 500여 불자를 비롯한 각지의 불자들은 하나둘 씩 광장에 마련된 자리에 착석했다. 영천 은해사 등 일부 불자들은 세종문화회관 처마 아래 자리를 잡기도 했다.

오후 4시부터 법고 소리가 광장을 메우며 행사 시작을 알렸다. 육법공양 예불에 이어 불자들이 우산을 들고, 우비를 착용한 채 금강경 독송정진을 진행했다.

"부차 수보리 보살 어법응무소주 행어보시…" (수보리야 보살은 어떤 법에도 머물지 말고 마땅히 보시를 행할지니…)

행여 〈금강경〉 경전이 젖을까, 불자들은 각자 우산을 추켜들고 빗방울을 막았다. 점점 거세지는 빗줄기에도 금강경 독송 소리는 커졌다. 광화문 앞 무대부터 광화문 역사 입구까지 금강경을 독송하는 이들의 행렬은 이어졌다.

이윽고 40여 분 간 진행된 독송이 끝이 나고 2부 행사가 진행됐다. 행복바라미 홍보영상과 함께 각계의 축사가 이어졌다.

먼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오늘 금강경의 깊은 울림처럼 항상 머무르지 않는 마음으로 나의 옳음과 또 다른 옳음이 공존할 수 있는 청명한 사회로 함께 정진해가자"며 나라와 국민을 위한 뜻 깊은 현장에 함께 있음을 강조했다.

행사를 주최한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나라가 혼란스러운 와중에 불자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실현하고, 실천함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보다 조화로운 사회가 될 수 있기를 염원한다"며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이어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평화의 불 이운'이 진행됐다. 108산사순례기도회 회주 혜자 스님이 부처님 탄생지인 네팔 룸비니에서 채화한 평화의 불은 불자들의 마음이 더해져 더욱 밝게 빛났다.



광화문 앞 무대부터 세종대왕상을 거쳐 광화문 역사까지 불자들의 행렬은 이어졌다.



우중에도 금강경을 독송하는 2만 불자들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다.

2부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과, 국회 정각회장 주호영 의원,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남경필 경기도지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 총괄본부장, 박종수 현대불교신문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아내 김미경 교수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아내 이순삼 여사도 참석했다.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은 "자비심을 주 사상으로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춰보면 행복바라미야 말로 우리 불자와 불교가 앞장서 해야할 딱 좋은 보시행이 아닐까 싶다"며 "모연된 기금을 소외계층에게 회향하는 행복바라미가 국민들의 아픔을 함께 어루만지는 불교계 행사로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사 후 윤기중 포교사단장의 '평화기원문' 낭독을 시작으로 이날 모인 불자들의 마음은 하나가 됐다.

불자대중들은 "지난 반년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상처를 받은 시간이었다. 우리 불자들은 자신과 세상을 정화하며 내 몸과 같이 이웃을 보살피는 사명을 실현하고자 한다"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회 △소통과 대화로 화합하는 사회 △평등한 삶을 누리는 차별없는 세상 △자비실천으로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가 되기를 기원했다.

경남 고성에서 온 옥천사 신도 서도순 씨(대덕수)는 "비가 안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올라왔다. 차안에서도 한마음으로 금강경을 독송했다"며 "부처님 불법으로 하루빨리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충남 금산 태고사 정타 스님도 "처음으로 광화문에 왔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계기로 화합하는 모습이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 후 불자들은 남은 행사장에서 쓰레기를 주우며 성숙된 불자들의 시민의식을 보여줬다.

쓰레기를 치우던 서울 불광사에서 온 고정림씨는 "불자들이 국민들에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치적으로 많은 갈등이 있지만 불자들이 말 한마디 부드럽게 하고, 또 주변을 돕는 행동을 보임으로써 불교가 보다 더 사랑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행복바라미 대축전은 4월 22일까지 전국 200여 모금소에서 나눔문화 캠페인으로 전개된다. 부처님오신날 전까지 인천과 천안, 청주, 화성 강릉,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10여 곳에서 지역문화제가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017명 어르신 나눔 대축제 'START'

서울노인복지센터, 4월 5일~5월 10일 '나눔의 등축제'

2002년 시작돼 올해 15주년 맞아
'선배시민 2017명 만들다!' 슬로건
한 달간 센터 곳곳서 나눔 캠페인
상설모금대 운영 · 보이는 라디오 등



4월 5일 개최된 '2017 나눔의 등축제' 발대식에서 프로그램 홍보에 나선 서울노인복지센터 이용 어르신들.

"좋은 일에 선배시민들이 먼저 나서야죠. 많은 동참 바랍니다!"(서울노인복지센터 이용 조용수 어르신, 90세)

반가운 봄비가 내리던 식목일, 봉축을 앞둔 불교계 산하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는 환한 나눔의 등불이 밝게 타올랐다. 2002년 첫 발을 내딛은 서울노인복지센터의 '나눔의 등축제'가 올해 15주년을 맞이해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찾아온 것.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는 '2017 나눔의 등축제'를 4월 5일~5월 10일 한 달간 진행한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2002년을 시작으로 매년 어르신 복지 기금 마련 및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나눔의 등축제'를 열고 있다. 올해는 '더 이상 한 복지관, 나눔을 실천하는 선배시민 2017명이 만들다!'가 슬로건으로, 나눔의 동참하는 어르신들 2017명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축제가 열리는 한 달간 서울노인복지센터 내 33개 동아리 및 16개 탑골문화예술학교 교육반 소속 어르신들은 조를 구성해 센터 곳곳에서 나눔 모금 캠페인을 실시한다.

1 · 2층에 마련된 상설모금대에는 발대식이 열린 4월 5일부터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 들었다. 첫날 캠페인에 참여한 표민홍(79) 씨는 "최근 어지러운 시국으로 어르신들의 마음이 참 심란했다. 이번 등축제를 기점으로 다시 활기를 되찾길 바란다"며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돼 어르신 복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웃어보였다.

탑골미술관에선 어르신 작품 나눔 전시회 '봄에 핀 나눔 꽃'도 열린다. 어르신 작가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기증한 서예, 서화, 유화, 아크릴화 등 작품 40여점이 전시되며, 작품들은 소정의 금액으로 판매돼 노인복지기금에 쓰인다. 전시와 함께 △체험공방 '컵받침 만들기'(4월 13일) △어르신 작품 나눔 이벤트(4월 17~21일) △프리마켓 '김영감의 꿀단지'(4월 20~22일) 등 이색 프로그램도 함께 열린다.

이밖에 세부 프로그램 및 일정은 △먹거리 장터 '마음을 전하는 전부치기'(축제 기간 중, 3층 게이트볼장) △보이는 라디오 '고맙습니다 선배시민'(4월 중, 2층 로비) △어르신 나눔 작품 바자회 '봄에 핀 나눔 꽃'(4월 6일~5월 3일, 탑골미술관) △쌀 모으기 '사랑의 쌀독'(수시 진행, 1층) △어르신 상담센터 합동 캠페인(4월 26일, 탑골공원) △등축제 성과발표회(5월 10일, 3층 TOP작은공연장) 등이다.

관장 희유 스님은 "15년간 센터 어르신들이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면서 "발대식이 열리는 오늘 반가운 봄비가 내려 올해 축제는 더욱 잘 치러질 것 같다. 어르신 모두 즐거운 축제를 만끽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문금 어르신 모금단 대표는 "목표인원인 2017명 이상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올해도 성황리에 마무리되길 바란다"며 "이웃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아름 기자**

엄홍길휴먼재단 네팔 14차 휴먼스쿨 첫 삽

3월 29일 둘리켈 지역서 기공식



엄홍길휴먼재단(이사장 이재후)은 3월 29일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동남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둘리켈에서 엄홍길휴먼재단 엄홍길 상임이사, 홍옥선 사무처장, 현지 학교장, 학생, 마을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둘리켈 휴먼스쿨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가졌다.

현지 학교명은 쉬리 아자드 고등학교(Shree Ajad higher secondary school)로 학생 수가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720여 명에 달한다. 2015년 네팔 대지진 피해로 인하여 전체 26개 교실 중 17개 교실이 제구실을 못하는 상황에서 가건물에서 겨우 학업을 하는 등 신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14차 둘리켈 휴먼스쿨 건립에는 부산 도원사 주지 만오 스님이 건립기금을 후원하기로 했다. 엄홍길휴먼재단은 현대식 건물로 내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이날 기공식에서는 엄홍길 상임이사는 네팔 학생들에게 "제2의 고향인 네팔에서 휴먼스쿨을 통해 학생들에게 배움의 즐거움, 삶의 희망을 주고 싶었다"며 "여러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엄홍길휴먼재단은 지난 2008년 5월 설립된 이후 16개 휴먼스쿨 건립을 목표로 2017년 3월 현재 네팔에 12개의 휴먼스쿨을 준공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韓美청소년 미국서 불교문화로 뭉치자

조계종 국제전법단 4월 20일까지 제7차 연수 모집

조계종 국제전법단(단장 계성)과 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대표 정범)는 4월 20일까지 제7차 한미 청소년 불교문화연수단을 모집한다.

8월 4일부터 8월15일까지 진행되는 연수는 미국의 심장부인 뉴욕, 맨해튼, 코네티컷, 보스턴, 워싱턴 등을 돌아보며 하버드대학교, 스미소니언박물관 등 유수한 대학과 기관 등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구성돼 있다. 여정 동안 대학생 멘토들과 정범 스님(LA), 성향 스님(뉴욕) 등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님들이 함께하며 학생들을 돕는다.

이번 연수에서는 미동부 해외특별교구 소속 사찰 청소년과 함께하는 한미청소년 연합캠프도 3박 4일간 뉴욕 불광선원에서 진행된다. 특히 그룹 토론,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을 하며 우애를 쌓는 소중한 기회도 가지게 된다. 참가비는 350만원으로 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 홈페이지(www.kbin.or.kr)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kbin8985@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070)7769-8985 **노덕현 기자**



부처님 품안에서 백년해로를 서울 불광사(회주 지홍)와 배려포럼(공동대표 도법)은 3월 30일 하얏트 호텔에서 북한이탈주민 합동결혼식을 개최했다. 이날 합동결혼식에는 3쌍의 북한이탈주민이 부부의 연을 맺었다. 주례를 맡은 지홍 스님은 "한국 땅에서의 신랑과 신부로 맺어진 인연은 매우 소중하다"며 백년해로를 축원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복지재단, 중간관리자 연수 개최

4월 13일부터 1박 2일간…하반기엔 최고관리자 연수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4월 13일 1박 2일 동안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2017년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시설 중간관리자 연수'를 개최한다.

사회복지시설 중간관리자들이 불교와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시각을 갖추고, 불교사회경제 사상 함양과 조직문화 구축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이번 연수에는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선임 팀장 및 과장급 100여명이 참여한다.

"다양한 교육 · 연수 사업 추진을 통해 재단과 시설이 함께하는 불교사회복지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힌 재단은 "자연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휴식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심신을 편안하게 하고, 자기성찰과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국 약 200여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은 매년 산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불교적 가치관 함양 및 사회복지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직급별 교육 · 연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3월 신규입사자 연수와 4월 중간관리자 연수를 시작으로 6월에는 최고위과정(최고관리자)을, 하반기에는 템플스테이와 연계하여 불교복지 종사자의 행복증진을 위한 '(가칭) 행복충전 프로젝트'와 어린이집 종사자의 '보육교사 연수', 사회복지시설 '실무책임자 보수교육', '전체종사자 교육' 등 불교사회복지 종사자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티벳 수행지도자 라마글렌 법석 열린다

아산 대안사서 5월 3일 개최 예정

아산 대안사(주지 덕진)는 5월 3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티벳 수행지도자 라마글렌 초청 법석을 마련한다.

라마글렌 법사는 1949년 캐나다 출신으로 1972년부터 1984년까지 티벳 4대 종파 스승 35명으로부터 불교교학과 수행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다. 법사는 다람살라에서 20년간 달라이라마와 그의 두분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특히 딴뜨라를 전수받았다. 라마글렌은 해마다 6개월간 여러 나라를 다니며 티벳 수행법을 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4월 2일 서울 법련사에서의 '약사여래 수행', 4월 8일 아산 대안사에서의 '따라 관정식', 4월 10일 벽송사에서의 '밀레라파 치유요가 안거' 등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서울 법련사는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티벳불교 수행차제 법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경전공부는 마음 바로보기 위함이다

부산불교열린아카데미… '마음공부와 경전공부'

중앙승가대 명예교수 종범 스님

불도(佛道)를 닦는 불자라면 누구나 깨달음을 얻기 위해 공부한다. 참선 · 독경 · 염불 등 다양한 방편으로 부처님 가르침에 다가가고자 한다. 하지만 그 과정서 찾아오는 번뇌망상은 이를 괴롭게 한다. 어떤 자세로 공부할 때 깨달음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 중앙승가대 명예교수 종범 스님은 4월 3일 부산불교열린아카데미가 봉행한 '2017 선지식 초청 특별법회'서 "경전은 연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아는 것이고, 마음공부는 자성청정심을 보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리=하성미 기자



종범 스님은… 1963년 통도사에서 사미계를 수지했다. 1969년 통도사 강원 강주, 1980년 중앙승가대 강사 · 조계종 상임포교사, 1985년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 1991년 한국불교학회 이사 • 행원문화재단 이사, 1994년 조계종 개혁의회 의원, 1995년 조계종 교육원 교재편찬위원장, 1996년 삼보법회 교양대학장, 2000년 중앙승가대 총장 • 제5대 승가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자성만큼은 청정하다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 설법에 의해서 생겼습니다. 부처님은 자신이 얻은 깨달음을 대중에 전해주고자 설법을 하셨습니다.

깨달음이란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없던 것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늘 있었는데 지금까지 모르고 지내다 안 것, 그것을 깨달음이라 합니다.

〈화엄경〉 수미정상게찬품에는 '비여암중보(譬如暗中寶) 무등불가견(無燈不可見) 불법무인설(佛法無人說) 수혜막능료(雖慧莫能了)'라고 했습니다. 암실 속에 보물이 있는데 그걸 보기 위해선 등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명등(明燈)입니다. 밝은 등불입니다. 어둠 속 보물은 등불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법도 설명할 사람이 없으면 지혜가 있다고 해서 능히 알지 못합니다. 설법이 없으면 비록 재주가 있고 지혜가 있어도 불법을 바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럼 경전공부를 통해 깨달음의 세계로 어떻게 가며, 마음공부를 통해 깨달음 세계는 어떻게 가야 할까요?

〈금강경〉에 '제상비상(諸相非相)이면 즉견여래(卽見如來)'라 했습니다. 모든 상이 상이 아닌 줄로 볼 때 여래를 본다는 것입니다. 여래가 자성청정심입니다. 사람은 망상을 일으키지만 이를 일으키는 자성은 청정하기 때문에 자성청정심이 있다고 합니다. 대승불교가 가르치는 것이 이것입니다. 마음, 깨달음, 보리, 아뇩다라삼먁삼보리, 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바로 이것이 대승불교 입니다.

부처님은 열반을 깨닫고 자성청정심을 깨달았습니다. 보이는데 보이는 것이 없고, 들리는데 들리는 것이 없고, 없는데도 없는 것이 없고, 있는데도 있는 것이 없는 적멸을 마음으로 얻었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중생은 이것을 믿지도 못하고 믿어도 깨닫기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믿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많은 가르침이 나왔는데 그걸 방편이라 합니다.

의식은 창고와 같다

안이비설신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등 이 모든 것은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을 경계라 합니다. 경계를 인식할 때 마음은 밖에서 나그네가 되어 돌아와 정작 주인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공감하십니까? 자신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나요? 전부 남의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면 사물 경계만 우글우글합니다. 노 씨의 것이 많이 들어가면 노사모가 되고, 박 씨의 것이 많이 들어가면 박사모가 됩니다. 즉 의식은 창고와 같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들어오는 것을 취한다 해서 취상심(取相故)이라 합니다. 왔다 갔다 사라지는 것은 주인이 아닙니다. 형상은 티끌이고 항상 머무는 것이 아니어서 '나그네 객'에 '티끌 진'을 써 객진(客塵)이라 합니다. 이 몸이 다 객진인데 나그네처럼 밖에서 온 것에 매여서 젊으면 젊음에 매이고, 나이 들면 나이에 매이고, 죽을 땐 죽음에 매이고, 그래서 한 몸을 갖고도 여러 형태로 매입니다. 객진망상은 허망한 생각일 뿐입니다. 그리고 허망한 생각을 쫓아다니는 것을 윤회라 합니다. 하지만 취상심만이 전부가 아니고, 자성청정심이 있기 때문에 윤회를 끊으려면 자성청정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경전에서도 생멸 없는 적멸세계, 그것을 깨달으라고 가르칩니다. 자성청정심은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물건도 아닙니다. 하늘을 보지만 그 보는바 자성청정심은 하늘도 아니며 죽음을 인식하지만 죽음도 아니며 삶을 인식하지만 삶도 아닙니다. 그러니 그걸 이름하여 자성청정심이라 합니다. 그걸 딱 깨달으면 밝고 어둡고 죽고 살고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걸 무가애(無ㅁ), 즉 걸림이 없다고 합니다.

경을 펴고 경을 읽고 경을 해석하고 경을 쓰면서 결국 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경을 통해 마음을 압니다. 경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마치 거울을 보는데 거울을 통해 내 모습 보는 것과 같습니다. 간경공부란 경을 통해서 자신을 깨달으려 하는 것입니다. 경을 수지(受持)하며 독(讀)하며, 송(誦)하며, 해설(解說)하며, 서사(書寫)해서 자기 마음은 생멸 속에 생멸 없는 적멸을 깨닫게 됩니다. 그걸 경안(經眼)이라 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왔고 마음이 깨끗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한마음이 혼란한데서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한마음 조용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일체가 유심조입니다. 일체가 마음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든 마음을 돌아보고, 마음에서 나왔기에 다시 돌아가면 해결됩니다.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음공부입니다. 마음에서 나왔기에 마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걸 믿는 것이 첫째 마음공부입니다.

> "대상을 보는 나는 잊은 채
> 나그네를 쫓아 주인 잃는다
> 망상 만드는 自性 청정하니
> 시선을 안쪽으로 돌려 보라"

일념신심(一念信心)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늘도 하늘이라 아는 것은 나의 지견입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고 하늘인 줄만 알고 하늘을 아는 자기 지견은 모릅니다. 마음은 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계 없이 마음이 홀로 일어난다는 것은 없습니다. 조용한 생각을 해도 이 조용한 것이 경계이며 대상입니다. 시끄러운 것을 생각하는 것도 시끄러운 경계 대상입니다. 죽는 것도 태어남도 대상이고 다 마음은 경계에 의탁해서 바야흐로 생깁니다. 모든 것은 자기 지견인데 경계만 알고 자기 지견은 모릅니다. 자기 지견이 깨끗하면 경계도 깨끗해지고 지견이 산란하면 경계도 산란합니다. 마음 없는 경계가 없습니다. 이걸 확실히 믿을 때 마음공부에 대한 의심이 없습니다.

나를 깨닫기 위해 읽는 經

〈금강경〉에 '득문시경(得聞是經) 신심청정(信心淸淨) 즉생실상(卽生實相)'이라 했습니다. 듣고 믿는 마음이 청정하면 곧 실상이 드러납니다.

경을 수지독송해 서사하면 신심이 청정해지고 신심이 청정해지면 본래 보고 아는 밑바탕, 자기 본래면목을 압니다. 경전을 자꾸 보면 스스로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며 물건도 아닌 자성청정심을 보는 것인데 어려운 것 같아도 부처님께서 먼저 깨닫지 않았습니까? 깨달은 분이 자세히 말해주셨으니 깨달음에 실패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내가 안 믿어서 못하고 안 해서 못하는 것이지 믿고 하면 실패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처럼 깨달음을 먼저 이루신 분이 그대로 잘 가르쳐놨기 때문에 마음공부는 경전을 생략하는 것입니다. 마음공부는 경전을 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해지면 모든 것 또한 깨끗해진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마음이 깊어지면 모든 것이 깊어집니다. 죽고 살고 하는데도 죽고 삶이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현지(玄志)라 합니다. 죽고 사는 속에 생과 사가 아닌 세계가 있습니다. 현묘(玄妙)하단 말을 씁니다. 조주록에 처음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람이 태어나고 죽지만 태어나는 가운데 태어나지 않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죽는데 죽지 아니하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깊은 뜻을 아는 것을 현오(玄奧)라 합니다. 그 깊은 뜻을 깊게 아는 것, 그것을 깨달음이라 하고 견성이라 합니다. 오도라 합니다.

깊이 알기 위한 방법이 섭심반조(攝心返照)입니다. 객진취상심인 마음은 돌아다닙니다. 마음은 컨트롤이 안 됩니다. 잠을 푹 자려고 침실을 잘 꾸며서 잠자리 만들어도, 잠자리가 아무리 좋아도 꿈자리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꿈자리가 생각대로 안 되는 것처럼 객진취상심, 이 마음은 내 맘대로 안 됩니다. 산란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객진취상심을 거둬들이는 것, 이것을 섭심반조라 합니다. 쫓아가면 마음공부가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생각은 티끌일 뿐입니다. 착한 생각, 악한 생각 다 거두는 게 섭심입니다. 쫓아가면 향진(向進)이며 티끌로 향하는 것입니다. 섭심을 해서 반조를 해야 합니다. 반조(返照)는 돌이켜본다는 것입니다. 보는 대로 쫓아가는 것이 향진이고 이놈이 뭔가 하고 생각을 다 거둬 비춰보는 것이 섭심반조입니다. 이것이 마음공부의 전부입니다. 근데 이걸 하라고 하면 따분해하고 갑갑해합니다. 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이걸 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그걸 못 믿습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보면 모든 공부가 다 됩니다.

믿고 꾸준히 하다보면 어느 순간에 현지를 현오하는 찰나가 옵니다. 한 번 온다고 거기에 매이면 안 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차츰 차츰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면 망상은 자꾸 줄고, 지혜는 자꾸 늘어나서 현지를 현오하는 단계가 높아집니다. 건물을 올라갈 때 올라갈수록 시야가 넓어집니다. 망상심이 줄어들수록 지혜가 점점 더 밝아집니다. 밝아지고 밝아져서 완전히 밝아지면 그게 구경각입니다. 의심이 전혀 없고 지혜만 완전한 것, 그것을 원각이라 합니다. 원각은 의심이 없고 지혜만 뚜렷할 때 자성원명이라 해서 둥글고 밝습니다. 망상은 객진일 뿐, 나그네일 뿐입니다. 아무리 나그네가 와도 아무리 많이 와도 주인이 바르면 아무상관 없습니다. 주인이 강하면 나그네가 많이 와도 좋습니다. 그리고 공부의 마지막 단계가 회수진로(回首進路)입니다. 머리를 돌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번뇌 망상이 가득한 사람한테로 깨달은 사람이 머리를 돌리는 것입니다. 중생제도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깨닫고 중생을 위해 설법을 했듯이 자성청정심을 깨달았으면 중생 속으로 들어가는 단계가 마음공부 최고의 단계입니다.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등록번호 : 138-50-00260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2회 특별수련)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 : ☎ 02-393-8027(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

완도 관등법회 및 제등행진



2017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성공을 기원합니다

▶일 시 : 2017년 4월 29일(토) 오후 6시

▶장 소 : 완도군청 앞 특설무대

▶주 최 : 완도군불교사암연합회

▶후 원 : 완도군

행사내용

- 식전공연 : 사물놀이(18시 ~ 18:30)
- 기 념 식 : 개회, 반야심경, 봉행사, 축사 등 (18:30 ~ 19:30)
- 제등행렬 : 점등 및 해조류박람회 행사장까지 (19:30 ~ 20:30)

중생은 어떻게 보살이 되는가



강소연 교수의
불화 속 스토리텔링

③ 선재동자 이야기 上

"어떻게 하면 중생으로 살면서, 동시에 부처님 세계에 머물며, 지치거나 싫은 마음이 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냈습니다.

하지만,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여러 세상을 유전하면서도 항상 보리심을 잊지 않으며, 어떻게 평등한 뜻을 얻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으며, 어떻게 청정한 마음을 깨뜨릴 수 없으며, 어떻게 큰 자비의 힘(大悲力)을 내어 항상 고달프지 않으며, 어떻게 다라니에 들어가 두루 청정을 얻는지 알지 못합니다.

–〈화엄경〉 '입법계품' 미가장자 편

'저는 보리심을 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진정한 보살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라는 것이 선재동자의 화두입니다. 〈화엄경〉의 '입법계품' 에는 우리에게 매우 친근한 선재동자의 구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53명의 선지식들을 만날 때 마다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는지 알지 못합니다"라는 질문을 집요하고도 끈질기게 반복합니다. 방대한 스케일의 입법계품 전편을 통틀어 계속되는 일관된 화두입니다. 이를 통해 '보살의 경지' 에 대한 선재동자의 갈망이 얼마나 진실되고 또 간절한 지 알 수 있습니다.

보살, 보리심을 낸 존재

그런데 선재동자가 품은 화두에서 이미 그는 삼업(三業) 속에서 헤매는 일반 중생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無上菩提心)' 을 발심한 수행자입니다. 궁극의 깨달음에 도달하고자 마음을 일으킨 존재를 보살이라고 합니다. 발보리심하였기에 세속적 욕망과 개인적 집착을 버린 청정하고도 깨끗한 마음 상태입니다.

선재동자는 이미 무아(無我) 체험을 하여 무상, 고, 무아라는 삼법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유위법이 마치 꿈 같고 환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음(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을 체득했습니다. 삼라만상의 본질은 공(空)이고 인생은 부질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수행의 시작은 삶이 공한 줄 알고 보리심을 내는 것입니다. 선재동자가 구도의 초반부에 만나게 되는 미가장자라는 선지식은, 선재동자가 무상보리심을 내고 왔다는 말에, 당장 높은 사자좌에서 내려와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합니다. '부처님이 되려는 씨앗' 인 법기(法器)가 이미 마련된 선재에게 깊은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화엄경〉 '입법계품' 의 내용은 발보리심한 선재동자가 바야흐로 '어떻게 부처님의 씨앗을 싹틔워 성장하고 꽃 피워 열매 맺는가' 에 대한 여정입니다.

'나' 를 벗어나 만난 진짜 세상

'입법계품' 의 입법계(入法界)는, '법계로 진입한다' 또는 '깨달음의 세계로 계합한다' 라는 뜻입니다. '중생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법계를 장엄할 수 있습니까' 라는 선재동자의 화두는 모든 불자의 화두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중생이 사는 속계를 '임시의 세계', '거짓 또는 환영에 불과한 세계' 라고 하고,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진실로 여여하게 존재하는 진리의 세계를 '법계' 라고 합니다. 수행이란 이 '법계' 에 눈 뜨는 과정이고, 깨달음의 세계에 눈뜨면 자연히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마땅한 길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깨달음의 세계를 못 보는 것일까요.

일상생활에서 우리 생각의 99%는 자기중심적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안되지?' 라는 식으로, 많은 생각 속에 계속적으로 '나' 가 따라붙습니다. 우리는 형태도 없고 색깔도 없는, 우리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의 절대적인 작용을 믿어야만 합니다. 모든 형태와 색깔이 나타나기 이전에 존재하는 그 무엇을 믿어야만 합니다. '공' 에 대한 믿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공이라고 해서 없다거나 공허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형태를 취하여 나타날 준비가 늘 되어 있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이것을 불성이라 하며, 이것이 부처 자체입니다. 우리 자신이 진리 또는 불성의 체현(體現)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스즈키 순류, 〈선심초심〉 中에서

〈선심초심〉을 쓴 스즈키 순류는 미국에서 선(禪)을 확립시킨 인물로,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정신적 스승 중 한 명으로 손꼽힙니다. 왜냐하면 애플사의 창시자인 스티브 잡스가 그를 스승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존재하기 이전의 세계, 또는 이면의 세계를 믿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바로 그 세계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눈 뜬 세계이고 그 세계의 모습을 펼쳐 보인 것인 〈화엄경〉입니다.

화엄경 입법계품 주인공 '선재'
위없는 보리심 일으킨 수행자
'보살 이뤄 중생제도' 화두 여정
"보살로서의 삶에 주목해야"

그 세계는 한없이 무궁무진한 상서로운 빛으로 가득한 세계였기에 그 세계를 광명편조(光明遍照), 비로자나(Virocana)라고 합니다. 우리가 '개체로서의 자아' 를 초월했을 때 만나게 되는 세계입니다. 개체로서의 생명인 내가 나온 모태가 되는 세계인 것입니다.

작은 생명체로서의 한계를 넘어 거대한 생명의 바탕으로 어떻게 계합하느냐가 수행의 관건이지만, 사실 우리는 그 바탕에서 한시도 떠난 적이 없고 또 떠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생물에게 숨을 불어넣는 원천이 되는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눈 뜬 세계가 우리에게는 왜 이리도 어려운가' 라고 화엄학자 다마키 고시로(玉城康四郎)는 질문합니다. 우리는 왜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가? 이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그 이유는 '자아개념이 가로막고 있어서' 라고 말합니다. '자아' 라는 존재의 마지막 둑이 무너져 버리면 노출되게 되는 광활한 바탕의 세계, 한량없는 빛의 세계가 〈화엄경〉의 세계입니다.

물방울은 바다를 볼 수 있나

〈화엄경〉은 가장 궁극의 바탕으로서 해인삼매를 말하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행(行)을 화엄삼매라고 말합니다. 궁극의 법신(法身)과 그 작용인 보신(報身)에 대한 방대한 비유적 설명으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의 세계로 가기위한 첫 번째 필수조건은 '보리심을 내는 것' 입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필수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함께 깨달아야 한다' 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재동자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보리심은 내었으나, 어떻게 보살이 되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느냐' 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실제로 인드라망처럼 연결되어 있기에 나 혼자만의 이익은 있을 수도 없거니와 무가치합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 또는 사회 전체의 이익이 아닌 한은 그 어떤 것도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의 세계 구조 자체가 '하나는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다(一卽多 多卽一)' 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찌되었든 '보살로서의 삶' 을 살 수 밖에 없고, 그것이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정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중앙승가대 교수 · 불교문화재학



미국 하버드대 포그박물관에 소장된 고려불화 수월관음도의 수월관음 도상 부분. 선재동자가, '보살도와 보살행' 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구도 순례를 하다가 28번째 만나게 되는 선지식이 관세음보살이다.



수월관음도 하단의 선재동자. 보타라카산 꼭대기에 계시다는 관세음보살의 성지를 목숨 걸고 찾아간 선재동자, 바야흐로 관세음보살을 친견하는 대목이다.

짤막 불교 상식

선재동자는 누구인가?

선재동자는 〈화엄경〉 '입법계품' 의 주인공이다. 산스크리트 이름은 '수디나(Sudhana)' 이다. 그가 태어났을 때, 창고에 보물이 가득 찼기에 '선재(善財)' 라고 이름 붙였다. 선재동자는 구도의 마음을 가지고 남방의 해안 지역을 순례하기에 '남순(南巡)동자' 라고도 불린다.

선재동자는 '속세의 묶인 중생의 몸으로 어떻게 보살이 될 수 있는가' 라는 화두를 가지고 선지식 53명을 만나 도(道)를 구한다.

선지식이란 덕이 높은 성자를 말하는데, 구도의 스승과 같은 역할을 한다. 선지식을 선우(善友) 또는 승우(勝友)라는 용어로 일컫기도 한다. 깨달음의 세계와 인연을 맺게 해주는 존재로, 중생으로 하여금 선업(善業)의 공덕을 쌓도록 인도한다. 〈화엄경〉에는 '중생을 인도하여 일체지(一切智)로 가게 하는 문이며, 수레이며, 배이며, 횃불이며, 길이며, 다리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

'동자' 로 주인공을 설정한 이유는, 도를 구하는 데 있어, 어린아이처럼 해맑고 순수한 '청정한 마음' 이 바탕이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선재동자는, 선지식들의 수승한 가르침을 받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용맹 정진하여 마침내 본인도 보살의 경지에 오르게 된다.

불기 2561년 BUDDHA'S BIRTHDAY
자비로운 마음 평화로운 세상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기원합니다

기장군민과 함께하는
연등문화축제
LOTUS LANTERN FESTIVAL

초청가수
위일청, 우순실, 차성연

식전공연
삼고무, 양태순 무용단

2017년 4월 23일(일) 오후 6시
기장중학교 운동장 및 강당

- 각종 문화체험 및 풍물패 한마당 : 오후 4시
- 성타스님 달마 퍼포먼스 : 오후 5시
- 식전공연 : 오후 5시 30분
- 봉축법요식 : 오후 6시
- 문화공연(초청가수) : 오후 6시 40분
- 경품추첨 : 오후 7시 30분 (TV, 자전거 외 가전제품)

주 최 : 기장군불교연합회 및 연합신도회
주 관 : 기장군불교연합회 봉축위원회
동참후원 : 기장군 내 사찰 및 신도일동
후 원 : (사)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사)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 BTN불교TV, BBS불교방송 및 교계언론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0-5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新발굴 '용성 만일결사 방함록' 살펴보니

김광식 교수, '용성 사상의 재인식' 세미나

백용성 스님〈사진〉은 1925년부터 1927년까지 '참선만일결사(이하 만일결사)'를 추진해 간화선풍 진작을 도모했다. 스님의 만일결사는 근대기 선지식이 만일이라는 오랜 기간 결사를 주창했다는 데 많은 시대적 의미를 갖지만, 학술적으로 조명되지 못했다. 또한, 결사 참여 수좌의 개요 등이 파악되지 않아 연구에 어려움도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발간된 〈백용성 대종사 총사〉는 용성 스님의 심층적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특히 7권인 '신발굴 자료' 편에는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이 제공한 만일결사 방함록이 수록돼 관련 연구의 폭을 넓혔다.

4월 7일 평택 명법사와 대각사상연구원이 개최한 '백용성 사상의 재인식' 학술세미나에서는 새로 발굴된 만일결사 방함록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한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는 당시 불교잡지 〈불교〉 14, 15호의 선전문을 통해 만일결사의 목적, 운영 등을 조명하고 결사의 근간에는 선과 계율을 겸행(兼行)하는 지향점이 있음을 분석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총서에 공개된 만일결사 방함록을 분석해 결사의 규모와 진행 과정을 추론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첫 시작인 1925년 동안거 방함록에는 조실 백용성, 수좌 설석우(동화사)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설석우는 금강산권

1925~27년 만일결사 방함록
총서 신발굴 자료 통해 조명
초기엔 전국 수좌 36명 참여
내 · 외부환경 영향 동력 감소해
"용성 만일결사, 禪律兼行 바탕"

불교에서 수행한 중견 수좌로 1955년 9월 조계종단 종정에 추대됐다. 총 동참 인원은 36명으로 애초 공고했던 30명보다 조금 초과해 안거에 들어갔다. 외호대중까지 전부 합치면 55명이 참여했다.

1926년 3월에는 첫 수행처인 망월사에서 천성산 내원암으로 이전한다. 이어진 1926년 하안거에는 57명에서 55명으로



줄긴 했지만, 별 차이는 없었다. 다만, 독경 소임이 새로 추가된 것은 특이할 만한 점이다.

하지만, 1926년 동안거에서는 총 인원은 25명으로 축소됐고, 수행자는 14명에 불과했다. 1927년 하안거도 상황은 비슷했다. 총 대중은 27명이었고, 수행자는 17명만이 동참했다.

그렇다면 만일결사는 왜 3년 이상을 진행되지 못했을까? 김 교수는 망월사에서 내원암으로 수행처가 6개월만에 변화, 엄중한 규율의 결사를 당시 수행자들이 수용하기 어려웠던 풍토 등을 요인으로 제기했다.

실제, 용성 스님이 경봉 스님에게 보낸 서한에 보면 결사를 시작한 이후 1만원(현재 5억원)의 거금을 소진했고, 현재 수좌들이 결사의 규칙과 자신의 지휘를 따르지 않음을 개탄하고 있다.

김 교수는 △결사회의 재정 악화 △수좌들의 나태한 수행 자세 △불교 개혁 · 불사 중첩 등 용성 스님이 결사에 주력하지 못했던 현실을 지적하며 "용성 스님의 중첩된 불사도 문제지만, 나태한 수좌들이 더 문제였다"면서 "결사회에 동참한 수행자가 의지 박약, 규칙 방치 등을 보여준 것은 결사라고 볼 수 없는 모순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용성 스님의 만일 결사는 치열한 선 결사 · 엄중한 규칙 · 선율겸행이라는 독특한 지향 등 의의가 상당하다"며 "이는 결사 추진자인 용성 스님의 불교 · 선 · 계율 사상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행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세미나에서는 도문 스님(조계종 원로의원, 죽림정사 조실)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백용성 대종사 총서〉 발간 경위 및 성격(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신성민 기자

전북 · 강원 寺址 모든 것 담다

문화재청 · 불교문화재硏 〈한국의 사지〉 보고서 발간

231개소 사지 현황 등 수록



문화재청과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가 발간한 〈한국의 사지-전북 · 강원〉

전라북도와 강원도 지역의 폐사지를 조사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과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은 "'2016년도 폐사지 기초조사사업'의 성과를 담은 〈한국의 사지- 전라북도 · 강원도〉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 강원도 지역은 2013년에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사지를 대상으로 1차 조사가 진행됐다. 지난해에는 국가지정문화재(사적)나 시도지정문화재(기념물)로 지정된 익산 미륵사지 · 원주 법천사지 등 29개소와 석탑 · 불상 등 문화재가 있는 사지 202개소 등 총 231개소를 조사했다.

이번에 발간된 〈한국의 사지-전라북도 · 강원도〉는 폐사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사역(寺域), 식생(植生)과 유구 · 유물 현황,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좌표 등 다양한 정보를 정리하여 수록했다.

원래 절터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된 문화재를 조사한 내용을 포함했고 일제강점기 자료 등 개별 사지에 대한 정보를 망라해 역사 · 학술적 가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2012년부터 제작한 '사지 분포현황 지도'를 별책으로 수록해 사지의 위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지에 대한 항공사진, 세부사진과 출토 문화재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각적 효과를 살린 것도 이번 보고서의 강점이다.

〈한국의 사지-전라북도 · 강원도〉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대학도서관 등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국민이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폐사지 기초조사사업은 2010년부터 전국에 소재한 폐사지를 대상으로 진행중이며, 조사 결과는 앞으로 사지와 소재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 · 관리 ·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올해는 대전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남도 지역의 350여개소의 사지를 조사한다.

신성민 기자

천년고찰 향천사 문화유산 조명한다

동북아불교미술硏 15일 학술대회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는 오는 4월 15일 예산 향천사 서선당에서 '예산 향천사의 문화유산'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천년고찰 향천사의 불상, 전적, 부도 등 주요 성보문화재들에 대한 전문적인 학술연구들이 대거 발표된다.

주요 발표로는 △최선일(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의 '향천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연구' △김규순(대한풍수연구원)의 '금오산 향천사의 풍수지리적 함의- 지명 지리학적 요소를 중심으로' △김종민(문화재청)의 '향천사 소장 전적 연구' △홍은미(옥천사 성보박물관)의 '조성된 향천사의 불교회화 연구' △김정원(불교문화재연구소)의 향천사 석조부도 연구 등이다.

한편, 향천사는 천불전, 극락전 등의 주요 전각을 비롯해 창건주 의각 스님 부도와 임진왜란 당시 승군을 조직해 금산전투에 참가했던 멸운 스님의 부도 1기가 전해진다.

신성민 기자

'경주 남산 용장계 삼층석탑' 보물 지정

문화재청, 4월 5일 밝혀
용장사와 관련 있는 석탑
'전탑형 석탑' 계보 보여줘

9세기경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주 남산 용장계 제3사지 삼층석탑'〈사진〉이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경주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935호로 지정했다"고 4월 5일 밝혔다.

이 탑은 전탑형 석탑으로 8개의 커다란 사각석재를 기단으로 구축하고 옥개석이 하나의 석재로 이뤄졌으며 별다른 장엄장식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 전형적인 통일신라 석탑과는 다른 면모를 보인다.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에 관한 문헌기록이 없어 용장계 지곡 삼층석탑이 언제 건립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나오지 않았으나 탑지 주변에서 '용(茸)' 자명을 비롯한 9점의 명문와가 출토돼 용장사(茸長寺)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용장사지(탑상곡 제1사지)에는 삼층석탑과 마애불좌상, 석불좌상이 전해오며, 그 일대에 여러 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지곡 제3사지에서 출토된 와당을 비롯한 여러 유물들로 미루어보아 이곳의 사찰이 통일신라 9세기 후반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석탑지 주변에서 출토된 분청사기 조각과 백자 조각 등은 고려 시대를 거쳐 조선 시대까지 사찰의 법등(法燈)이 이어져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국의 전탑은 경북 안동에 많지만, 전탑과 유사한 벽돌형식 석탑은 경주지역에 집중돼 지역별로 구분되는 양상이 있다.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은 경주 서악동 삼층석탑(보물 제65호)과 경주 남산동 동삼층석탑(보물 제124호) 등과 함께 남산 주변의 산록에서 만들어진 장소적인 특징도 있어 한국석탑에서 또 다른 '전탑형 석탑'의 계보를 이룬다.

문화재청은 "일부 파손되었으나 상륜부가 남아있고, 전체적인 외관이 양호한 편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며 "향후 보물로 지정된 '경주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이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명상 상담 노하우 공개한다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10주년 행사 '풍성'

22일 학술대회 및 포럼
일선 현장 상담사례 발표

학교와 기업, 복지관 등 일선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명상 상담의 노하우를 접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회장 인경)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오는 4월 22일 서울 종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학술대회와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그간 명상 상담 분야의 성과와 연구사를 정리하고 기업 · 학교 · 템플스테이 · 복지관 등에서 어떻게 명상 상담이 활용되는 지를 살피는 발표들이 이뤄진다.

오전에 진행되는 학술대회에서는 박태수 제주국제명상센터장이 '심리학과 심리상담분야서 바라보는 명상 상담'을, 이필원 동국대 교수가 '10년간 명상 상담의 연구사' 등을 주제 발표한다. 논평자로는 김동한 동국대 외래교수, 박재용 덕성여대 연구교수가 참여한다.

오후에 열리는 명상 상담 포럼에서는 곽노숙, 장금주, 허수미, 동진 스님 등이 △기업에서의 호흡명상 활용사례 △청소년 대상 명상 상담 △사회복지현장에서의 명상 상담 활용 사례 등 다양하면서 구체적인 명상 상담 사례를 대중에게 공개한다.

이와 함께 이날 행사에서는 불교국제박람회에서 호평받은 '108애니어그램' 검사와 인경 스님, 지오 스님, 이필원 교수의 저자 사인회도 열린다.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장 인경 스님은 "명상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스스로를 치유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면서 "지난 10년 간 학회의 연구와 상담 노하우를 통해 현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법당의 앰프, 스피커, 마이크 일부교체 및 최신형 대출력 앰프로 보상 교환설치 실시!!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진단, 설치하는 관계로 일주일에 사찰 3곳만 방문 가능하오니, 초파일을 앞두고 미리 상담, 출장 예약해 주십시오!)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 大出力 믹싱앰프



● 신상품 ● USB · MP3 PLAYER



보급가 : 145,000원(USB칩 포함)
앰프 스피커 포함 : 235,000원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 자체에서 소리조절 오래된 엠프와도 잘 맞습니다.



● CD기기 (5개연속사용)

【특별판매】 가격 : 350,000원

가격 : 18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제 96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 · 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4월 30일 오후 5시
◆ 강의일시 :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우리 풍토에 우리 목소리로

인도의 불교가 중국에 와서 불학(佛學)이 된다.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다양한 논서(論書)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독일의 마르크스 사상이 중국에 흘러들면서 마오이즘(Maoism)으로 중국화 되는 과정과 같은 이치이다. 사상과 철학, 요즘에 이르러 국제적 상거래마저 중국 특유의 흡수력으로 상표의 고유 명칭마저 중국에 오면 힘을 잃고 중국 표기의 발음부호로 불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인도의 불교가 중국에 와서 불학(佛學)이 된 이후 한국 불교계의 중국 불학(佛學)에 의존하는 다변성의 획일화에 대해서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전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헤아리기 벅찰 만큼 그 숫자가 많다. 〈지장경〉, 〈정토경〉, 〈시왕경〉, 〈보살경〉, 〈업보경〉, 〈천지팔양경〉 등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위경(僞經) 목록에 끼어있다. 한국 불교에 널리 알려진 부처님과 가섭존자와의 삼처전심(三處傳心)의 일화도 중국에서 만들어진 〈대범천왕문불결의경〉에 박혀있는 중국산 이야기일 뿐이다. 거기다가 부처님에서 중국의 혜능선사에 까지 이어져오는 33조사설도 중국의 토양에서 시대와 연대까지 무시하며 그럴듯하게 꾸며진 짜 맞춤식 억지 계보인 것이다.

또한 선어록집(禪語錄集)에 담겨진 선사들의 가르침과 일화에도 후대에 수집하고 집필한 사람에 따라 친소의 끌어당김과 버림 현상이 현저히 드러나는 오류를 범해왔던 것이다.

그 단적인 증거로 오조 법연 선사계는 사그라들 만큼 자취를 찾기 어렵고 육조 혜능계는 눈부실 만큼 찬란하게 그들의 가르침을 돋보이게 기록했던 것이다. 어록(語錄)의 집필자에 의해 조망권을 달리하는 빛과 어둠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선어록의 백미(白眉)로 꼽히는 〈벽암록〉에도 인도의 승려가 요술을 부리는 듯한, 전혀 선미(禪味)를 느낄 수 없는 선문(禪門)밖의 일화도 서너 개 끼어있어 벽암록의 티가 되고 있다.

한국불교에서는 언제부터인지, 왜 인지는 모를 일이나 선사(禪師)가 법상에 오른 후 토해내는 말씀들은 중국 선사들이 주고받은 색 바랜 언어로 춤을 추는 현실이다.

초식동물들이 흔히 되새김질을 즐긴다는데 한국의 선사들은 이제 제발이지 중국 선사들의 말투나 뒤 따르듯 흉내 내는 되새김질을 마감하길 바랄뿐이다. 인도의 불교가 중국에 와서 불학(佛學)이 되었듯이 중국의 불교도 한국에 와서 한국의 문화와 토양에 맞게 한국인의 색깔과 목소리로 그 공감대의 둘레를 넓혀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선원(禪院)에서도 간화선(看話禪) 제일주의에서 몇 걸음 더나가 한국 토양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화두(話頭) 정진이 이루어져야한다.

조사어록을 살펴보면 야사(野史)와 속어(俗語)등 당시에 유행하던 속담까지 끼어있음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중국인만이 느낄 수 있고 알아차리고 의심덩어리로 확대되는 1.700개의 공안(公案)은 한국인에게는 생소하게 굼뜬 울림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당나라, 송나라 때 만들어진 선사들의 어록이 천년의 세월 간격을 넘어 한국의 수행자들에게 금과옥조(金科玉條)가 될 수 있겠는가?

한글세대 대중에 한문 게송이라니 우리 언어로 된 설법이 그립다

간화선(看話禪)수행의 생명력은 간절심으로 모아지는 화두정진인데 글쎄 천년 전 당송시대에 느꼈던 의심덩어리가 오늘날까지 국적도 다른 한국인에게 큰 울림이 될 수 있을까?

언어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한세대로 규정짓는 30년 간격으로 조금씩 변화해 간다는 것이 언어학계의 정설(定說)이다.

임진왜란 때는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부를 때 '자네'라고 호칭했다. 가까운 예로 50년 전에는 부부의 호칭이 임자와 당신으로 40년 전엔 '여보'로 통일 되었고 30년 전에는 '자기'로 20년 전부터 서로의 이름을 편히 부르는 단계로 변화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신기하고 신비롭게도 불교계의 변화는 더디기만 한 것이다. 한글세대의 청중 앞에서 한문으로 된 게송을 즐겨 읊거나 불교계의 신문에 실린 고승들의 법어(法語) 내용도 중국의 선사들 어록의 되새김질에 그치는 경우가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색깔이 담긴 우리 목소리의 설법이 그리워지는 오늘이다.

부처를 똥 묻은 막대기라 하다니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오가칠종의 선종 가운데 운문종(雲門宗)은 운문 문언(雲門文偃:864~949) 선사가 종조(宗祖)이다. 운문종도 육조 문하에서 청원행사, 석두희천으로 법맥이 이어져 와 설봉의존 밑에서 탄생하였다. 운문 선사는 당나라 말 오대(五代)의 스님이다. 절강성(浙江省) 가흥(嘉興) 출신으로 공왕사(空王寺)에 출가하여 스님이 되었다. 비구계를 받고 처음에는 여러 경론을 섭렵하고 〈사분율(四分律)〉을 깊이 연구하기도 했다.

선(禪)을 시작한 것은 목주 도종(睦州道)의 문하에서 였으나 나중에 설봉의존(雪峰義存)을 친견하고 3년 동안 공부하고 인가를 받아 그의 법을 이어 종지를 전수 받았다. 그 후 제방을 편력하다가 소주(韶州) 운문산(雲門山) 광태선원(光泰禪院)에 주석하게 되었는데, 이때에 그의 문하가 크게 융성하여 산 이름을 따 운문종이라 부르게 되었다.

운문종에 대해 평한 말은 여러 문헌에 나타나 있다. 〈인천안목〉에는 "운문종의 종지는 온갖 망상의 흐름을 끊고, 헤아리는 어떤 분별도 용납하지 않으며, 범부도 성인도 갈 길이 없고, 색각에 의한 이해로는 통할 수 없다."(雲門宗旨 絶斷衆流 不容擬議 凡聖無路 情解不通)고 하였다.

운문 선사가 사람들을 제접할 때마다 남긴 말이 공안이 된 것이 여러 개가 있다. 예를 들면 '간시궐' '호떡(胡餠)' '화약란(花藥欄)' 등이다. 한 학인이 부처가 무엇이냐고 묻자 운문 선사가 '마른 똥 막대기(乾屎橛)'라고 답했다. 또 한 번은 "어떤 것이 부처와 조사를 초월한 말입니까?" 하는 질문을 받고는 '호떡'이라 대답했다. "청정한 법신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화약란(花藥欄)이라 답했다. 화약란은 정원에 목책으로 둘러쳐진 활짝 핀 함박꽃 울타리를 말한다.

부처가 왜 마른 똥 막대기인가? '호떡'과 '화약란'은 또 무엇인가? 이런 식(式)의 말을 격외구(格外句) 또는 격외현담(格外玄談)이라고 한다. 격식 밖의 말 곧 상식을 초월한 어구로 선에서는 이 격외구를 알아차리는 것을 활구(活句) 소식을 얻는다 한다. 활구(活句)란 사구(死句)와 상대적인 말로 선종에서 써 온 용어인데 의미(義味)가 있고 의로(意路)가 통하는 말을 사구라 하는 반면 의로가 통하지 않고 의미를 알 수 없는 것을 활구라 한다. 일반적인 상식, 보통 사고의 틀을 벗어나 어디에도 구애 없이 자유롭게 본심을 드러내는 현묘한 말이라고 한다.

조사선(祖師禪)을 원래 격외선(格外禪)이라도 불렀다. 또 격외현기(格外玄機)라 하여 견성(見性)한 사람이 부리는 사유와 분별을 초월한 현묘한 기용(機用)으로 조사선에서 견성한 자를 감변(勘辨)하는 표준으로 사용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격외의 기틀로 격외의 작용을 시행한다"는 말이 있으며 "현묘함을 말하고 도를 부르짖는 것이 모두 격외의 기틀이 아님이 없으니, 새가 나는 길처럼 종적이 없어야 도인이 가는 길이라고 할 것이다"고 했다.

이와 같이 격외선지를 거량하면서 종풍을 드날렸던 운문종은 북송(北宋) 시대를 정점으로 크게 흥성했다. 남송시대에 와서는 금(金), 요(遼), 원(元) 등 유목민족의 침입으로 북방지역에 있던 운문종 사찰들이 사원을 유지할 경제적 기반이 소실되면서 위축되기 시작하였고 원대에 와서 쇠퇴하고 말았다.

〈경덕전등록〉에 기재된 운문 선사의 사법(嗣法) 제자는 25인으로 나오는데 그 중 동산수초(洞山守初), 향림징원(香林澄元), 뇌악실성(雷岳實性), 덕산연밀(德山緣密), 쌍천사관(雙泉師寬), 파릉호감(巴陵顥鑒) 등이 대표적인 제자다. 운문 선사의 제자 향림징원의 법맥을 계승한 불국유백(佛國惟白)은 운문종과 임제종의 공안을 위주로 등재한 〈건중정국속등록(建中靖國續燈錄)〉을 1101년에 편찬하였고, 남송 때 뇌암정수(雷庵正受)는 1204년에 〈가태보등록(嘉泰普燈錄)〉을 편찬하였다. 운문 선사의 어록은 〈운문광록(雲門廣錄)〉이라 줄여 말하는데 운문 선사가 열반에 든 뒤 9년 후인 후주(後周) 때인 958년에 수견(守堅)이 엮었다. 그 뒤 1053년에 천의의회(天衣義懷)에 의해 수정되었고, 다시 1076년에 소해(蘇)의 간정(刊正)을 거쳐 1143~1145년에 원각종연(圓覺宗演)이 교감하여 이 교감본이 1267년 〈고존숙어록(古尊宿語錄)〉에 추가되었다. 이후 다시 명나라 때 판각된 〈고존숙어록〉을 거쳐 명대(明代)에 곽응지(郭凝之)가 편찬한 〈오가어록(五家語錄)〉의 저본이 되었다.

相이 있으면 중생, 없으면 부처



진원 스님의 깨달음 찾는 〈금강경〉
⑮ 대승정종분 제 3

佛告. 須菩提 諸菩薩摩訶薩 應如是降伏其心.所有一切衆生之類 若卵生 若
(불고 수보리 제보살마아살 응여시항복기심. 소유일체중생지류 약란생 약)
胎生 若濕生 若化生 若有色 若無色 若有想 若無想 若非有想 非無想 我皆令
(태생 약습생 약화생 약유색 약무색 약유상 약무상 약비유상 비무상 아개영)
入無餘涅槃 而滅度之 如是滅度無量無數無邊衆生 實無衆生得滅度者 何以故
(입무여열반 이멸도지 여시멸도무량무수무변중생 실무중생득멸도자 하이고)
須菩提 若菩薩 有我相 人相 衆生相 壽者相 卽非菩薩
(수보리 약보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보살마하살은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시킬 것이니라. 무릇 일체 중생의 종류인 '알로 생기는 것' '태로 생기는 것' '습기로 생기는 것' '화하여 생기는 것' '형상 있는 것' '형상이 없는 것' '생각 있는 것' '생각 없는 것' '생각 있는 것도 생각 없는 것도 아닌 것'들을 내가 모두 다 열반에 들게 하여 제도하리라. 하여 이와 같이 한량없이 많은 중생들을 다 제도하지만 실로 한 중생도 제도된 바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만일 보살이 나라는 생각(我相), 남이라는 생각(人相), 중생이라는 생각(衆生相), 오래 산다는 생각(壽者相)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보살이 마음이고 마음이 보살이며, 마하살은 이 뜻을 강조한 것입니다. 보살마하살이 이와 같이 일체가 한 마음인줄 모르고, 한 생각 좋아하고 싫어하는 분별망념을 일으키면 그 업보로 욕계, 색계, 무색계의 삼계에 중생으로 태어 납니다.

중생은 나다 너다, 있다 없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등의 분별망념을 일으키기 때문에 중생입니다. 이런 분별망념을 여의면 중생은 제도된 것이지만, 그러나 분별망념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망념은 스스로 있지 못하고 깨달음으로 인하여 있으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망념은 깨달음으로 인하여 없으므로 없는 것도 아니고 서로 융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망념이 깨달음이고 깨달음이 망념이며, 중생이 부처이고 부처가 중생이며, 중생과 부처가 마음이고 마음이 중생과 부처이기 때문에, 이룰 부처도 없고 제도할 중생도 본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똑똑하고 잘났다며 아만(我慢)을 부리는 아상(我相), 나와 너는 다르고, 너보다 훌륭하다며 거만하여 사람을 경시하는 인상(人相), 좋은 일은 내 탓이고 나쁜 일은 너의 탓이며, 고통은 싫어하고 즐거움은 좋아하는 중생상(衆生相), 복을 많이 받고 오래 살기를 바라는 수자상(壽者相)이 있으면 이는 곧 보살이 아닙니다.

금강경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상(相)이란, 생각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눈, 귀, 코, 혀, 몸, 뜻의 6진과 모양, 소리, 향기, 맛, 촉감, 법의 6진과 안식계, 이식계, 비식계, 설식계, 신식계, 의식계의 6식을 포함하여 있음과 없음, 옳고 그름, 생과 사, 좋아하고 싫어하는 등의 대립의 이분법으로 표현되는 분별의 상대법을 통 털어서 상(相)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상을 어떻게 하면 바로 볼 것인가! 하고 말씀하신 것이 팔만사천법문입니다. 즉 상이 있으면 중생이고 상을 여의면 부처인데, 이 상은 다름이 아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깨달음
주도인 답한다
주도인 지음

내 용
제1편 학문세계의 깨달음
제2편 정신세계의 깨달음

부 록
주도인 〔주역·불교〕 8강좌
제1강좌 깨달음 ↔ 영성론강좌
자기분야 달인이 되는 길
제2강좌 선·명상강좌
제3강좌 심법(心法)강좌
제4강좌 관상학강좌
제5강좌 주역점술학강좌
제6강좌 사주명리학강좌
제7강좌 불교 금강경강좌
제8강좌 한약 사상체질론
동의보감강좌

현대출판사 발행. 443쪽.
정가 22,000원
문의처 010-2490-2346.

주 도 인

나는, 이 시대의 도인이자 현자로 나섰습니다.
1957년 인문고교를 수석졸업하고 약학대학 2학년 때부터 주역연구를 시작, 한약국(韓藥局)을 36년 경영하면서 **주역운명론, 불교금강경, 사주명리학, 한약**(사상체질론 • 동의보감) 등 『네 분야』를 통달하고 주도인 깨달음체계 **"세 가지 방법론"**을 완성한 후 **60년**만에 『깨달음. 주도인 답한다』를 세상에 내어 놓았습니다. 이 시대의 도인(道人)이자 현자(賢者)임을 자부합니다.

주도인 인생상담실
인생문제를 상담하며 단, 사전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주도인 (주역·불교) 학당
주도인 (주역 • 불교) 8강좌는 각기 독립된 강좌이기 때문에 1(일)강좌씩 수강신청을 받음. "최고급 강좌"로서 1인 또는 3인 이내에서 강론 함.『깨달음. 주도인 답한다』에 그 대강(大綱)이 나와 있음.

서울 노원구 상계1동, 은빛1단지 아파트 102동 311호.
010-2490-2346. 주도인 〔구명(舊名) : 주경호〕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부처님 진신사리에 茶공양 올립니다”

금강사, 제13회 부산차밭골문화제 개최

차밭골서 부산 차문화 시작 역설
2천여 명 참석… 찻자리 등 풍성
中·日 전통차도 선봬 ‘국제교류’
“차는 마음과 몸의 건강 기반”

하얀 벚꽃 나무 아래 차향이 피어올랐다. 청정함을 상징하듯 순백의 한복을 차려입은 108명의 차인들은 부처님 진신사리 앞에서 차를 올렸다. 부산 금강산 자락 차밭골에는 백화만발다례제 작법에 맞춘 진언과 공양게가 울려 퍼졌다.

부산 금강사(회주 혜성)는 4월 1~2일 제13회 부산차밭골문화제를 봉행했다. 부산차밭골문화제는 차 유적지를 금강사에서 발견한 후 회주 혜성 스님과 (사)한국차인연합회 최순애 부회장이 부산지역이 차문화 발상지임을 알리기 위해 시작했다. 문화제는 매년 전국 800여 단체가 활동하는 (사)한국차인연합회 소속 차인 2,000여명이 참여하며 중국과 일본의 전통 찻자리도 열려 국제 문화교류의 장으로 확대됐다.

특히 이날 금강사는 지난해 8월 스리랑카에서 기증 받은 진신사리를 이운했다. 백화만발공양다례제는 매년 진행됐으나 부처님 진신사리 앞에선 처음으로 열려 의미가 깊다.

행사는 삼귀의로 시작돼 △내빈소개 △대회사 △봉행사 △축사 △축시 낭송 △차수(茶水)공양 △백화만발다례제 순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야외에서 두리차회, 홍차, 녹차, 흑차 등 접할 수 있는 다채로운 찻자리가 개최돼 풍성함을 더했다. 춘양화전놀이에서는 봄을 맞아 활짝 핀 꽃으로 화전을 만들어 일반인에게 대접해 눈길을 끌었다.

또 회주 혜성 스님의 선서화전이 특별전시로 개최됐다. 혜성 스님은 뉴욕 맨하탄 한인회, 일본 노무라박물관 선서화 초대전, KBS 방송국 선서화전를 비롯해 여러 차례 선서화전을 열며 불교문화를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차인 108명이 4월 1~2일 열린 제13회 부산차밭골문화제서 백화만발공양으로 부처님 진신사리 앞에서 차 공양을 올리고 있다.

이 자리에는 회주 혜성 스님,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기장불교연합회 회장 정오 스님, 효심사 주지 효문 스님, 향기로운 문화동행 이사장 보혜 스님이 참여해 축하했다. 아울러 박권흠 (사)한국차인연합회 회장, 백종헌 부산시의회 의장, 전광우 동래구청장 등 내빈들이 참석했다.

혜성 스님은 차 마시기 운동을 통해 건강한 국민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해마다 많은 차인들이 참여해주고 있는데 올해는 내용이 더욱 알차다”며 “차는 다반사로 항상 생활 가운데 가까이 하고 마시도록 해야 한다. 마음의 건강과 생활 문화 그리고 정신 건강 까지 큰 도움을 준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권흠 (사)한국차인연합회장은 “2016년부터 ‘전 국민 차 마시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차밭골 차문화제가 기폭제가 되어 부산 지방에 차 마시는 문화가 다반사로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108명의 차인들이 차를 올리는 백화만발공양다례는 차문화를 표현하는 행다례의 극치”라며 자랑스러워했다.

차밭골문화제는 차나무가 점점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워 시작됐다. 과거 부산 북구 만덕동에서 온천장 그리고 남산동 등 금정산 아래에 차나무가 가득했지만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점점 차나무가 줄어들었다. 금강사는 100여명의 차인들로 참여한 선다회를 구성해 차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금강사는 25년 전부터 지역에 2만4000㎡ 크기의 차 밭을 조성하고 13년 전부터 문화제를 열어 차의 성지로 기념하고 있다.

하성미 기자

20돌 미타선원, 수행·포교 전념 ‘다짐’

4월 3일 창립 20주년 기념법회



미타선원(주지 종호)는 4월 3일 법당에서 창립 20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하고 수행과 포교에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사진〉

종호 스님은 “20살 성년이 된 미타선원은 안으로는 기존 수행전통을 이어 기도정진프로그램 활성화 및 상설 시민선방을 운영할 것이다. 밖으로는 명상심리상담, 마음치유, 행복한 치유명상 강좌 등 현대인의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마음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신도 중심의 신도회 구축이 당면 과제”라고도 밝혔다.

한편 미타선원은 동삼종합사회복지관 2,000만원, 부산광역시 중구청 이웃돕기 300만원, 영도구노인복지관 240만원 등 연간 총 3600여만 원을 이웃 사랑 후원금으로 기부했으며 장학금 및 청소년 포교 후원금 총 1000만원을 전달했다.

하성미 기자

“정성 담은 도시락, 사랑을 키워요”

용호종합사회복지관 도시락 희망나눔



위드아시아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은 3월 30일 복지관 내에서 ‘사랑이 듬뿍 담긴 도시락 나누기’라는 주제로 희망 도시락 나눔과 후원금을 저소득 가정 아동 15명에게 전달했다. 우리은행 부산중부영업본부와 함께 진행한 이번 나눔에는 은행 임직원 40여 명이 함께 동참해 도시락을 만들며 아동들과 시간을 보내고 후원금 400백만 원도 전달했다.〈사진〉

이춘성 관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동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우리은행 부산중부영업본부 직원분들이 바쁜 가운데 시간을 내어 아동들과 함께한 봉사활동은 아동들에게 오랜 시간 행복한 추억으로 간직될 것이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부산중부영업본부는 앞으로 분기마다 후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기원하며 프로그램도 정기적 열어 진행할 계획이다.

하성미 기자

구평종합사회복지관, ‘창업파워스쿨’ 강좌

4월 17일~19일, 전문 교육통한 창업교육

사회복지법인 공덕향 구평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혜정) 부설 사하여성창업지원센터가 성공 창업을 기원하며 ‘창업 파워스쿨’ 교육 강좌를 마련한다.

교육은 4월 17~19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되며, 대상은 창업아이템이 있는 예비 창업자는 모두 가능하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장소는 부산사하구창업비즈니스센터 교육장에서 열린다.

강좌는 ‘프랜차이즈창업의 이해’, ‘성공적인 재무전략’, 그리고 ‘점포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로 열린다. 특히 사하여성창업지원센터에서 교육 이수 후 창업해 성공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박성인 백설기공주 대표와 황지영 온담 대표가 참여해 직접 성공 사례를 발표한다. (051)263-3045

하성미 기자

통도사서 4000여 불자 持戒 다짐

〈지계〉

4월 1~3일 수계산림대법회 전계대화상 율주 혜남 스님


4월 1~3일 통도사에서 열린 보살계 수계산림대법회서 불자 4000여명이 보살계를 수지 후 금강계단 앞에서 연비를 받았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영배)가 보살계 수계산림대법회를 회향했다.

통도사는 4월 1일~3일 경내에서 보살계 수계산림대법회를 개최하고 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불제자로 지계의 삶을 살아갈 것을 독려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에서 온 4000여 불자들이 참여했다.

통도사 보살계수계 산림 대법회에는 전계대화상에 율주 혜남 스님, 갈마아사리 중선 스님, 교수아사리 지안 스님 등 3사 7증사 스님이 법상에 올라 계를 설했다.

혜남 스님은 “계를 지키는 것은 참된 지혜의 근본”이라며 “계를 수지하는 것은 어둠 속의 빛이며 감옥에서 벗어남과 같고 탕아가 집으로 돌아옴과 같다. 지계는 깊은 선정의 근본”이라고 계를 지키고 살아갈 것을 독려했다.

통도사는 40회 수계자에게 성만패와 금색가사를 전달하고, 이어 30·20·25·10회 등 각 수계자들에게 기념 메달 및 금색가사 그리고 성만패를 전달했다. 아울러 강원 및 율원에서 공부하는 학인 스님 52명에게 장학금 총 4,870만원을 전달했다.

방장 대행 성파 스님은 “신라시대 자장 율사가 창건한 통도사에는 금강계단이 있다. 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창건한 후 쉬지 않고 지금까지 계를 설하고 있다”며 “지계를 통해 심성을 바꾸고 중생심에서 보살심으로 돌아간 마음이 온누리에 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지 영배 스님은 “해마다 보살계 수계 살림에 동참하는 사람이 줄어든다. 다음해에는 가족들 모두 모시고 와서 부처님의 청정한 계를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하성미 기자

원효종 요산정사,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

태국 국립마하출라롱컨대서 한국분교로 이운



사단법인 대한선불교 원효종 울산 요산정사(주지 청암)는 4월 3일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 및 마정수기 대법회를 경내 대웅전에서 봉행했다.〈사진〉

부처님 진신사리 요산정사 이운 법회는 태국 국립마하출라롱컨 불교대학교에 봉안되었던 몇과를 한국분교에 이운, 요산정사에 봉안하게 됐다.

요산정사 주지 청암 스님은 “불법이 흥포된 지 2500여년에 이르러 울산 요산정사에 불과 진신사리를 이운했다. 환희에 찬 가슴으로 맞이하는 이 순간, 온갖 봄꽃들이 화창한 것이 마치 영산회상에서 부처님 설법 시 꽃비를 내리는 듯하다”고 불연에 감사했다.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은 국립마하출라롱컨대학교 한국분교 총장 도성 스님이 요산정사 주지 청암 스님께 전달, 불단에 안치됐다.

이후 마정수기 법회에서 신도 일동은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증득하신 부처님을 찬탄하며, 중생을 위해 보여주신 구도와 성불의 크나큰 뜻을 다시 새긴다. 지혜의 불, 자비의 불을 당겨주시길, 부처님의 위신력과 자비의 원력에 힘입어 감응해주시길 바란다”고 발원 합장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전국 어디든 지극하고 여법하게 깊은 신심으로 다하겠습니다

바라밀 예술단



바라밀예술단은 큰스님들의 행사를 더욱 장엄하고 여법하게 봉행하는데 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바라밀예술단 단장 지우 스님 -

회심곡, 영산대재, 산사음악회, 예수재, 천도재, 위령재 및 봉안위패, 점안식 등 각종 불교행사
바라작법무, 나비작법무, 천상무춤, 북춤, 살풀이춤, 극락무춤, 지전무 등 모든 의식









행사문의 010-3597-1515 유튜브에서 ‘지우스님’을 검색하세요.

농협 010-3597-1515-09 (예금주 : 반야정사)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제등행렬 용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10년 만에 불사를 회향한 쌍봉사 대웅전 낙성법회서 스님들이 불교전통의식을 집전하는 모습.

대웅전 끝으로 10년 불사 회향

진안 쌍봉사, 현대식 대웅전 낙성법회 봉행

자비나눔 실천도량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가 대웅전을 낙성했다.

쌍봉사는 4월 1일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도광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지역 불자, 쌍봉사 섬김봉사단, 진안군 자원봉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웅전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법회는 스님들의 불교전통의식으로 2시간에 걸쳐 신중작법, 상단권공 등이 진행됐다.

도광 스님은 법문을 통해 "급박하게 변해가는 현대사회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공덕은 한없이 무량하다"며 "새롭게 낙성된 대웅전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해 반드시 성불하는 불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주지 보경 스님은 인사말서 "오늘 불사를 회향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불자님들의 지극한 신심과 원력 덕분"이라며 참석 대중에게 삼배로 감사인사를 전했다.

법회 후에는 대웅전 낙성을 축하하는 문화마당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대중공양, 신도노래자랑 등 잔치 한마당이 펼쳐졌다.

이날 낙성한 대웅전은 법당과 종무소, 요사를 결합해 실용성을 강조한 현대식 건물로 약 30평도 규모다. 쌍봉사는 향후 어르신 쉼터 조성 등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지난 2004년 보경 스님이 주지로 부임한 후 10년에 걸친 불사를 회향한 쌍봉사는 지역민들과 더불어 발전해야 한다는 원력에 따라 김장김치 나눔, 자비의 쌀 나눔, 연탄 나눔 등 자비나눔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도량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해안 선사 가르침 수행지표로"

부안 내소사 해안 대종사 43주기 추모재 봉행

근세 호남 선맥의 큰 기둥인 해안대종사 43주기 추모재와 역대조사 다례재가 내소사에서 봉행됐다.

부안 내소사(주지 진성)는 4월 3일 해안대종사 열반 43주기를 맞아 내소사 봉래선원장 철산 스님, 선운사 원로 재곤 스님, 법현 스님, 범여 스님,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문도스님들과 전등회 재가불자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다례재와 추모재를 봉행했다.


내소사 대웅보전서 봉행된 해안대종사 43주기 추모재서 사중스님들이 해안 스님의 업적을 기리는 모습.

해안문도를 대표해 철산 스님은 "스님께서 열반하신지 어느덧 43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강직했던 스님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며 "후학들은 스님의 큰 뜻을 잊지 않고 수승한 가르침을 수행의 지표로 삼아 열심히 정진에 매진하자"고 말했다.

주지 진성 스님은 "해마다 잊지 않고 다례재에 참석해주신 사부대중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늘 해안 스님의 수행향기가 이어지는 도량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안 스님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 1914년 부안 내소사에서 만허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뒤 1917년 장성 백양사에서 만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1932년 계명학원을 설립해 문맹퇴치운동을 전개하고 1936년 금산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1969년 불교 전등회 대종사로 추대됐다. 1974년 세수 74세, 법랍 57세로 입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주불교 소통창구, 연합회 공식 출범

4월 5일 창립총회에 이어 기념법회 봉행

전주지역 불교발전을 위한 사부대중 공동체인 전주불교연합회가 출범했다. 전주 각 사암과 신도포교단체를 포함한 사부대중 협의체를 표방하는 전주불교연합회는 4월 5일 전주시 금암동 생명평화센터 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정식 출범했다.

창립총회에는 금선암 덕산 스님, 보문사 혜원 스님, 정혜사 법성 스님, 흥국사 지정종사 등 사찰대표들과 이창구 전북불교대학장, 오종근 전북불교네트워크 대표, 전주 우리는선우 김진철 회장, 안준아 전주룸비니 산악회장, 김성규 대불청 전북지구회장, 라은희 전북교사불자회장, 윤선주 전주불교청년회장, 이정상 포교사단 전북지단장, 박성웅 참좋은우리절 사무국장, 유지원 자연음식문화원 이사장 등이 참석해 정관을 심의하고 임원을 선출했다.

공동대표에는 덕산 스님을 비롯한 사찰 주지스님과 재가단체장 등 총 12명이 선임됐으며, 이사로는 황방사 지호 스님 등 10명이 선임됐다. 운영위원장은 유지원 자연음식문화원 이사장이 맡았다.

이날 전주불교연합회는 "그동안 지역 불교계 차원의 소통과 화합 창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유독 전주지역만 불교관련 소통창구가 없었다. 이 때문에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 테이블조차 구성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져 왔다"면서 "전주불교연합회는 지역 사부대중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문호를 열고, 부처님 법에 가장 적합한 대중화합의 장으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출범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불교연합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불교발전과 종교로서 불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한편,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12개 사찰·21개 단체 모여
지역불교 현안 해결법 모색
공동대표제로 공의제 실시
소수의견도 정책에 반영키로

금산사 말사 등은 불참의사
연합회 무게감 약화될 수도

전주지역 소재 12개 사찰과 21개 신행·포교·사회단체가 참여한 전주불교연합회는 지역불교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불자들의 신심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홍보사업 등을 실시한다. 또 지역불교 역사를 재조명하고 지역사회에 불교자산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연구조사, 지역불교 소통과 화합을 위한 각종 사업, 지역주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봉축행사 기획, 지역불자들 연합법회 등을 통해 불자들의 신심과 불교위상 제고를 위해 활동키로 했다.



4월 5일 열린 전주불교연합회 창립총회서 각 사찰 주지스님과 단체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불교 발전을 위한 현안 해결에 진력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도 지역 내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비 보살행을 실천하며, 봉사와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 내 종교편향, 훼불사건 등에 대한 긴밀한 대처에도 나선다. 특히 불법(佛法)을 빙자한 비불교적 행태에 지역불교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주불교연합회는 사부대중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해 의사결정을 도출해내는 공동대표제를 채택함에 따라 협의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는 대중공의제를 실시한다. 열린 협의기구를 통해 소수의 의견도 정책에 반영하고, 투명하게 논의하고 대중이 동의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전주불교연합회는 이날 창립총회에 이어 4월 7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 정동영·김광수 국회의원, 전주지역 스님과 신행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새로운 지역 불교공동체의 출범을 공표했다.

한편 전주불교연합회가 새롭게 출범함으로써 향후 불교가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갈등과 경쟁의 사회를 중도와 화쟁으로 풀어가는 지혜를 발현하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연합회에 조계종 금산사 말사와 기타 종단 사찰들이 불참의사를 밝혀 무게감은 다소 떨어질 전망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빛고을서 열리는 '빛 고운 관등회'

광주불교연합회, 2017 봉축일정 확정

14일 아시아전당서 점등식
등전시·연등행렬·음악회도

광주지역 봉축행사가 4월 14일 점등식을 시작으로 화려하게 열린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는 4월 8일 '2017빛고을관등회' 행사 설명회를 갖고 한 달간의 봉축일정을 밝혔다. 먼저 점등식은 아시아문화전당 앞 광장서 진행되며, 높이 18m의 화엄사4사자3층석탑 모형 한지등(燈)이 세워진다.

본 행사는 4월 29일 오후 5시 어울림마당을 시작으로 관등법회, 연등행렬, 봉축음악회가 잇달아 열린다. 약 5000여 명의 불교신자들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는 각 사찰별 연희단과 어린이·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어울림마당, 봉축행사 법요식인 관등법회, 아시아문화전당부터 광주천, 금남로, 충장로로 이어지는 1만개의 행렬등이 장관을 이루는 연등행렬 등이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특히 연등행렬에는 각 사찰과 단체에서 만든 전통등과 20여 개의 대형 장엄등이 선보일 예정이다.

광주천에서 진행되는 전통등전시회도 눈길을 끈다. 전통등 작가를 비롯해 광주지역 신도들이 만든 수십여 개 작품을 전시하는 등전시회는 '천년의 빛, 빛고을 밝히다'라는 주제로 4월 14일~5월 8일 열린다. 전시회에는 그동안 버려졌던 광주천이 아름다운 생태,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밝혔다.

연합회장 연광 스님은 "많은 신도들이 행복하고, 자랑스러워할 봉축행사를 만들기 위해 대중이 노력하고 있다"며 "빛고을관등회가 광주시민과 불자들에게 행복한 문화축제로 거듭나길 기원한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사업도 주목을 받고 있다. 봉축행사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두 바퀴로 만나는 부처님 세상(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소원원생과 함께하는 부처님오신날(포교사단광주전남지역단) △봉축 그리고 인권 이야기(광주전남인드라망생명공동체) △외국인들과 함께하는 사찰음식 맛있는 day(빛고을자연사찰음식체험관) 등 11개 단체에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이외에도 본 행사가 열리는 아시아문화전당 인근에는 오전 10시부터 단청, 연꽃등 만들기를 비롯해 광주지역 다양한 불교단체 부스가 운영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불총림 백양사 '고불매' 개화 잔치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토진)는 지난 4월 2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천연기념물 제486호로 지정된 고불매의 개화에 맞춰 '매화에 취하여 봄날을 마시다'라는 주제로 법회와 축원, 헌다, 식목행사, 사찰음식, 판소리 공연 등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주지 토진 스님은 "고불매는 고불총림의 기품을 똑 닮았다"며 "향후 백양사에 1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산림을 살리고, 수행환경을 여법하게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360년 수령의 고불매는 매년 3월말부터 4월초까지 진분홍빛 꽃을 피우는 홍매다. 1947년 만암 스님이 부처님의 원래 가르침을 기리자는 뜻으로 백양사 고불총림을 결성하면서 이 나무가 고불의 기품을 닮았다 하여 '고불매'라 부르게 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오천만원의 평생인연

회향선원에서 평상 함께할 가족을 모십니다

회향복지원 1인 1실 평생 거주할 수 있고 원룸식으로 분양합니다.
장례는 무료로 해드립니다.

1인 1실 계약금 2천만원 공사 시작과 동시에, 올 9월 예정 중도금 2천만원은 공사중에 내시면 되고, 입주시 1천만원 잔금을 내시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나이는 70세 이상분만 가능하지만 분양을 미리해 놓으시고 나중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모집인원은 남·녀 평생 모십니다.

• 1인 1실 : 계약금 2천만원, 중도금 2천만원 입주시 1천만원
• 부부실 : 계약금 3천만원, 중도금 4천만원 입주시 3천만원
【 1층 - 부부 4쌍 8분 / • 2층 - 거사님 4분 】

병자나 암 환자도 들어오시면 사찰음식으로 식단을 만들어 드리고 명상과 운동, 기도로 병 쾌차발원을 도와 드립니다.
혜명스님과 평생 가족이 되실 분은 꼭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지은 모든 공덕을 다른이에게 바치는 회향입니다.
마지막 가시는 분들에게 좋은 인연이 되기를 발원합니다.

발 원 문

우리는 비로자나 법신이나 변하는 모습따라 뒤바뀌는 여김으로 갈팡질팡 생사고해에서 뜨잠기는 중생이니 좋은 인연 회향선원 그늘 밑에 동업 보살 되어 지고, 괴로운 첫울음은 인생살이 시작이요 외로운 끝 놀라움은 이세상 등짐이니 들 뜬 마음 가라앉혀 보리도를 밝혀내고 부처님땅 회향선원 함께 사는 동업보살 되고지고 좋은 인연 만나기를 발원합니다.

회향선원 주지 혜명 합장

• 문의 : 회향선원 010-3771-7575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욕심을 부리는 자는 돈이 비처럼 쏟아져 들어와도 만족할 줄 모른다.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비록 조금이라도 욕심을 맛보는 것을 괴로움으로 안다.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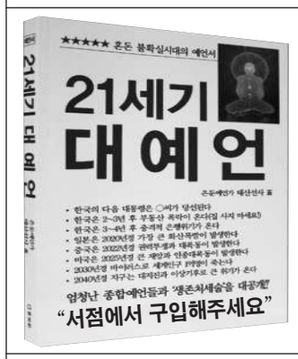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 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허리선생 혜경」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정신질환 상담
우울증, 정신분열, 정신이상,
빙의, 환청, 환시, 간질발작,
정신병원약을 복용하신 분
(상담 및 개인지도)
사주학, 성명학, 빙의퇴마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저렴한 천도재로 영가가 천도되게 맞춤 천도 합니다
천도재·49재·점안식
이 인연으로 극락왕생 하소서
010-2168-2800
011-850-0176



척 추 교 정
비 법 전 수
누구든지 가능
하루교육 완성
출장가능
사찰경제에 큰 도움
010-3055-9000

관 상 (손금)
– 스님 특별 비법 개인지도
– 상술, 비법, 질병 전문강의
– 암,묘터,질병,재판,이혼수를 얼굴만 봐도 알수 있다
– 일반인,무속인,철학원,스님
010-4014-8822
(천기누설비법)

배워야 산다
비법+명리+조상풀이법
포교당 사찰을 운영하시는 스님 / 철학관 개업하실 분 / 무속제자, 신선생 / 무한 책임지도 / 사주풀이 전화 상담 중
010-4540-0061
지리산 현담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타로 & 백초귀장술
– 진로 적성 성격 질병 궁합 합격 승진 등 사주보다 정확한 심리상담가능
– 단기간 배워 상담가능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원 개원하실 분
010-8246-3253
책임 개인지도

빙의.퇴마.전생체험 수강생 모집 (개인지도)
3개월 과정
교재는 무상 지급함
수업 : 매주 금요일 오후1시~5시까지
세종시 소정면 운당 (대승암)
010-5269-4168

불교범음범패학인모집
염불, 사물, 천수바라,
나비무, 법고, 양고장 및
송주, 정근북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 (구, 용회사)
010-7579-8200
금륜사 주지 법현 도광

범음범패 교육
스님, 일반, 남·여 수시모집
바라, 나비춤, 사물 다루기, 살풀이, 극락무, 천도재, 49재, 점안식
010-5598-5078
부산 미타사 무상 합장

늦깍이로 스님되실 분
경북 문경에 위치한 사찰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시봉하며 공부도 하고 스님이 되고자 하시는 분 연락주세요.
010-8819-8988

수행처가 마땅하지 않은 비구니스님, 보살님 방사 드립니다
1인 단독 개인방사 드림, 25평형, 방2개, 거실,욕실, 주방
(양산 통도사 부근, 산사사찰)
010-4640-4747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도심 포교원)
010-3618-606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성남시 복정동)
010-5382-8261

운전하며 사찰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1종 대형면허, 65세,
사찰경력 3년
010-6476-602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파주)
010-5257-775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제주도)
010-3639-8500

문두루 기도비법?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27년 전통의 길상불교예술원
(탱화, 단청, 불상 갤러리 운영 전문)
불교미술을 배워서 전문적으로 불교예술원을 기획, 운영하실 인연을 기다립니다.
경북 경주시 보문로 402-31
(붓다의허브정원 : 탱화 불상 갤러리박물관)
010-5595-8533

부전스님
모십니다
(60세 이상, 울산 백련암)
010-3034-211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산)
051-413-3318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큰스님 상좌(행자) 및 출가학교 모집
1. 프로그램 : 무문관체험, 불교교리, 사경, 염불습의, 걷기명상 (지도 : 법사스님), 참선(지도 : 無一우학스님)
2. 교육기간 : 100일 / 3. 참가비 : 무료
4. 대 상 : 50세 미만의 남자 독신 / 5. 문 의 : 010-9562-8228
※ 미혼 청년회도 모집중입니다.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해외도량,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이름으로 운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름으로 오늘운, 금년운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배울 분 모집 010-5792-0199
한국명품이름연구원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이천)
010-3797- 006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세이상, 강원도 양구)
033-482-3382
010-3764-3661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신명 불로 탄생되어 온 사명제자 중생을 극락사에서 증명하여 신인류 천지인으로 탄생되면 천상극락(시리우스)에서 내려온 8만4천 신명, 불들과 통신하면서 지상천국 극락세계를 건설할 眞人(진인)을 모집합니다.
봉황산 063-352-2888

大醫王 부처님의 기도치료법을 널리 펴고 싶습니다


총 782P 두권 구입 값 43,600원
입금 확인후 택배비는 저자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 인류최초로 기도치료법을 가르쳐 주신분은 부처님이십니다.
● 이것을 세계 최초 가장 현대적으로 풀이하여 누구든지 쉽게 배워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 2권의 서적입니다.
●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자기 자신의 건강 증진은 물론 포교방편으로 삼으면 좋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 및 책구입 : 011-557-2773, 010-2093-3385
입금 온라인 : 611038-02-030104 우체국(정보석)
352-0943-7979-03 농협(정보석)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한국최초!! 내손안의 육임
◆무료강의 : 매월 2, 4주 일요일 오후 4시(미리 접수바랍니다)
이제 운세를 휴대전화와 휴대용 PC로 순쉽게 손안에서 해결되는 새로운 비법의 육임 운명법(사주, 개운법포함), 명궁법, 신수법, 시간법을 각자의 생년월시만 넣으면 8640페이지로 명쾌하게 해결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운명을 알아 맞추는 형식이었다면 육임 운명법은 운명의 법칙대로 살아야 잘사는 법을 만든 비술이다.
■ 시간법도 각각 年名(년명)을 대입하여 풀어놓은 국내 최초의 비술이며 휴대전화와 앱으로 볼 수 있는 국내최초로 만든 손 안의 운세이다.
■ 육임은 대운법 뿐만아니라 세운으로 각자의 운명을 어떻게 살아야 맞게 사는지를 자연법칙에 맞추어 만든 비술이다.
■ 인연이 가장 중요하고 직업이 중요하다. 만법이 자연에 순응하여 살듯이 인간도 자연법칙에 맞추어 살아야만 세상을 이기고 행복한 삶을 사는 법이다.
■ 육임 운명법은 자연법칙에 맞는 인연과 직업을 명확히 알고 살도록 만든 최초의 비술이다.
❶ 동영상 강좌 : 250만원 ❶ 직강 : 300만원
❸ (내손안에 육임) 프로그램 : 450만원
❶+❷+❸ 合 600만원 (개별구입 가능)
※ 각종카드, 할부금융 – 무이자 24개월 할부 가능
■ 강좌문의 : 공념학당 010-4471-6410 「육임이 보인다」 저자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 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무속 단계 무료, 심천 유료)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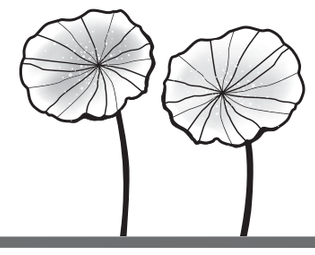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음욕(淫慾)은 불보다 뜨겁다. 음욕보다 뜨거운 불이 없고, 성냄보다 빠른 바람이 없으며, 무명보다 빽빽한 그물이 없고, 애정의 흐름은 물보다 빠르다.

- 법구경 -



서울 & 경기 사찰 / 포교원 중개 전문

- 서울지역 무료 출장상담 및 무료 전국신문광고 서비스 제공
- 사찰 / 포교원 양도 & 임대 전문적 / 중점적 중개
- 심층상담을 통한 고객 만족 매칭서비스 제공
- 공인중개사로서의 정확한 책임 신뢰 중개
- 서울&경기 지역 매물 접수처(H.P 010-3426-9393, 카카오톡: hyeonjong01)

서울.경기 사찰 & 포교원 양도 / 임대 급히 구함

이현종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이현종)

주소: 서울 광진구 뚝섬로52길 44 101호 / www.010-3426-9393.com

010-3426-9393 / 02-449-0284

양평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요사채.황토방.창고 ● 토지 1,500㎡
- 주변이 산, 주차장 보유. 남향이며 아늑한 암자
- 양도가액 : 5억원 (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40. 가락동프라자@상가(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 분석과 입지 분석
- 계약 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 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 (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 (상봉동 127-1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 위치 : 서울
◎ 부지 : 1200평 ◎ 면적 : 200평
◎ 법당 : 50평 ◎ 법당 : 50평
◎ 요사 : 80평 ◎ 요사 : 2동
◎ 양도가 : 9억 5천 ◎ 양도가 : 25억5천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내 돗대산 기도사찰
- 토지 : 270여평, 종각, 요사채 30평
- 법당 23평, 주지실, 산신각, 용왕당
  ※ 국제의료관광특구지정
- 사찰주변 1,500세대 아파트
- 최근 2,000세대 아파트 추가분양
- 양도 : 10억 8천만원

직통 010-9906-3631 혜관

사찰(급)안내

- 인천시 사찰 양도
- 토지300㎡.3층법당.2층요사.1층공양간
- 시설좋은 법당. 안정된 포교 사찰
- 위치 좋음. 주차장 있음
- 가액 : 12억원(융자가능함)

010-7347-1010 (02-430-0284)

사무소 방문 부동산 무료 상담

(서울 이박사 공인중개사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 찰 안 내

- 위치 : 김천시 소재 황금동 10분거리
- 내용 : 법당 약 20평, 주방거실1, 방2, 세면장, 화장실, 벽돌조 32평 독채, 등기필(사찰)
- 대지는 도지료 1년 35만원
- 남향, 교통좋은 포교지 (2차선 상가지역)
- 가액 : 5천 4백만원

010-7295-125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요지)
- 신축사찰, 부지 280평
- 삼존불, 각단탱화, 법당, 스님방
- 공양주방, 화장실2, 실외화장실 창고1, 집기일체, 즉시법회가능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대출 8천안고 2억 3천만원

010-8643-5235
010-7475-0474

인천시포교원안내

- 위치 : 인천시 서구
- 지하철역 인접 / 대로변위치
- 3층 / 3층 283㎡ (약 86평)
- 상담실 법당 주방 공양간 등
- 가액 : 보 1000만, 월 70만원 시설비 4000만원

010-3426-9393(포교원전문)

02-449-0284

삼 보 사 찰 안 내

무료 부동산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 위치 : 사하구	● 위치 : 서울	● 위치 : 김해
● 대지 : 750평	● 대지 : 120평	● 대지 : 2,000평
● 법당 : 50평	● 법당 : 25평	● 법당 : 30평
● 요사 : 3층 20평씩	● 요사 : 30평	● 요사 : 60평
● 양도액 : 25억	● 가액 : 12억	● 가액 : 25억

오랜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사찰,포교원을 찾는 스님이 많은데 물건이 없습니다.
물건을 많이 주시면 빠른 시일에 성사 시키겠습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삼사순례지 소원성취하는 절

- 이름 : 당산목 : 영신목(靈神木)
- 나이 : 일천삼백살(1,300세) ● 무게 : 칠톤(7천 kg)
- 고향 : 전북남원 지리산

※ 소원을 들어주는 신령하고 영험한 영신목
"소원을 이루는 절" 용두산 위 불 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탑동길 92-45

종무소 : 055)224-0023
주지승 : 010-4547-0023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대지 : 45평
  건평 : 92평
- 4층 건물
- 가액 : 5억 5천만원

010-5931-1071

토 굴 안 내

- 위치 : 원주시 부론면 소재
- 여주IC, 문막IC에서 15분거리
- 대지 180평, 전 75평, 건평 30평
- 난방 : 심야보일러
- 대문까지 포장도로, 주차장시설
- 스님 토굴용으로 최적
- 가액 : 1억 6천만원

010-7345-1674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연산동
- 대지 120평(종교부지)
- 법당, 삼성각, 용왕당, 호신불당
- 스님친견실, 주지실, 주차장 상수도 및 약수(사시사철)
- 가액 : 4억 5천만원
- 완전 몸만 오시면 됨

010-7273-152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신평동
- 대지 : 150평(반지하)
- 법당, 산신각, 칠성각 약 70평
- 스님친견실, 주지실, 종무소, 외 방3개, 공양간, 욕실, 다용도실, 텃밭
- 완전 몸 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3억

010-6717-6826

암자터 및 전원주택 부지

- 위치 : 경남 거창군 남상면 진목리 305번지
- 자연경관 수려하고 삼면 소나무 숲
- 지방국도 접해 있음
- 거창 진목리 면사무소에서 3분거리
- 전기 자연 우물 유. 1300평
- 가액 : 9,500만원
- 대출 삼천만 되어 있음

거창 010-4661-7734
부산 010-3868-7435

불교(사회) 다목적 종합복지타운 부지(급) 안내

-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동산 수목원" 부근 인터넷 검색요망
- 총부지 : 약 16,500평(잡종지, 약 8,500평, 임야 8,000평)
- 도로 : 2차선 버스길 접함(본 토지내 경계선까지 대형차량 출입가능)
- 특징 : 잡종지 40% 건축가능, 전원주택지 200평 ~ 300평씩
  30채 ~ 40채,신축가능, 토목공사완료, 배수로공사완료, 동 남 서향 일조권 조망권 최고위치 소나무단지 울창함, 인공폭포용 절벽공사 조성완료, 대형자연석 담장 석축완료, 본토지경계선은 계곡임
- 용도 : 사찰 및 불교(사회)병원, 양로원, 연수원, 예식장, 별장용 학사고시촌, 전원주택, 납골탑(당), 수목장 불교종합복지관 불상조각사업 및 각종 휴양 사업 등 기타
- 급양도가 : 35억 (대출 13억원 있음) 부동산 중개 환영

010-9376-2082 사무장

사찰(급)안내

- 위치 : 해남읍에서 사오분거리
- 부득이한 사정으로
- 사찰도량 총 1,420평, 목조 법당 20평, 관음전 종각 요사채
- 방 10개, 공양간, 창고, 외부 화장실 등등 대형 주차장 등
- 대출 7,500안고 2억 3천 5백원

010-4628-569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통복시장
- 명리 상담 하던곳
- 평수 : 약 50평(화장실 포함)
- 깨끗한 건물 2층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천만원(절충가능)
- 즉시 법회 가능

010-6829-404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연제구 거제시 장로 15번길 17 (거제 시장 통닭 골목)
- 3층 건물 중 2층 삼존불, 주방, 욕실, 창고 등 (보신후 결정)
- 가액 : 보 5백만원 월 50만원 (실평수 60평) 시설비는 보신후 결정

010-8385-244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957-0824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 사직동
- 2층 건물 중 2층 옥상에산신각
- 평수 : 40평 정도, 작은법당(대웅전)
- 상담실,종무소,방1,옷방1,욕실겸 화장실1
- 보증금 2000만원, 월세50만원, 시설비1500만원 (삼존불.백사위신중탱화, 조왕탱화)
- 집기일체(냉장고,김치냉장고,에어컨2,대형TV
- ※작지만 최고 시설
- 역학보시는 스님 포교하기가 좋습니다

연락처 010-3660-9363

촌 집 안 내

- 위치 : 경남 거창군 가북면 단지봉 해발 800m
- 특징 : 사시장철 청정수 흐르는 개울이 마당과 붙어 있고 특히 돌담이 아름다움
- 작은 집 3채(방 5개) 구들 난방, 태양광 전기 사용. 수행 공간으로도 최적
- 총 800여평. 가액 : 2억 2천

010-3805-2707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요지
- 1층 공양간 35평 2층 법당 50평
- 가액 : 전 1,500만, 월 80만 시설비 절충
- 스님 급한 관계로 급 양도
- 지장기도도량

010-3112-0480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금산
- 종교부지 280평, 임야 50평
- 법당 : 철재 경량골 23평
- 삼성각: 목조 기와 7평(단청,30년됨)
- 요사채: 철재스레트 30평, 방 5개, 주방1개, 화장실(실내1, 실외1)
- 1억 8천만원(융자 4천만원)

010-3875-6305
041-759-0592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구포역전 앞 광장 3층 건물 중 3층. 역세권
- 실평수 28평, 방1개, 거실1개, 법당, 권리금 없음
- 포교원 철학관 하실분
- 가액: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조정할 수 있음

010-3840-5534
(주인직)

사 찰 안 내

- 위치 : 세종시
- 부지 : 10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외 1동
- 산속, 차량진입, 경관수려
- 양도가 : 6억

010-4586-4525

단독주택 법당 안내

- 위치 : 세종시 행정타운 10분, 조치원 5분 딱중간지점 · 대로변 교통 편리, 차량유동인구 많고 근린,교육시설형성 좋음, 대로변. 포교원 운영 최적지임
- 1층 법당 요사채 산신 영가단 2층 옥탑방, 마당 ,주차장, 텃밭
- 가액 : 시보포함 2500 절충가능, 절살림 완비, 바로 법회가능
- 자세한사항 전화문의하세요

010-4598-2916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대구시내 2차선 도로변
- 대단지 아파트와 주택 밀집지역 중간부분 교통 원활
- 아미 관음 지장 후불 신중 칠성탱화 영가단, 소불 법당종 냉,난방기 음양 조명 등 시설완벽 불기 및 집기일체
- 신조성 1년 10개월 포교 및 명리 적합, 3층 건물중 2층 약 25평
- 주방시설은 있으나 방은 없음
- 보증금 3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없음

010-5050-625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 법당 40평, 대지 360평
- 요사채 3동, 산신각, 용왕당
- 가액 : 보3000만원,월70만원
- 몸만 오셔서 바로 법회가능

010-8384-7754
하루 전 미리 전화 요망

산밑에 예쁘게 단청이된 사찰안내

- 위치 : 경상남도 창녕
- 토지 : 약 530평
- 건물 : 법당1동, 칠성각1동, 산신각 1동, 요사채, 약 40평 1동
- 가액 : 2억 8천 5백만원 (조정가능)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노원구 상계동 4호선 당고개역 1분거리
- 지하1층, 지상1층 다락 지상 49.26㎡, 지하 24.03㎡ 마당 있습니다.
- 상계 제2구역 재개발구역
- 종교부지
- 가액 : 5억 5천만원

010-3763-280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603번지
- 법당 27평, 구 건물 11동
- 산사에 대지 660평, 현재사용부지 2,000평
- 매실 350그루 외 다수 유실수
- 현재시세 4~5억정도 형성 사정상 급 안내
- 가액 : 3억

010-9203-1165

별장같은 현대식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북부지역 일월산지역
- 총평수 1,000평, 대지 500평, 농지 500평 요사채 30평, 완공 3년
- 사정상 법당은 미완공, 토목공사 완료
- 앞마당에 계곡물 흐르고 1급수 청정지역
- 가액 : 2억 4천, 절충가능

010-5424-4969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
- 평수 : 대지 125평 중 법당 30평, 삼성각
- 호신불 650불, 인등1008등
- 방5개. 다락방, 욕실, 화장실 3개 주차 10대가능
- 신도시 형성 아파트 3만세대 고속도로 5분거리
- 가액: 3억7천만원(대출가능)

010-5019-5385

역세권 대형 포교원

- 위치 : 송파구 방이동 역세권 잠실역 몽촌토성역 3분거리
- 4층 35평 종무소, 요사채, 찜질방
  5층 35평 법당, 지대방
  6층 공양간 10평, 다용도실, 창고 및 옥상
- 전 층 황토세라믹 시공 및 세라믹 찜질방
- 각 종 제의식시 일체 민원 없음
- 가액 :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50만원 시설비 4000만원

010-9637-235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사찰안내(토굴)

- 위치 : 경북 구미 시내
- 대지75평, 요사채, 법당 40평
- 방3,주방,욕실,화장실2, 창고1, 총평수 248㎡(75), 대문2
- 현재 8년 운영중 스님이 대불사를 하였음
- 스님, 보살, 법사가능
- 가액 : 보증금 300만원,월35만원 시설비 600만원

010-2499-300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남 진주시 봉곡동 (서부시장 옆)
- 평수 : 50평, 3층건물 중 2층
- 삼존불 모셔져있고 방 2개 주방 남녀화장실 별도
- 가액: 보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최고시설

010-2069-394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만덕
- 지상2층, 법당 100평, 방3, 공양실1, 주방1, 화장실1, 유료주차장, 건물주인직접 운영
- 법당내 수미단, 신중단, 산신단, 칠성단, 설법단 설법상 각단 조각으로 단을 짬, 총1억 소요
- 부득이 옮겨야 하는 입장 때문에 싸게 드립니다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에 월 70만원 (주인 불자임) 건물내 집기류 총 2천만원
- 급해서 싸게 드립니다. (절충은 안됩니다)

010-4466-3575

절터,암자터부지안내

- 위치 : 경남 거창군 북상면 병곡리
- 전, 임 730여평 (보전관리지역)
- 포장도로 접해 있음
- 항노화 힐링특구
- 가액 : 평당 95,000원

010-4661-7734
010-3848-2452

도심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 대지 70평
- 1층:27평(방3칸, 공양실, 주방) 2층:25평(법당, 스님 친견실) 종무소: 3평, 도시가스, 주차가능
- 가액 : 전세로 상담후 결정

010-7311-5335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 광역시 동구 무등산 방향 도심속 조용하고 아담한 사찰
- 대지 54평 1층 법당 40평 2층 20평 시설 특급, 소음 및 민원 없음 전통대문 소나무 소슬참문, 도시가스
- 아미타불,관세음,약사여래불,지장전, 산신각,종무소,기타 집기류 등 일체 / 몸만오시면 됨
- 주변아파트 5,000세대 신축중, 철학하면서 포교하실분 적합
- 가액 : 2억 9천 / 전세가 1억 5천

010-6731-2365

여항산 사찰 안내

-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여항면 주서리 943 외 5필지 부동산 현황
- 가) 토지 : 654평(종교용지, 답, 임) 나) 건물 : (대웅전 23평, 신영각 3.4평, 요사 27평 등)
- 가액 : 상담 후 결정

010-6667-4753
010-3852-257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김해
- 평수 : 248평
- 법당 23평. 요사채. 방가루 마당잔디. 조경전망 좋음
- 시청 은행 관공소 도보10분거리
- 가액 : 5억원 대출3억원 안고 양도 2억원 (현시세땅값8억6천만원),절충가능
- 불사관계로 급 양도

010-5019-5385

수양관 (암자) 안내

- 위치 : 대전시내 보문산
- 대지 : 98평, 건물 40평
- 약수 우물 있고, 국유지 텃밭 있음
- 대학병원 5분, 역전 10분 거리
- 가액: 2억 7천만원 (전 월세 가능)

010-5407-803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도마리 110-10 광주 IC에서 3분거리
- 비닐하우스에 예쁘게 토굴 법당을 만들었습니다 요사채도 불편함이 없이 만들었어요
- 모든 (집기, 전세)일체포함 1,700에 보시합니다 (현 200만원에 ~ 월 45만원)
- 참고로 도로 옆이라 사주카페로 방편하시면 좋을듯합니다

010-8961-549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북천
- 총부지 : 임야 2,000평
- 건물 : 법당 16평, 요사 30평, 조립판넬구조
- 자연경관 수려하고 공기좋고! 이명산, 지방문화제 마애불있고 북천 코스모스축제 하는곳
- 가액 : 2억 1,000천 대출 7,500백 안고 1억 3,500백

010-7188-7723

암 자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 송지면 소재
- 대지 110평(바닷가 접)
- 법당, 해수관음, 5층석탑, 용왕단
- 즉시법회 가능 (몸만오시면 됨)
- 가액 : 7,000만(답사후 절충)

061)337-3357

사 찰 안 내

- 위치 : 포항 동해 앞바다 (전망좋음)
- 해수관음 도량 (7자)
- 대지 230평
- 1층 요사채, 2층법당
- 가액 : 몽땅 4억 3천(가격절충)
- 몸만오시면 됩니다

부동산사절

010-7441-2345

美 불교 지도자들, 트럼프 정책에 '반기' 들다

100여 불교도, '트럼프 정책 비판 성명' 발표

정치권에 강경 입장 '이례적'
"새 행정부 정책, 퇴행적"
비구 보디 · 잭 콘필드 등 동참
약자 보호에 불자들 동참 당부



미국 불교도 100여명은 '트럼프 대통령 정책 비판 성명서'를 4월 3일(현지시간) 결의 발표했다. 사진은 연설 중인 트럼프 대통령 모습. 사진출처=thinkprogress

"우리는 민주주의와 사회복지가 위험에 빠진 이 나라(미국)의 외침을 외면할 수 없다."

100여 미국 불교 지도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사회적 약자들을 해치고 있다면서 불자들에게 함께 저항할 것을 독려했다. 대규모 불교도가 정치권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한 것은 미국사회서 드문 일이기 때문에 여론이 주목하고 있다.

불교 잡지 'Lion's Roar'는 미국 불교도들이 결의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 정책 비판 성명서'를 4월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은 불자들이 사랑과 관용, 지혜, 용기 등의 정신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새 행정부의 정책이 '퇴행적'이라고 규정하며, 수백만 명이 고통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고통 받는 많은 사람들과 연대를 통해 변화와 민주주의의 해방을 되찾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들은 "새 정부의 정책이 승리한다면 취약지역 및 비(非)특권계층에 속한 수백만의 국민들이 고통 받을 것"이라며 "시대의 희망은 깨지고, 의심할 여지없이 우리들의 (민주적)삶은 사라질 것이다. 국제분쟁과 환경파괴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불교도로서 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의의를 짚고 "불교는 전 세계적으로 연민과 평화의 종교로 존경받고 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정책에 반대하는 이 운동에 가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불교가 어떤 정당이나 이데올로기에 일방적으로 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불교도들은 트럼프 시대에서 취약계층을 원조할 다양한 방법을 제안했다. 추방 위험에 빠진 불법 입국자들을 위해 보호 공간을 빌려주거나, 그들을 위한 시위에 참여하는 방법 등이다.

이들은 "우리 불교공동체는 보호와 미래비전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보호처를 제공하거나, 그들을 위해 앞장서 싸울 수도 있다"면서 약자 계층과 적극적인 동맹도 불사할 뜻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멜빈 맥레드 'Lion's Roar' 편집장은 "이와 같은 불교도들의 정치적 연대는 매우 드문 일"이라며 "광범위한 불교도들의 공감이 있었기 때문"이라 평했다.

이 성명서에 서명한 사람들 중엔 불교 활동가 비구 보디(Bhikkhu Bodhi) 스님 등 불교도 뿐 아니라 세계적 명상 지도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잭 콘필드(Jack Kornfield), 목사 앤젤 교도 윌리엄 등이 포함된다.

비구 보디 스님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는 불교 윤리 가치와 강하게 상충되는 법안과 정책들이 제안됐다"며 "이에 정치에 침묵하던 불교도들도 입을 열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비구 보디 스님은 불교도들이 앞으로 같은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길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동굴서 12년 수행한 불자, 순회강연 떠나

타라 초잉라모, 네팔서 20년간 수행한 경험 공유
뉴질랜드 오클랜드 이어 호주까지 순회 강연

네팔에서 20년 넘게 은둔하며 수행을 한 외국인 불자가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오스트리아 태생의 타라 초잉라모다. 그는 네팔문명으로부터 6일 정도 걸어야 존재하는 1400m 높이의 동굴에서 12년 동안 세월을 보냈다. 경험에 대해 그는 "매우 아름다웠다"고 짧게 대답했다.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그녀는 청년시절 영적인 탐구에 심취하게 되었고, 십대 후반에 불교로 개종해 그의 불교 지도 법사를 따라 네팔로 향했다.

초잉 라모는 "많은 시간을 혼자 생각하며 보낸다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섭고 어려운 일일 수 있다"며 "수행기간 동안 배웠던 것은 '부정적인' 사고를 나쁜 생각으로 여기지 않는 대신 단순히 고려해야 하는 것 정도로 여겼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수행하면서 자연스레 올라오는 생각들을 관찰했다. 그 생각들은 질투와 아집, 집착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았으며, 그런 생각들과 자만심과 같은 습관적 감정이 그의 삶을 중압감이 느껴지게 만들었다.

그는 "불교적 전통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 이기적인 추구로 여겨지지 않는다. 정신적으로 깊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영적실천' 중 하나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초잉라모는 그의 경험을 수행과 깨달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나누고자 한다.


12년간 네팔의 한 동굴에서 은둔 수행을 한 외국인 불자 타라 초잉라모(사진) 씨가 뉴질랜드 및 호주 전역으로 순회 강연을 떠난다. 사진출처=ODT

지난해 런던에서 그녀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했다. 홀로 동굴에서 수행할 때 느꼈던 감정과 점차 수행에 깊이 빠지게 된 경험을 나눴다.

그는 "내가 이렇게 수행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앞으로 수행을 하는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라며 "나는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통해 깨달음으로 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초잉라모는 앞으로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넬슨만델라, 크라이스트 처치, 퀸즈 타운 등을 거쳐 호주 전역까지 강연회를 펼칠 예정이다.

이보형 객원기자


사진출처=EPA

"아빠! 절에 트랜스포머가 나타났어요"

태국 논타부리주에 위치한 왓타키엔 불교사원에서 한 가족이 영화 '트랜스포머'의 대형 캐릭터 조형물 앞에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방콕 포스트(Bangkok Post)'는 4월 4일 트랜스포머와 사찰의 이색적인 모습을 공개했다. 자동차 부품과 재활용 고철로 만들어진 이 트랜스포머 조형물은 사원의 주지 스님이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입했다.

주지 스님은 "어린이를 비롯한 젊은 신자들의 사원 방문과 흥미를 끌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아름 기자

"무슬림, 2075년 기독교인 따돌릴 것"

퓨리서치센터 조사 "상대적으로 젊고 출산율 높아"

2075년엔 이슬람이 지구촌에서 최다 신자를 보유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4월 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연구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는 20년 내 무슬림 부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 수가 기독교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 수를 앞지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0~2015년 전 세계 무슬림 부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 비율은 약 31%로, 같은 기간 세계 무슬림 비율 24%를 크게 넘어섰다.

또한 같은 기간 기독교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 비율은 33%로, 기독교 신자 비율 31%를 조금 웃돈 수치를 기록했다.

무슬림이 다른 종교인보다 상대적으로 젊고 출산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미래에 무슬림 비중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2030~2035년 무슬림 부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는 약 2억2,500만 명, 기독교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는 2억2,400만 명이지만, 2055~2060년엔 각각 2억3,300만 명, 2억2,600만 명으로 차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조사됐다.


퓨리서치센터는 2075년엔 무슬림 부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 수가 기독교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수를 앞질러, 이슬람교가 지구촌 최대 종교가 될 것이란 조사 결과를 밝혔다.

2015년 기준 전 세계 73억 인구 중 기독교인 비중은 31%, 무슬림은 24%로 뒤를 잇는 상태다. 비종교인은 16%, 힌두교인은 15%이며, 불교는 7%로 뒤를 이었다.

퓨리서치센터는 이번 조사에서 모든 신생아가 부모 종교를 따를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고, 아이가 종교를 바꿀 가능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아름 기자

日 14C 이후 '첫 비구니 주지' 탄생

하나조노 스님, 정토진종 종립학교 회장 선출

수세기 만에 일본 사찰에서 비구니 스님이 주지가 돼 화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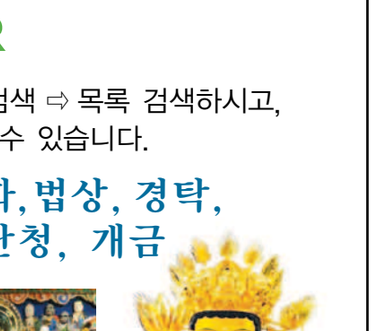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4월 4일(현지시간) "젊은 비구니 스님이 정토진종의 종립학교인 코쇼학교의 회장을 맡았다"며 "이로써 14세기 이후 첫 여성 지도자가 나오게 됐다"고 보도했다.

샤쿠 신교라는 법명을 갖고 있는 사야카 하나조노 스님〈사진〉은 23세로 올봄에 대학을 졸업했다.

그는 코쇼학교 31대 회장인 신조 스님의 딸로 9세 때 승려의 삶을 선택했다.

신조 스님이 2001년 사찰의 수장으로 취임했을 때 그는 여성들이 사찰 내 임원직을 맡을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었다.

하나조노 스님은 고등학교 졸업 후 도쿄의 일본 수의학 생명과학대학에서 공부했다. 쥐의 십이지장과 궤양과 관련된 연구에 참여하면서 힙합 댄스 동아리에서도 활발히 활동한 쾌활한 학생이다.



하나노조 스님은 기자회견에서 "여성들이 쉽게 방문 할 수 있는 사찰이 되도록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보형 객원기자



위패몰 .com

원로대덕스님들께 삼가 문안인사 올립니다.

사찰에서 살다보니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하나 만들어 쓰다보니 주위에서 나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다보니 이렇게 지면을 통하여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쓰기 좋고 보기 좋으며 법당내의 격을 높이고자 감히 디자인 하고 고안하였습니다.

조상의 왕생극락을 불전에 기원하는 후손들의 정성을 섭인(攝引)하여 법당을 여법하게 장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문(沙門) 일허(一虛) 나무 관세음보살


2단 합동위패 ①
2단 합동위패 ②
3단 합동위패 ①
용전대 ①
용전대 ②
목걸이마이크 ①
목걸이마이크 ②
축원카드 보관함
소대위패 ①
소대위패 ②

살펴보시고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부산 서구 남부민동 93-1번지
☎ 051) 244-2040

위패몰.com 七寶寺

문화재기능인목조각 제5772호 · 대한민국대한명인수미단 제483호

보리수불교예술원

DAUM NAVER

네이버는 검색창에서 보리수불교예술원 검색 ⇨ 카페 앨범 검색 ⇨ 목록 검색하시고,
다음에서는 다음카페 검색하시면 사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상, 닫집, 수미단, 사천왕, 건축, 목탱화, 법상, 경탁,
경상, 현판, 주련, 복전함, 인등, 연, 단청, 개금



대표 오동렬 합장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154-10 wangborisu@hanmail.net
전화 031)573-1269 / 010-5254-7596

‘생각’은 ‘경험’을 방해한다



박태수 제주국제명상센터 이사장

명상은 세상과의 소통 ⑧



습관으로 인해 뇌가 멈춘다

마음은 수련을 거치지 않으면 주변 상황으로부터 쉽게 유혹 받는다. 또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과정에 대해 잘잘못을 의식하지 못한 채 되풀이한다. 두히그(2012)에 따르면 우리에게 어떤 습관이 형성되면 뇌가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완전히 중단한다. 왜냐하면 습관으로 인해 뇌가 할 일이 없어져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것을 멈추거나 다른 일에 관심을 갖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명상수련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깨어있게 함으로써 뇌의 활동을 도와 습관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

깨어있다는 것은 마음의 작용을 감지하고 있는 것, ‘지금’의 내 생각을 보는 것이다. 내 생각들을 움직이게 하는 저변의 태도와 감정을 지켜보면 내 생각동기가 불순하거나 부정적이거나 뭔가의 결핍에서 오는 것일 때 그것을 알아챌 수 있다. 내 생각 속에 그런 종류의 에너지가 들어 있음을 감지할 때는 다른 종류의 에너지로 교체할 수 있다.

오래 전의 일이다. 이른 새벽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할 때면 이웃집 앞을 지나갔다. 그때마다 그 집의 개가 쫓아오면서 짖었다. 기껏해야 머리 밑에 괴는 베개만한 것이 나를 무섭게 하였다. 다 큰 어른이 그 정도가 뭐 그리 무섭냐고 하겠지만,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 먹어도 물릴 것 같은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래서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면 아내더러 그쪽 방향으로 서게 하고 나는 개가 잘 볼 수 없도록 아내 옆에 바짝 붙어서 갔다. 맘속으로 아내는 물려도 괜찮고 나만 안전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나에게는 개를 무서워하는 공포증이 있다. 그러니까 벌써 20여 년 전 일이다. 지금처럼 이른 아침 산책길이었다. 그날도 가끔씩 보이던 개가 나를 따라왔고, 그냥 나를 좋아하나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걸어가는데 그만 내 발목 뒷부분을 물었다. 나는 깜짝 놀랐고, 그 순간 개에게 물리면 광견병에 걸린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일어났다. 개 주인에게 전후사정을 얘기했더니 주인은 별일 아니라며 개의 털을 태워 그 기름을 발라주었다. 그러나 마음이 놓이지 않아 병원에 가서 예방주사를 맞았고 지금까지 별탈은 없었으나 그 이후 개를 보면 물릴 것 같은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명상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조차 다루지 못한다는 생각에 부끄럽기도 하여 걷기명상을 통해 두려움을 치유해 보기로 하였다. 나의 유일한 관심은 오직 의도적으로 마음을 내어 알아차리는 것이었다. 그 집 앞에 갈 때는 마치 아픈 사람처럼 천천히 걸었다. 개가 있는 집 쪽으로 둘러보고자 할 때는 ‘봄, 둘러봄’이라고 알아차렸다.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오른발, 왼발’이라고 알아차렸다. 또한 발을 들어 올리는 시작부터 발을 내려놓는 끝까지의 움직임에 주의를 집중했다. 나는 주의를 발걸음에 집중하며 걸었다. 다소 긴장은 됐지만 오로지 발걸음에만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개로 인한 두려움에서 멀어질 수 있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그 집 앞을 지나가게 되고, 개는 다시 제 집으로 들어가며 짖는 소리도 점점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서 나는 개가 짖거나, 뛰어오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걷는 일에만 주의를 보냄으로써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명상치유 활동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는 동안 나의 두려움은 점차 줄어들었고, 그 개도 나의 무관심을 알아차렸는지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게 되었다. ‘세상은 나의 반영이다’라고 했듯이 내가 개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게 되자 개도 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게 된 것이다. 이제 두려움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그 집 앞을 지나갈 수 있다. 나는 개에 대한 두려움을 치유하게 되면서 생활 속에서 더욱 더 주의를 내면세계에 두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명상태도를 갖게 한 이웃집 개에게 감사했다. 그는 나의 인생길을 안내한 또 한 분의 스승이 된 것이다.

생각 멈출 때 경험할 수 있다

우리의 삶에서 ‘생각’은 ‘경험’을 방해한다. 그러므로 삶을 생생하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멈춰야 한다. 우리 인간에게는 살아가는 동안 신체적인 고통과 감정,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Assagioli(1979)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의 삶에서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 성격의 결점 등 자신의 회로(self-circuit)에 동일화되어 이것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를 관찰하여 자기와는 다르다고 하는 의식화, 즉 낡은 이미지를 부정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탈동일화(dis-identification)를 할 경우에는 동일화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자기회로를 지배하고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내 안에 있는 관찰자가 생각하는 자와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으면 생각으로 인한 정서적 반응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 “
> **생각하는 자신을 바라볼 때 불순·결핍 원인 알 수 있다**
> **명상이 생각을 멈추게 하면 감각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
> ”

명상은 생각의 흐름을 멈추게 함으로써 정서를 변화시킨다. 생각의 대상을 관찰하는 것이 명상이다. 생각에 무엇이 지나가더라도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는 일이 없이 그저 지켜본다. 생각의 대상, 생각의 내용물을 지켜보면 그 생각은 사라지고 생생한 현실만 존재한다. 그래서 생각을 관찰하면 삶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 다음은 개인의 삶에서 겪는 심리적 갈등을 명상을 통해 해결해 가는 사례이다.

L부인은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한다. 그녀의 삶의 신조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녀가 필요한 말만 하려다보니 자신의 말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다보니 말을 많이 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L부인의 신조는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에 대한 평가기준을 만들게 되고 그 기준에 따라 대화하게 된다. 이를테면, ‘저 사람은 얼굴은 잘 생겼지만 학식이 부족해, 그러니까 가벼운 얘기나 하지 뭐’ ‘저 사람은 내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말만 하니까 이 쯤에서 대화를 끝내야겠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보니 온전히 상대방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그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을 만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자신에게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함으로써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생각에 의해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를 테면, ‘나는 공부하는 사람치고는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내 자신도 잘 다스리지 못하는 데 내 자식들을 어떻게 잘 키울 수 있겠어’와 같은 생각을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떨어뜨리거나 좌절하게 되었다. 그녀의 생각은 점차 부정적으로 흘러 삶 자체에 활력을 상실하게 하였다. 이러한 그녀의 사고 패턴은 남편에게도 적용되었다. 그녀는 평소 남편과 잘 지내고 있으나 가끔 불만족스럽다. 그것은 잠자리에서 나누는 사랑 때문이다. 사랑을 나눌 때 그녀는 종종 ‘내가 이런 행위를 해야 하나?’라든가 ‘하기 싫으니까 하기 싫다고 말을 할까?’와 같은 생각을 함으로써 사랑행위에 온전히 몰입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L부인은 매순간의 삶에 ‘불필요한 생각’이 끼어들면서 그 순간의 삶을 ‘생생하게 경험’하지 못하였다.

L부인은 명상을 통해 매순간 자신에게 일어나는 생각과 느낌을 관찰하기로 하였다. ‘나는 공부하는 사람치고는 별로 달라진 게 없어’와 같은 생각이 일어나면 ‘나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구나’라고 알아차렸다. 이러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 생각을 반복하여 알아차림으로써 생각의 횟수가 점차 줄어들었고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편과의 잠자리에서도 ‘내가 이런 행위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면 ‘사랑나누기를 힘들어 하는구나’라고 알아차리면서 그 생각을 바라보았다. 그러면 지나갔다. 이처럼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이런 생각이 떠오르네’라고 알아차리고 원래의 대상인 사랑이 행위로 돌아갔다. 물론 L부인의 부부사랑도 회복되었다. 생각은 과거나 미래의 일이고 실재하는 현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알아차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생각이 일어났네’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현재에 돌아오고, 알아차리는 마음으로 앞의 생각은 사라진다. 이와 같이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고 계속 이어간다면 어떠한 행위도 조절할 수 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대상을 만나면서 관계를 맺거나 지나친다. 안이비설신의로 밖의 대상인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 등으로 끊임없이 들어오는 감각대상과 만난다.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삶이 단순해지려면 만남이 일어나는 현상을 아무런 생각의 개입 없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 한다. 만일 눈으로 들어오는 대상인 어떤 여인을 보았다고 하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 예쁘다. 몸매가 곱네, 말이라도 한번 걸어봤으면’ 하는 등으로 나 자신의 생각을 개입시킨다.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은 지금 이곳에서 벗어나 그 여인이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러나 명상의 상태에 있으면 그 여인이라는 대상을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사람’으로 알아차림으로써 어떠한 감각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은 생각에 따라 일어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바탕이 생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각은 피할 수 없으므로 알아차릴 수밖에 없다. 생각을 알아차린다면 분별에 따라 다른 생각의 방해 없이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

염불(범음·범패)
무 료 교 육
염불(범음 · 범패)을 배우고 싶으신 회원을 초대합니다.
염불 뜻을 알아야 소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 수 강 료 : 무료
■ 자 격 : 삭발 염의한 스님
■ 강의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5시
■ 교육내용 : 천도의식 뜻 해설 및 소리 (영남소리), 사물, 바라작법, 공양작법
■ 강 주 : 자운 스님
바라, 공양작법 – 해인 스님
■ 문 의 : 여여불음원
☎ 055)744-5300
❖ 회 비 : 십만원
단, 회비는 부처님 성지순례(1~2년 마다) 여행비로 비축
• 본인 염불소리 전문 녹음 및 CD제작 가능 •
여 여 불 음 원
경남 진주시 미천면 어옥로 232-72 여여암

육임 직접 강의
대육임, 육임금구결, 주역, 월령도 등을 직접 강의합니다.
육임의 대가 운암스님께서 1:1 직접 강의로 수강 완료 후 즉시 개별 상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교 수 : 법연정사 운암스님
과 목 : 대육임, 육임금구결, 주역, 월령도, 명리, 성명학
강의시간 : 1년 과정 (매주 5시간 강의)
수 강 료 : 대육임, 육임금구결, 월령도 } 각 60만원
주역,명리,성명학 – 각 40만원
강의장소 : 법연정사 (경기 구리시 교문동 233-15 2층)
연 락 처 : 031)554-3336 010-5931-3319
법 연 정 사 운 암 합장

당신도 명리학의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주를 풀어주기 위해 명리학을 공부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본 책자는 초보도 만세력에서 일주만 찾으면 성격 및 당해년 운세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포교를 하다보면 제가자들이 많은 것을 물어오는데 부록편에서는 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 우혜안 –
慧眼決書
발행인 : 초암사 주지 혜 안 스님
주문처 : 초암사 043-215-1569
010-9405-8186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내수읍 초정길 156-9)
입금계좌 : 농협 317-02-322143 (우복진)



대행 스님

대우주의 근본이 내 근본과 더불어 직결돼 있습니다

오늘 모건힐에서 한자리를 한 것은 어느 종교에 국한됨이 없이 서로가 화합해서 이 진리를 탐구하면서 생활 속에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고 자기를 발견할 수 있고, 자기부터 있기 때문에 세상이 벌어졌다는 거를 좀 더 음미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게 하고 이러기 위해서 한자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견으로 쓰지를 않고 항상 소견으로써 좁게 쓰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의 모든 생명체들이 자기가 지금 어디를 가는지,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이 속의 모든 생명들이, 의식들이 다 한마음으로 통신이 돼서 같이 한마음으로 돌아가야만 내 몸도 건강체요, 바깥에 있는 모든 살림살이도 건강하게 해 나갈 수 있는, 또 좌절이 없는, 즉 말하자면 아주 당당한 내 마음으로 가정과 사회와 국가, 모든 면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견으로만, 자기가 요렇게 마음으로 틀을 짜 놓고 거기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 소견을 가지고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탁 틔워서 지견으로써, 한마음으로써 대우주의 근본이 내 근본과 더불어 직결돼 있다는 사실을 좀 더 우리가 폭넓게 알아내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직결돼 있으니까 모든 이 마음 자체가 그렇게 무한의 능력을 가졌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견으로 쓰기 때문에 자기의 그 능력을 발휘 못하고, 또 이 50%의 유(有)의 세상, 무(無)의 세상 50%를 한데 계합시켜서 자유스럽게 쓰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탓이지 우리 가르치는 사람의 탓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복으로만 나가도 아니 되고, 소견으로만 써도 아니 되고, 또는 무의 세상의 공에 빠져서도 아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우리 마음이 좀 더 폭넓은 지혜로써 지견을 쓴다면 그렇게 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내가 말했듯이,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의식 자체가 악업 선업이 뭉쳐서 우리 인간이 됐는데, 그것들이 모두가 내 마음의 지배를 받아야만 되겠죠. 그런데 내 마음이 악으로 쓴다거나 선으로 쓴다거나 그런다면 그대로, 악으로 생각하면 여기서 악으로 같이 해 주고 선으로 쓴다면 선으로 같이 해 줍니다. 그러니 그걸 모르는 거죠.



그림 · 최주현

그럼 우리가 지구 벌레라고 합시다. 우리 몸속에 들어 있는 벌레와 같이, 이 몸을 지구로 삼고 사는 내 생명들과 같이 우리도 지구의 벌레로서, 지구의 주인으로서 이렇게 산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지구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오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항상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서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구도, 즉 말하자면 수명을 오래도록 둘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도 있지 않으냐 이런 문제도 없을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몸도 그렇습니다. 지구와 같이 안에서 파워가 일어나고 싸우고 이런다면 이 몸뚱이가 벌써 망가집니다, 세포가 굳어지고. 벌써 콩팥에서 걸러 주는 데 지장이 있어지고, 그럼 붓고, 또 간이 나빠지고 위가 나빠지고, 어디는 안 나빠집니까? 나빠지면 거기가 잘못됐다고 해서 고치면 또 딴 데가 벌어지고…. 그럼 몸뚱이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집이 망가지죠? 이 몸뚱이는 우리의 집이라고 봅니다. 집이 망가진다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 무효죠. 아무리 우리 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 세상에, 차원에 따라서 이 세상에 다시 바꿈질을 해서 진화되기도 하고, 또는 끝 간 데 없이 우리는 이 중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벗어나고, 지구에서 벗어나고, 세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 하나가 금방 깨쳤다고 해서 한 소식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소식 얻은 게 아닙니다. 갓난 어린애 금방 낳아 놓고서 "너,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해서 네 멋대로 살아라!"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방 깨친 사람은 어린애 금방 낳아 놓은 거와 같아서, 그걸 부모가 기르고 또 가르쳐서 이렇게 사회인이 될 때까지는 부모의 보조가 필요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깨쳤으면 그때서부터 실험으로 들어가고, 즉 말하자면 체험으로 들어가고 연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는. 둘이 아닌 도리를 알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체험이 된다면, 당당하게 안으로는 내 생명체들을 모두 한마음으로 굴려서 지배하고, 바깥으로는 마음들을 조절해서 지배하고 그렇게 해서 둘이 아닌 도리를 알게 해 놓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즉 말하자면 세 번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은 나를, 모든 것을 놔라, 자기 주인공에 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컴퓨터에 놓으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컴퓨터에 입력을 해 놓으면, 그냥 아무렇게나 버려라 이러는 게 아니라 입력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입력이 돼 가지고 지금 현실에 이렇게 고생을 하니까, 지금 고생하는 것을 입력을 다시 한다면 앞서 팔자 운명이라는 그 단어가 없어지고 그 언어가 없어지고 업보가 없어지고 녹아진다 이 소립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가, 지금 우리 몸뚱이가 살아서 지금지금 움죽거리면서 가기도 바쁘고, 옳게 가기도 바쁘고, 나 발견하기도 바쁘고, 둘이 아닌 도리를 알기도 바쁘고, 둘이 아니게 나투는 도리를 알기도 바쁜데, 우주 천지가 전부 가설이 돼서 직결돼 있다는 그 사실도 연구하고 탐험도 해야 할 텐데 말입니다, 바빠 죽겠는데 싸울 새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욕을 해도 그렇고 나하곤 상관이 없는 거죠. 네? 죽인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바빠요, 지금.

인간까지 올라온 것도 천 년을 공을 닦아서 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 하나 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돼 가지고도 거기서, 즉 말하자면 진화해서 승진을 못한다면 여기서 빙빙빙빙 끝 간 데 없이 돌다가 또 미해져서 잘못되면 짐승의 허물도 쓸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의식만 가지고 있다 보면 아, 부부가 자는 것만, 그 의식만 가지고 있으니 거기 아무 데나 들어갈 수밖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가지고 나온다면 사람의 모습이 없어지고 짐승의 모습으로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분명히 있으나 우리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다고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과거는 지금 짊어지고 나왔으니까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없으니, 지금 모두 찰나찰나 돌아가면서 생활하는 거를 한번 지켜보면서, 여유 있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잠재의식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라 이거죠.

이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즉 불교다 이러면 불교가 무슨 미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톨릭교, 기독교, 불교 할 거 없이 전부 바깥에서 숭상하고 바깥에서 끄달리고 바깥에서 구하고 그러니, 전부 그게 미신들이지 뭡니까? 사람이 미신 노릇을 하면 미신이 있는 거지 사람이 미신 노릇을 하지 않는데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귀신 노릇을 안 한다면 귀신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의 도리를 그대로 참답게 해 나가면서 당당하게 살 수 있고 당당하게 자유스러울 수 있고, 돈을 쫓는 게 아니라 내가 없으면 당당하게 돈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즉 말하자면 인간의 이 모두를 자유스럽게 살 수 있으며 또는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으며 또는 법신이 될 수 있으며, 찰나찰나 돌아가면서 사니 화신이 될 수 있으며, 뭐든지 내가 사는 대로 그대로 여여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며,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무한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재료가 다 돼 있다는 사실, 여여하다는 사실, 청정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낼 수 있다는,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 근

☞ A18면으로 계속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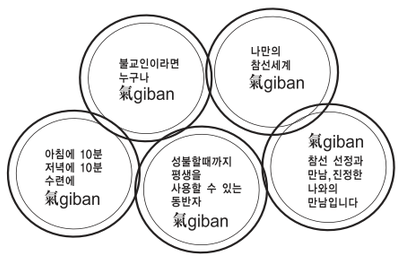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기반방석 내부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daibulshop.com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www.hyundaibulshop.com

희담석 지킴이 염주세트
직경 8㎜
· 구 성 : 108염주 + 희담석지킴이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세트
직경 12㎜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세트
직경 10㎜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이 마음 자체가 무한의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믿어야!

☞ A17면에서 계속

원을, 근본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견으로 아주 작게 써서 '요거는, 요거는….' 이럭하고는 그냥 자꾸 따로따로 가르니 지혜가 넓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족자에 붙여 놨죠, 저기. 저기 보십시오. 불(佛)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근본, 그 자체가 불입니다. 여러분은 생명 없는 여러분도 없거니와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다는 사실도 부정 못하시겠죠? 그리고 마음이 있으니까 움죽거린다는 그 사실도 부정 못하시겠죠? 그것이, 우리 사는 게 그냥 불교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생활입니다, 그냥. 불교가 어디 국한돼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먹고 죽고 이렇게 돌아가는 생사윤회도 없느니라." 했습니다. 나중에 그 도리를 알면 생사윤회도 없어요. 잠시 잠깐 없어졌다 잠시 잠깐 잎이 피듯이. 여기는 사철이 따로 없습디다마는 그래도 가을이 되면 잎들이 떨어지더군요. 어쨌든 간에 잎이 떨어졌다고 해서 나무가 죽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뚱이가 떨어졌다고 그래서 나무뿌리가 죽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에서나 추운 데 보면요, 가을에 잎이 탁 떨어지고 나면 그 나무는 앙당한 가지만 남죠. 이번에도 알래스카에서 보니까 푸르름은 푸르름대로 있고, 아주 그냥 흰 백설이 덮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 외에는 아주 앙당한 가지만 남아서 추위를 참으면서 인내로이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과 더불어 같이, 똑같이 공존하고 있더군요.

그러니 저것도 그렇습니다. 자성이 본래 청정함을 알라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대로, 모든 게 찰나찰나에 돌아가고, 작은 거면 작은 거 큰 거면 큰 거, 선후가 없이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대로 돌아가면서 산다 하는 것을 명시해 놓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청정한 거죠. 마음은 항상 국한돼 있지 않고 매여 있지 않고, 찰나찰나 그냥 슬기롭게 돌아가는 게 여러분 마음이죠? 그 마음이 청정함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이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 자성이 본래 여여함을 알라 이랬죠? 그대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체를, 여여함을 왜 모르느냐 이겁니다. 마음만 조금 넓게 쓴다면, 서로 대적하고 서로 욕하고 서로 긁어내리고 그럭하지 말고 넓게 쓴다면, 그저 남한테 꼭 말을 하고 다녀서 넓게 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넓게 쓴다면 보이지 않는 데서나 보이는 데서나 귀인이 닥쳐서 나를 살게 해요. 내 마음 쓰는 대로라고요. 내 마음 쓰는 대로, 내 양심이 부처라는 말도 있듯이 내 양심이 잘 써지면 바로 수없이 오고 가죠. 그래서 이 인간의 마음 자체가 바로 천체무전통신기처럼 통하고 있죠.

그러니 오늘은 여러분하고 서로 토론을 하고, 요다음에 뭐 내일 모레 또 저기서 한다니까, 거기 가서 할 때 차곡차곡 인간의 몸이 어디서 이렇게 왔는지, 지금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거를 자세히 말씀해 드리죠. 오늘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게 있으시니까 질문하십시오.

질문자1(남) 큰스님께서 항상 주인공 말씀을 하시는데, 그 주인공이라는 거는 보통 얘기하면 영혼을 얘기하는 게 아닌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큰스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마음 안의 주인공은 움죽거리지 않으면서도 힘을 가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런 거 한번 들어 보세요. 다른 물건은 다 먼저 됐는데 인간은 제일 나중에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질문자1(남) 정신적인 거, 영혼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큰스님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제일 나중에 난 것은 미생물에서부터 거쳐서 진화되고 수억겁 광년을 거치면서 진화돼 왔기 때문에 인간이 제일 늦게 된 폭이죠. 그런데 그렇게 진화돼서 끌고 온 장본인이 누구냐. 자기 주인공입니다. 자기 주인공이 이끌고 왔기 때문에, 주인공이라는 뜻은 한 새도 없고 안 한 새도 없이 그냥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진화력을, 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공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 안에 주인공이 있기 때문에,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놔라." 하는 것은 그것이 과거생으로부터 온 컴퓨터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입력이 모두 돼 있는 바로 숙명통.

지금 사람들은 숙명통이라고 그러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아주 고조할아버지 컴퓨터라고 합시다, 허허. 모든 것이 다 입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라고 합시다. 그것이 불가에서 말하면 숙명통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숙명통만 있어서도 아니 되죠. 컴퓨터 그것만 있어서도 아니 되죠, 또. 이 모든 시스템이 다 돌아가려면 거기는 팩스도 있어야 하고 탐지기도 있어야 하고 무전통신기도 있어야 하고 망원경도, 천체망원경도 있어야 하고 또 레이더망도 있어야 하고 전부 붙어 돌아가야 합니다, 이거는. 하나라도 빠지면 아니 되죠. 모든 전체가 거기서 다 풀려나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즉 말하자면 오신통 그 바깥으로 벗어나야만이, 오신통이 여러분의 몸이라고 한다면 바깥으로 벗어나야 몸을 마음대로 굴릴 수 있다 이 소립니다. 이 뜻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진 뭐냐 하면 여러분이 팔자 운명 이런 타령을 하는데 팔자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시간과 공간이 초월돼서 찰나찰나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 붙을 자리가 어디 있다고 붙어야 하고 운명이 있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모르는 게 죄입니다. 모르는 게 죄예요. 모르는 게 고(苦)고요. 모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컴퓨터에 과거에 살던 과정이 전부 입력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지금 현실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현실에 나오는 데다가 다시금 거기다가 입력을 시킨다면 과거에 입력이 됐던 건 다 없어진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팔자 운명이고 뭐고 병고고, 그런 거 어디서 왔느냐? 무슨 미신에 걸쳐서 뭐가 나왔느니 부모 조상이 잘못돼서 뭐가 나왔느니 그렇게 말을 하죠. 그건 사실입니다. 인과응보로서 악업 선업이 나오죠, 유전이 나오죠, 세균에서 나오죠, 영계에서 나오죠, 조상들이 잘못됐으면 그 연결의 인과로 나오죠. 아주 복잡하죠. 잘못됐다 하면 복잡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도리를, 한군데서 나서 한군데로 든다 하는 것만 알면…. 여러분이 계시니까 세상이 벌어졌고 여러분이 계시니까 지금 잘못됐네 잘됐네 하고 이렇게 종교도 믿는다 안 믿는다 이게 나오지, 여러분이 없으면 무효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탓이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관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서 나오고 여러분 속에서 들이고 생각하고 아, 그러지 누가 합니까? 아이,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런가. 그러니까 여러분한테서 나오는 거는 여러분한테 되놔요! 되맡겨요! 왜? '네놈이 엎드러졌으니까 네놈이 일어나!' 이러고요.

이 종교라는 것은, 이 불법이라는 것은 저 풀 한 포기도 불법 아닌 게 없어요. 이 세상의 모두가 전부 직결돼 있습니다. 전부 직결돼 있고 전부, 이 전기가 가설돼 있듯이 전부 가설이 돼 있어요. 부처님께서 수많은 해골바가지 앞에서 큰절을 하신 것도 '우주 삼라만상 대천세계가 전부 직결돼 있느니라. 전부 돌아가면서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부모 아니었던 부모가 없고 내 형제 아니었던 형제가 없고, 그러니 바로 그 해골도 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내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내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내 어머니가 될 수도 있느니라. 그런데 어찌 절을 안 하겠는가. 풀 한 포기도 버리지 말라. 내가 배울 때는 모두가 하나처럼 천체가 스승이다. 그건 왜? 그것들이 없다면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배우지 못한다. 그러니 풀 한 포기도 스승 아닌 게 없느니라. 그거를 안다면 하나도 버릴 게 없느니라.' 이런 거죠.

이렇게 불법이 심오합니다. 여러분한테 불법이 있다는 것을 심오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도 변소에 가도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부처가 있다는 거를 어찌 모르십니까? 그리고 부처는 가만히 있으면 부처고, 생각을 냈다 하면 법신입니다. 움죽거렸다 하면 화신이고 보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부처님을 모셔 놨는데 하나가 석존이면 하나는 문수입니다. 하나는 보현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하나는 그냥 힘만 가지고 있는, 즉 말하자면 어떤 기계화가 됐다면 그 중심, 심봉 그것만 딱 힘을 주고 있고 그 가장자리에 붙어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문수, 보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하늘을 받친 불기둥이다 한다면 이쪽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이 생각하는 거는 문수고 또 생각을 하고 움죽거리는 거는 보현이거든요. 그래서 자성삼보에 귀의한다 이러는 거지, 어디 신이 따로 있어서 귀의한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기 법당에 왔으면 저 부처님 형상하고 내 형상하고 둘이 아니요, 마음하고 둘이 아니요, 생명과 둘이 아니다 이거야. 또 강당에 갔으면 주처가 하나님, 님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있는 것이고, 하늘님은 나의 그 지혜로운 마음이고, 한울님은 나에게 모든 일체가 통신이 되는 그 한마음이 바로 "님이시여, 님이시여"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님으로 인해서 수많은 님이 하나로 뭉쳐서 조화를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무슨 딴 데 있는 줄 알지 마시고, 부처가 딴 데 있는 줄 알지 마시고 언제나 부처나 중생이 둘이 아니요, 하나님과 부처라는 이 단어가 둘이 아니라는 거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부터 알라, 하나님부터 알라 이 소립니다. 왜 각자라고 말씀을 안 해 주셨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각자라는 말을 안 했더라도 편집하는 사람이 좀 더 이 뜻을 알았더라면 그렇게는 안 해 놨을 겁니다.

그러니 누가 나쁘고 누가 좋고 이걸 떠나서 우린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나왔으니 모두가 조화를 이루고 같이 공생 · 공용 · 공체 · 공식화하고 지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누가 나쁘고 누가 좋고가 어디 있습니까? 지구가 지금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내 몸뚱이가 지금 돌아가도 이 몸뚱이 속에서 생명들이 지금 어디로 돌아다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알 수 있게끔 모두 알려서 한마음으로 돌아가게 하고 내가 지배인이 된다면 한생각으로써…. 하루는 어느 불자가 그랬대요. 아, 저기 가다가 무르팍이 탁 부딪쳐서 무르팍이 아팠어. 그런데 그것이 도져 가지고는 다리가 아파서 못 다니거든. 그래서 '야, 네 집을, 네 다리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으면 내가 너를 어떻게 누가 되지 않게 이렇게 끌고 다닐 수 있겠냐?' 그러고선 주인공한테 '네가 알아서 해. 네 집을 네가 고치는 거지, 운전수가 고치는 거지 누가 고쳐?' 그러곤 갔더니 아이, 조금 가다 보니까 다 나았더라지 않습니까. 그걸 알아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혼자 앉아서 돈 어디 착취한 거를 아무도 모르고 나 하나만 알아도요, 아니에요. 이 보이지 않는 우주 법계에서 다 아는 거예요. 왜? 우주 법계에서만 아는 게 아니죠. 이 세포에서 다 아는 거예요. 세포가 법계거든. 내가 아는 거는 다 아는 거라.

그러니 우리 하나하나가 거짓 없는 사실이라는 거. 예전에도 누가 접시에다 시주를 했는데 시주를 했으니까 그래도 뭐를 정성이라도 들여 줄 줄 알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니, 아니 글쎄, 여기선 멍크(monk)라고 그러니까 중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예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스님!" 이렇게 잘 불러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스님이 해 줄 줄 알고 가만히 있는데 안 해 주거든. "스님, 저 어떻게 정성은 안 들여 주십니까?" 그러니까 "정성을 안 들여 줬다고 생각하걸랑 이 돈을 도로 가져가거라." 그랬거든. "나는 너한테 돈을 받은 새도 없고 내가 너 준 새도 없어. 네가 가게 가서 필요한 물건을 돈을 주고 사 왔을 때 그 사람 돈 줬다고 하겠느냐?" 하니까 그만 "어이구,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곤 갔더랍니다. 가니까 아팠던 자기 아들은 그냥 일어나서 밥을 먹고 앉아 있더랍니다. 그겁니다, 바로. (다음 호에 계속)

주인공이라는 뜻은 한 새도 없고 안 한 새도 없이 그냥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진화력을, 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 법문은 1990년 4월 22일 모건힐지원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빙의치유(영가장애) 상담환영!!

빙의치유도 전문가를 만나야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의 행복이 걸린 문제입니다!!

각종 빙의의 구체적 증상

- 사람이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이상 행동하는 경우 (폭력적으로 변한 경우, 술을 갑자기 많이 먹는 경우, 술 먹으면 눈빛이 바뀌는 경우, 밥을 끊임없이 많이 먹는 경우 등)
- 잠잘적 마다 많은 꿈에 시달리는 경우, 잠잘적 마다 가위 눌리는 경우
- 숙면 취하지 못하고 불면증 심한 경우
- 어느 시점부터 사람이 의욕이 없고 우울해지고, 몸이 마르고, 몸이 천근 만근 무거우나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 불안, 공포, 무서움증이 심한 경우
- 알 수 없는 머리 두통, 가슴통증, 배아픔 등이 있는 경우
- 환청, 환각 증세가 심한 경우
- 가정불화, 사고 우환이 계속되는 경우
- 중, 고등학생이 갑자기 이상 행동, 폭력적 행동, 학습능력저하, 자살충동 일으키는 경우
- 장례식장, 상가집, 국내외 여행 다녀온 후 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 있는 경우
- 여러번 천도재, 굿을 해도 효과 못 보신 경우
- 아무리 센 신기운도 제압, 천도가능 함.
- 신기운, 무병에 시달리는 경우
- 동물(소,돼지,개,닭,오리,어류 등). 식물(큰나무 베고 탈난 경우) 영가도 천도 가능함.

상담해법 문제해결 중심으로 상담 : 빙의치유 전문자격 갖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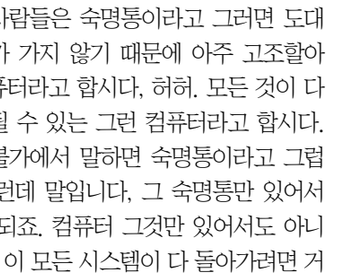
- 차후 지속 관리해 드림 (또 다른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음)
- 원격치유 가능 (외국에 있는 분도 치유가능)
- 몸안에 들어온 영가제령, 최고실력 보유 (전국 최고)

상담문의처 | 제주 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영가천도전문상담원)
☎ 064)746-0789 ※ 전국 어디든 상담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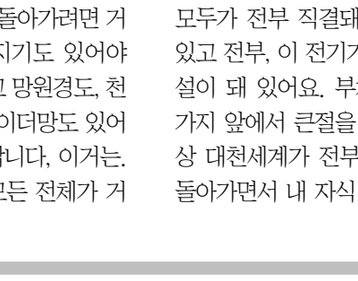
오시는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연동) 삼무공원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돼지감자, 연근 국내산 100%
자연 그대로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건강을 위해 사찰에서 직접 재배한 돼지감자와 연근을 드시기 좋도록 자연그대로 건조시켜 분말로 만들어 담았습니다.



돼지감자 분말
한박스 44봉 7만원
◆효능 : 당뇨, 변비, 췌장기능 강화, 체지방 분해, 다이어트 효과, 해열, 지혈에 탁월한 효과



연근 분말
한박스 44봉 9만원
◆효능 : 고혈압, 빈혈 예방, 피부미용, 위벽보호, 변비예방, 기억력 개선, 치매 예방, 니코틴 제거에 탁월한 효과

음용 방법 보통 물 한 컵에 한봉지를 넣고 잘 저어서 아침 저녁으로 드시면 됩니다. (우유, 요구르트 등에 타서 드셔도 좋습니다)

금강식품 (금강정사) 대리점모집 中
경남 양산시 대동 2길 24 (어곡동)
기업은행 055-375-1398 권영로

문의 055-375-1398.010-2563-1398
지 웅 합장

청운 감로 클로렐라 <음료식품>



클로렐라 는 식물성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복합 당질,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소, 염록소, 핵산, 베타 카로테노이드, 플라보이드, 류틴 등의 항산화재 식물성 영양 성분, 스테롤, 감마 리놀렌산 등 천연의 식물성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보관방법 및 음용방법
냉장 보관하시고 드실 때 밑에 가라앉은 입자는 몸에 좋은 영양소인 미생물 플랑크톤이므로 꼭 흔들어서 드십시오.

그라비올라로 가공하여 만든 이 클로렐라 음료는 스님 불자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탄생한 음료입니다.
그라비올라는 1976년 미국 국립 암센터에서 잎과 줄기의 추출물은 악성세포를 파괴하여 거의 대부분의 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 졌습니다. 아마존의 그라비올라는 항암효과 및 면역체계보호, 경련감소, 박테이아궤멸, 고혈압, 당뇨, 신경통, 관절염, 피부질환, 기침, 독감, 설사, 소화촉진 등에 좋습니다.

■ 제품가격 : 1병 1만원 (최소 주문수량은 10병입니다.)

제품문의 : 백련사 031)673-1087



경북 안동시 풍산읍 높은산고지에서 약사사스님이 3년생 토종하수오를 농사 지어 정성껏 만든
토종하수오 진액을 판매합니다.

◆하수오의 효능 : 신체노화 방지. 탈모와 흰머리를 검게해주고 모발건강에 효능. 관절염 무릎통증에도 효과. 신장기능을 강화시킴. 허리를 튼튼하게 해주고, 혈압을 강화. 동맥경화예방에 좋은 효능. 염증을 완화. 가래와 담을 제거. 종기나 치질. 만성피로의 개선.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하는 작용. 갱년기에 좋고. 고지혈증. 빈혈. 좋은 건강보조식품이니 드시고 백세인생을 건강하게 사세요.

제품문의 : H·P 010-9692-5775
▸금액 : 150.000원 (무료배송) 50팩
입금 : 농협 351-0450-9156-23 [예금주 : 약사사]
경북 안동시 풍산읍 신양 3리 11번지 대한불교 약사사

| 불자 세상보기 |

오락영화는 정의 다룰 수 있을까?



정재형
동국대 교수
(영화평론가)

'정의' 주제 영화 쏟아져
선악이분법 · 동화 수준 담론

'영화' 매체 그림과 같아
작가 관점서 대상 그려내
가치판단 객관성 결여

오락매체 한계, 후유증 심각
오락으로 가볍게 소비해야

영화 〈내부자들〉, 〈더 킹〉, 〈마스터〉, 〈재심〉, TV드라마 〈김과장〉, 〈힘센 여자 도봉순〉, 〈피고인〉, 이들의 공통점은? 흥행을 했거나 하고 있다는 점 외에 정의라는 주제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사회부조리나 사회악에 대한 억울함을 시원하게 풀어헤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미디어의 속성상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내부자들〉은 검찰, 언론, 기업이 하나가 되어 사회부조리를 형성하고 힘없는 사람이 희생이 되는 구조를 파헤쳤다. 주인공 조폭과 정의로운 검사는 합심하여 부조리를 척결한다. 정말 그렇게 되면 좋으련만 영화에서처럼 될 확률은 거의 없다.

〈더 킹〉에서는 검찰, 언론, 기업에다 청와대까지 연관되는 유착관계를 보여준다. 이 영화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의 핵심에 붙어 생존하는 한 정치 검사의 생존법을 비판적으로 보여준다. 항상 영화적 재현의 문제는 현실이 다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렇지 않은 검사를 등장시켜 그것을 저지한다는 데 있다. 모두가 한 방향이라면 그건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인 방향일 수도 있는데 생각이 다른 반대 검사는 언제나 정의로운 것일까?

〈마스터〉 역시 우리 주변에서 권력을 등에 업고 생존해 가는 큰 손 인간과 그를 비호해주는 정치권력의 부조리를 고발한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만화적으로 희화화 시켰다. 정치적 도움을 부조리로만 평가한다면 그런 조건 없이 존재하는 현실이 실제 가능하기라도 한가? 그렇지 않다면 정치가들은 왜 자신들이 정권을 잡아야 한다고 외치는 것인가?

〈재심〉 역시 억울하게 누명 쓴 인간과 그를 몰아간 정치권력과 검, 경찰 세력의 부조리를 그리고 있다. 실화이기도 한데 영화에서 그려진 이면의 반대 상황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한 방향으로만 해석하여 항의를 받기도 한다.

이들 영화나 드라마가 유행하는 데에는 심각한 후유증이 따른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정의담론이 선악이분법적이고 어린이 동화수준의 담론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오락영화 혹은 오락적 TV 드라마가 갖는 한계 때문이다. 문제는 그런 유치한 담론이 퍼져 나가 사회담론 전반을 차지하여 여야정치가들의 대국민 선전 담론으로 활용되기까지 한다는 점이다. 그런 영화들은 우리의 정치수준을 오락영화의 담론수준으로 낮게 끌어내린 장본인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영화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영화가 국민들의 정치수준을 끌어올렸다고 자부하는 시대착오자들도 있다. 마치 특정 영화가 국민들의 민주화 수준을 올렸다는 그런 식이다.

흑백논리, 선악이분법적인 가치 기준으로 사회정의를 논한다면 그건 초등학생들의 동화적인 수준이지,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근거는 분명 아닌 것이다. 영화라는 매체의 속성은 현실에서 하나의 주장만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영화라는 매체를 거울이나 그림으로 비유한다. 거울은 그 거울의 상태에 따라서 반영되는 현실이 달라지게 마련이고, 그림은 화가가 위치한 단 한 군데의 관점에서만 대상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다른 가치관, 소위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하는 특성을 갖는 불구의 매체를 갖고 사회정의가 어떻다고 가치판단 해 버리면 그건 주관적인 의견 제시일 뿐이지 결코 객관성 있는 담론이 될 수 없다. 해결방법은 간단하다. 영화나 드라마 내용을 단지 오락으로 가볍게 소비하면 된다. 일부 언론들이나 정치가들이 정의가 재현된 듯 다루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의 내용이나 대상은 정의가 아니라 오락이다. 오락의 그릇에 담긴 내용물은 그저 오락일 뿐이다.



발언대
안병일 스카우트 서울남부연맹 사무처장

청소년 교육, 기성세대 변화부터

한 나라의 장래를 알려거든 그 나라의 청소년을 보라는 말이 있다. 청소년들은 우리의 희망이자 사회 변화의 동력이다. 그러나 건전하고 올바르게 성장해야 할 청소년들이 육체적 성숙과 사회적인 가치관 사이의 심리적 갈등, 추구하는 이상과 현실적 가치의 괴리 현상에 힘들어 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우리는 입시 위주의 지식교육에 사회적 성공이란 잣대만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이끌어 오는 동안 집단괴롭힘, 학교부적응, 인터넷 중독 등 많은 청소년문제의 심각성도 더불어 깊어져 왔다.

또한 사회적 불안정으로 인한 가치관의 혼돈, 소셜 미디어 사회의 지나친 상업주의, 변질된 문화화에 따른 윤리의식이 결여된 일부 기성세대들의 잘못된 모습은 오늘의 청소년들에게 거울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처방으로 건전한 청소년을 바르게 키울 수 있는 참된 교육 습관을 제안하고자 한다. 습관은 학습에 의하여 후천적으로 획득되어 되풀이함에 따라 고정화된 반응 양식이기에 이 같은 방법에 따라 청소년들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 교육방법으로는 먼저 부모와 함께하는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부모들이 자녀 생활에 대해 진심어린 관심을 가지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가정 풍토가 조성될 때 가정이 부모의 교육적 권위와 사랑이 회복된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해진다.

그 다음으로는 청소년 준거집단 활동이 활성화 돼야 한다. 청소년들이 준거집단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올바른 인성과 사회성, 리더십, 직업관 등을 함양하고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 이로써 보다 나은 인성을 함양케 함은 물론 훌륭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다.

또 다양한 창의적 체험 활동과 동아리 활동이 추진돼야 한다.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활동의 영역인 창의적 체험활동과 동아리활동 등의 운영이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학교현장의 실정에 맞도록 수립되어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불교계가 적극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전인교육을 위한 문 · 예 · 체 활동이 강화돼야 한다. 문 · 예 · 체 교육이 교육과정 운영의 방안으로써만이 아니라 인성교육 차원으로 활성화되고 더불어 청소년들의 인성 함양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강구돼야 한다.

건전한 사회교육 활동은 그 이면에서 적극 활성화돼야 한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취미 활동을 통해 개인역량을 강화하고 소질계발에 힘쓰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사회성을 길러 주기 위한 방법이 보다 교육적으로 실현돼야 함은 물론 다양하고 다변화된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보급돼야 한다.

끝으로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기성세대가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의 전통과 문화는 미래세대에 보전하고 계승하여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역사문화 다양성을 전하고, 우리 사회의 특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현대 사회의 문제를 창의적이며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불교문화를 활용한 적극적인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균형 잡힌 세계관, 국가관은 물론 글로벌 리더십, 봉사정신 등을 함양시켜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도와 전인적인 인성을 구현토록 해야 한다. 자녀들이 가정에서 보고 느끼면서 배운 사랑이나 고마운 마음이 다양한 사회적 관계로까지 승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社 說

연등빛, 희망으로 사바세계 비추길

불기2561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연등회가 다가왔다. 올해 봉축표어는 '차별 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이다. 이는 부처님이 탄생해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다른 한 손으로 땅을 가리키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면서 외친 '천상천하 유아독존'과 맞닿는다. 하늘 아래, 땅 위의 모든 존재가 존귀하다는 이 선언은 차별적 행태가 만연한 현대사회에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연등회는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오래 전부터 누구나 차별 없이 참여해 즐길 수 있는 열린 축제로 자리매김해 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차별 없는 세상'이 봉축표어로 등장한 이유는 최근 조계종이 적극적으로 입법을 제안하는 '차별금지법' 때문이다. 종교 · 성별 · 나이 · 사상 · 빈부 등 각종 분야서 암묵적으로 자행되는 차별로부터 해방돼야 한다는 부처님의 대자유 선언을 국가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불교계가 앞장서는 것이다. 수많은 차별, 위태로운 정국, 슬픔으로 인한 상처 등 우리나라엔 지금 화합과 평화가 절실하다.

올해 연등회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결혼이주여성, 외국인노동자, 장애인 등을 포함해 국민과 외국인 등 30만여 명이 연등과 함께 종로 일대를 가득 메울 전망이다.

한 명 한 명 고이 든 연등엔 희망이 담기고 그 희망은 나로부터 옆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갈 것이다. 화동세중(和同世中), 모두가 화합해 세상의 중심으로 나간다는 간절한 발원이 무명에 갇힌 사바세계를 비추는 한줄기 희망이자 너와 나를 하나로 묶는 연결고리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사찰노인대학 통해 신도 평생교육을

3월 24일 서울 조계사는 노인대학 '백송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 백송대학 입학식은 교계의 관심을 모았다. 80명 정원에 169명이 신청해 2개 반으로 나눌 정도로 인기였기 때문이다. 노인대학은 노인 복지시설 중 복지관, 경로당과 달리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취미 및 소득보장,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동안 불교계에는 이런 문화강좌를 시스템화 시킨 노인대학이 턱없이 부족했다. 본지 조사 결과 서울 조계사, 봉은사, 대구 불광사, 부산 홍법사 등 4곳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독교계가 100여 곳의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것과 비교하면 천양지차였다.

고령화를 맞아 이웃종교계가 노인대학을 중심으로 실버 선교에 나서는 동안 불교계는 뒷짐을 지고 있었다. 2년, 그리고 1년 과정의 불교대학을 이수한 학생들이 교육에 대한 욕구가 사라질까? 이들을 위한 사찰에서의 또 다른 매개체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사찰 노인대학은 기도 외에도 사찰과 신도를 묶어주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이른바 평생교육인 것이다. 27년간 노인대학인 연화대학을 운영한 봉은사의 경우 연화대학 출신 신도들이 재입학하는 비율이 70%에 달했다.

모든 사찰이 노인대학을 운영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일정 신도를 보유한 중대형 사찰부터는 노인대학을 운영할 수 있다는 교육현장 관계자들의 말도 들려온다.

그동안 불교계는 고령층 불자들의 분포로 인해 어르신 포교에 안주해왔다. 정부 예산으로 진행되는 복지관 수탁운영, 교리공부 위주의 불교대학 운영에 치우친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문화강좌도 노인대학을 통해 체계적으로 사찰에서 진행해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스님 일생 중
가장 확실한 성공!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이곳에 오시면 나이 드셔서 염불이 점점 힘이 드는 분에게 마이크와 1미터 떨어져 모기만한 소리에도 장엄하고 은은한 소리를 되돌려 드리는 특수염불시설에 2시간의 염불에도 오히려 신명이 나는 체험을 하신 후 이 시스템을 이대로 법당에 옮기면 스님 일생 중 가장 확실한 성공이 되며 아울러 보살님들이 스님 염불소리가 테이프 소리보다 몇 배 낫다하며 기뻐합니다.

또한 이곳은 특수염불시스템 외에도 각종 음향 (마이크 방생용) 등을 고루 갖추었으니 꼭 오셔서 소리구경 하세요.

※ 단, 오시기 전 날짜와 시간을 반드시 약속하시고 사찰 관계자들과 함께 오시면 소리를 판단하는 객관적 검증이 됨으로 스님에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 (주)염불소리 / 전화 055)343-1191. 010-9471-2026



가로×세로 15㎝, 1점당 희망가는 10만원이며, 계좌 입금 후 전화주십시오!
국민은행 638701-01-453575 (예금주 : 청담아트월드) ☎ 031-912-7112



우리가족의 보금자리에는 매일 성취 등을
밝히며 지장보살 · 관음보살을 뵙습니다!
本人이 원하는 바에 따라 약사여래불 ·
포대화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 세련된 디자인과 심플한 모델의 친환경 목재로 완전 수작업으로 제작되며 실용시안특허를 받아 깎고 다듬고 못 하나 치지 않고 끼움 틀작업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혼을 불어 넣은 장인의 작품입니다!
평상시에는 本人이 원하는 등불을 켜두시고 기도시에는 별도카드에 부착된 관음보살, 지장보살, 약사여래불, 포대화상으로 교체한 후 염원에 따라 기도하십시오. 그분들의 가피와 원력과 에너지를 듬뿍받아 소원성취하시고 부자되시고 건강하십시오. (전기료는 月50원정도 LED부착)
부디 평생 꺼지지 않는 나만의 등불을 밝혀 강건하시고 소원성취를 이루십시오!

■ 친척, 친지, 윗분들, 자손들, 도반, 고마운분들, 생일, 생신, 축하선물로는 최상의 선물입니다!

■ 사업장, 영업장, 사무실, 집무실, 공부방, 침실, 안방, 거실, 병실에 필, 성취 등입니다!

■ 성취 등 뒷면에는 **띠별호신부(저작권소유)**를 부착해드립니다!

※ 제작과정을 직접보고 확인하시고 싶은 분은 동영상을 신청하십시오!
(청담아트월드 총괄기획실장 서재명 010-5669-9572)



현재 전국에 있는 사찰에서는 기존의 인등을 철수하고
저희 회사의 소형목재 인등으로 교체 불사를 많이하고 계십니다!
관심 있는 스님께서는 동영상을 보신 후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사찰담당 상무 : 김수철 010-8881-0474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www.btn.co.kr

제작비1600억원, 제작준비기간10년!

55부작

드래마 붓다

방송시간 월~일 00:50
화, 수 08:30



BTN 은 케이블TV(아날로그/디지털), 스카이라이프, IPTV 모든 플랫폼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skylife 181번 olleh HD 233번 Btv HD 305번 U+TV 185번
케이블TV 채널안내 : BTN홈페이지에서 확인 또는 02.3270.3300

성종사 대만최대 규모 범종 제작 수출

聖鐘社 SUNG JONG SA

세계로 수출되는 성종사 범종! 우리의 자랑스런 불교문화유산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범종 제작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성종사가 대만 최대 규모인 8,800관(33 ton) 범종을 제작 수출하였다. 높이 4.82m, 직경 2.89m 중량 33ton(8800관)의 이 초대형 범종은 대만 타이중에 위치한 명선사 (明善寺)라는 사찰로부터 2013년 주문 받은 것으로 기존 대만 최대 범종인 25.5ton의 불광산사 범종보다 무려 7.5ton이 무거우며 높이도 50cm나 더 크다.

본 범종의 제작기간은 약 18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종 표면에는 12,129자의 경전과 명선사의 역대 祖師 70명이 정교하게 빼곡히 새겨져 있어 보는 이로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성종사의 범종은 대만, 중국, 일본, 싱가폴, 홍콩,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전세계 불교권 국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聖鐘社
전시관 : 서울시 종로고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사이트 : www.sungjongsa.co.kr / E-MAIL : sungjongsa@hotmail.com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대 표 : 범산 원 광 식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 대한민국 명장)



전국 국제 공항, 항만의 문화재감정관실 불자회 회원들이 본지 인터뷰를 위해 어렵게 모였다. 사진은 불자회 회원들이 불단의 공양구를 감정하고 의견을 나누는 모습.

문화재 밀반출 막는 최전선 파수꾼들

道伴의 향기 문화재감정관실 불자회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다. 바로 국제공항과 항만이다. 공항과 항만은 여객기와 여객선을 탑승하기 위한 터미널 역할을 하지만, 다른 역할 중 하나는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승객들의 물품을 검색하는 것이다. 이용해 본 사람들은 알지만, 국제공항과 항만에서는 꽤 까다로운 검색 절차를 거친다.

다양한 물품이 해외로 오가는 공항과 항만에서 검색대를 주시하고 있는 것은 보안 요원만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 중에서 불교와 가장 많은 연관이 있는 곳은 문화재청 문화재감정관실이다. 공항에 왜 '문화재 감정이냐' 고 물음표를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길.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대한민국의 관문에서 해외로 문화재의 밀반출을 시도할 사람은 없을지. 혹은 도난 문화재를 반입하려는 사람은 없을지. 국제공항과 항만에 있는 문화재청 감정위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문화재 불법 반출을 막기 위해 24시간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

문화재 감정위원, 누구세요

전국 19개 국제 공항 · 항만서
여행객 문화재 반출 감정업무
25명 상근 · 30명 비상근 근무
수사협조 · 검색요원 교육 등도

감정관실 하루 일과 궁금해요

첫 스케줄 출발 2시간 전 출근
퇴근은 마지막 일정 30분 전에
하루 평균 30점 이상 감정 진행
많을 땐 100~300점 가량 감정

'불자' 문화재 지킴이들

문화재감정관실은 1962년 관련 법령이 제정되고, 1968년 2월 김포 국제공항과 부산 수영비행장에 처음 설치되면서 시작됐다. 현재는 전국 국제공항 8개소, 국제항만 5개소, 남북출입사무소 2개소, 국제우편 2개소, 기타 2개소 등 모두 19개소가 운영 중이다. 문화재 감정관실 인원은 총 55명이며 상근직은 25명, 비상근직은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문화재 감정위원들은 대부분 자신의 전공을 가지고 있고,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불교미술' 이다. 불교미술 전공자면서 불자인 감정위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가 '문화재청 감정관실 불자회(이하 문불회)' 다.

불교문화재 감정 능력 향상을 위해 2012년 창립한 문불회는 상근 감정위원 12명(불교 공예 2명, 불교 조각 6명, 불교 회화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실상 상근직 절반이 불자인 셈이다. 실제 이들 중 안귀숙, 이숙희, 최선일 위원은 조계종 성보보존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이들 불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기본적으로 각 공항 · 항만 운항 스케줄을 바탕으로 근무가 이뤄지는 까닭에 시간이 되는 위원들이 모여 사찰, 박물관 등을 순례 · 답사하며 신행활동을 한다.

이숙희 문화재 감정위원(인천항 문화재감정관실)은 "불자회 회원들끼리 화상 회의를 하며 새로운 정보를 교류하고 공부도 한다"면서 "사찰에 가면 기본적으로 신행과 연구는 자연스럽게 함께 이뤄진다. 연구가 곧 수행이자 신행"이라고 말했다.

최선일 문화재 감정위원(인천공항 문화재감정관실)은 "각자 신행과 연구에 매진하면서도 굿월드 자선은행 등 봉사단체에 후원하는 보시행에도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화재 밀반출 막는 최후의 보루

문화재 감정관실은 우리 문화재가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막는 최종 방어 라인, 즉 '마지노선' 이다. 정확하게 '문화재적 가치' 가 있는 유물이나 미술 작품들을 감정해 반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이들의 임무다.

안귀숙 문화재 감정위원(김포공항 문화재감정관실)은 "50년 이상 전에 만들어진 작품과 유물의 문화재적 가치를 감정해 반출 여부를 판단하는 게 감정관실의 업무"라면서 "또한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력하고, 공항과 항만 검색 요원들을 교육해 문화재 지식을 배양하는 것도 감정위원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경화 문화재 감정위원(무안공항 문화재감정관실)은 "일반적으로 비문화재 확인 신청을 접수받아 감정한 뒤 반출 여부를 결정해준다"면서 "최근에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출국 3일 전까지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약감정을 받는 제도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발전함에 따라 공항과 항만이 커진 만큼 문화재 감정위원들의 임무도 방대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말 그대로 '불철주야(不撤晝夜)' 의 삶이다.

공항과 항만마다 차이가 있지만 모든 문화재 감정위원들은 기본적으로 첫 운항 스케줄 2시간 전에 출근을 완료해야 한다. 비행기와 배의 화물 반입 업무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24시간 3교대로 업무를 진행하고, 대구 · 청주 · 김포공항 등은 오전 5~6시에는 감정업무가 시작된다. 퇴근은 운항 스케줄 종료 30분 전이 돼야 가능하다. 하지만, 기상 악화 등으로 비행기와 배 운항이 지연될 때는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

이들 감정위원이 감정하는 건수는 하루 평균 30여 건. 많을 때에는 100~300건도 감정한다. 절대 만만한 업무량이 아니다. 그나마 남는 시간에는 감정위원으로서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 전공 분야 연구도 진행한다.

그럼에도 감정위원들은 문화재 유출을 막는 지킴이라는 자긍심으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귀숙 위원은 "계속 물류가 반입되기 때문에 감정위원은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 또한 실력도 계속 유지 · 향상시켜야 돼 전공 관련 연구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선일 위원 역시 "문화재 해외 유출을 막는 최전선에서 지키고 있다. 사명감이 없으면 절대 못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감정하다보면 별일 다 있네

인터뷰에 참가한 불자 감정위원 4인은 짧게는 8년에서 길게는 33년 경력의 소유자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에피소드 1~2건은 갖고 있다.

최선일 위원은 한 일본 유학생의 일화를 털어놨다. 일본의 한 대학의 대학원에 유학 중이던 학생이 자신의 집에 있던 18세기 백자 항아리를 일본 교수에게 선물하기 위해 이를 공항 문화재감정관실에 가지고 왔다. 하지만,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나 해외 반출이 금지됐다.

그는 "집에 있는 도자기를 일본인 교수에게 선물할 정도면 제법 부자였을 것"이라며 "문화재감정관실을 방문해 반출이 불허되면 다시 가지고 돌아가면 된다. 이 절차가 없이 검색대를 통과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B2면에 계속

INSIDE

B4 출판 깨달음의 재발견

B5 문화 불교계 봉축맞이 문화공연

B6 기획연재 고원영의 '저 절로 가는 길'

B7 가족이 함께 읽는 페이지 용수 스님 1분 명상



불상 내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을 바탕으로 도난 장소를 찾는 모습. 사진 제공= 문불회



전통기법 관련 현장 학습으로 오세종 개금장 작업실 견학한 모습. 사진 제공= 문불회

“불교미술은 운명… 사명감으로 일해요”

‘문불회’ B1면에서 계속

‘문불회’ 창립한 이유는

불교문화재 감정 능력 향상위해

2012년 창립… 사찰 · 박물관 답사

상임 감정위원 12명으로 구성돼

3명은 조계종 성보위원 활동도

도난 문화재 환수에 대해서

지난 30년간 도난 성보 17% 회수

한국 유통 막히자 해외로 눈 돌려

감정위원 역할 나날이 중요해져

인천공항서 근무하던 시절, 이숙희 위원은 실제 상습 문화재 밀반출 업자를 적발하는 성과를 냈다. 건국대 우체국 직원이 몇 년째 고서를 중국으로 국제특송(EMS)로 보내는 조선족을 수상히 여겨 인천국제공항 감정관실에 신고했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과 협조해 우편물을 검색해 검거했다. 조사를 하니 피의자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조선시대 고서적을 129차례 국제특송으로 중국으로 보냈고, 결국 법의 처벌을 받게 됐다.

감정위원들은 때로는 마치 첩보전을 방불케 하는 작전을 펼치기도 한다. 안귀숙 위원은 “어느 날 사무실에 오면 문틈으로 쪽지가 들어와 있다. 그럼 해당자를 기관에 알려 검색하도록 한다. 물론 가짜 제보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숙희 위원은 “유물과 미술품 등을 지속적으로 해외로 반출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 이들에 대한 제보가 오면 현행범으로 잡기 위해 검색대를 오가며, 검색요원들에게 사인을 보내 해당자를 강하게 검색하도록 유도한다”고 밝혔다.

불자, 불교미술 전공자, 사명

불자이면서 불교미술 전공자로서 감정위원이라는 직업을 가진 문불회 회원들은 지금의 삶을 운명처럼 받아들였다. 불자로서 미술사와 사학을 학부 전공했고, 자연스럽게 불교미술을 업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1982년 비상근 감정위원으로 시작, 1988년 공채로 상근 감정위원으로 임용돼 33년동안 활동하고 있는 안귀숙 위원은 “불교미술은 내 운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친할머니가 안양 삼막사의 큰 시주자였지만 가톨릭인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자 집안 가족들이 모두 영세교육을 받았다”면서 “미술사 전공이었던 나는 불교미술을 선택했고, 불자로 남았다. 이후 전국 사찰을 다니며 범종을 주제로 석사 논문을 썼다”고 술회했다.

이숙희 위원은 “누구나 그렇듯 집안이 불교였다. 사찰에 가는 게 좋았고, 법당에 들어서면 마음이 편해졌다”며 “대학에서 사학을 전공하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불교에 끌렸다”고 설명했다. 이숙희 위원 역시 비상근으로 시작해 상근 감정위원이 된 20년차 베테랑이다.

최선일 위원은 경영학을 전공하다 불교조각으로 전향했고, 12년 간 감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8년 경력의 이경화 위원 역시 “남아있는 우리 문화재 중 7할이 불교문화재다. 역사 전공자로서는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담담히 말했다.

도난 성보 환수에도 ‘한 몫’

문화재 감정위원들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도난 문화재에 대한 수사와 환수에 대한 협조다. 지난 3월 제자리로 돌아간 부여 무량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은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1971년 부여 무량사 5층석탑 해체 보수 중 아미타삼존불과 관음보살상이 발견돼 충남유형문화재로 지정됐으나 1989년 전부 도난당했다. 이후 3구는 2001년 절도범을 검거하면서 찾았지만, 1구는 행방이 묘연하던 것을 인천 송암미술관의 신고로 찾게 됐다.

이를 감정해 미술관 측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한 감정위원이 바로 최선일, 이숙희 위원이다. 이들은 박물관이 유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감정위원으로 참여해 해당 유물이 부여 무량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이며 도난 문화재임을 확인해줬다.

최선일 위원은 “미술관에 가서 문화재를 감정하는 데 무량사에서 도난된 금동불이 있어 깜짝 놀랐다”며 “미술관 측에 신고 · 반환할 것을 제안했고, 이를 잘 풀어냈다. 이런 일을 할 때마다 불자 감정위원으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빛나는 성보와 문화재들은 지금도 도난되고 있다. 문화재청과 조계종이 발간한 〈불교문화재 도난백서〉에 따르면 1985~2015년 동안 2만7650점이 도난됐고, 회수된 것은 4697점, 17%에 불과했다. 80%이상이 아직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했고, 성보가 가장 많이 도난됐던 시기가 1970년대임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숙희 위원은 “문화재 도난 범죄는 계속 이뤄지고 있다. 도난 문화재에 대한 공문이 계속 감정관실에 온다. 감정 위원들은 이를 숙지하고 있다가 도난 문화재가 해외로 나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역할을 한다”면서 “일부 사람들은 감정관실을 부정적으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감정관실이 없으면 도난 문화재들은 모두 국외로 유출됐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선일 위원 역시 “요즘에는 소더비와 같은 해외 유명 경매시장에 출품시켜 이를 구입하고 인증받아 선의취득의 근거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럴 경우 법적인 문제를 삼기가 어렵다. 우선적으로 도난 문화재를 국외로 못 나가도록 막는 게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앞으로 계획들을 묻는 마지막 질문에 문불회 회원들은 공직자이자 불교미술연구자로서 포부를 내놨다.

안귀숙 의원은 전문 분야인 불교 공예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글을 쓰겠다고 했으며, 도난 문화재에 관심이 많은 이숙희 위원은 “도난과 유통과정 분석 등을 파악하고 도난 문화재를 등급화해 도난 범죄 일소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이경화 위원은 “문화재 감정 폭이 넓어지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실력이 필요하다”며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문불회 회원에게 전문 감정과 연구는 곧 수행이다. 성보를 지키고, 찾으며, 바르게 전하는 일은 지난한 연구를 이룬 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향상일로(向上一路). ‘불교미술’이라는 진리의 외길을 문불회 회원들은 오늘도 걸어가고 있다.

글= 신성민 기자 · 사진= 노덕현 기자



문화재감정위원들이 공항, 항만의 보완요원들에게 문화재 교육을 하고있는 모습.

불자감정위원이 전하는 사전예약감정 Tip

1 사전예약 감정 신청

출국최소 3일전 작성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사진 첨부

2 신청서류 접수 및 처리



1.비문화재로 확인될 경우 — 반출 가능

국외반출 가능

출국 당일 문화재감정관실 방문 후 감정한 물품과 실물 확인작업 후 〈비문화재확인서〉수령, 스티커 부착



2.일반동산문화재로 확인되는 경우 — 불가능

국외반출 불가능



3.사진으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 재감정

추가자료 요구 또는 당일 재감정





연꽃향 국내산

연꽃향의 은은한 연꽃향이 번뇌로 복잡한 마음과 정신을 바로잡아 깨끗하고 맑은 기운으로 전해지길 바라봅니다. 연꽃향은 맑고 깨끗한 아침 연못의 고요한 연꽃향과 고급 목분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조합으로 지쳐있는 심신을 다스립니다.

[장, 단] 10,000원 (제조 : 국내산)
[대바라] 15,000원 (제조 : 국내산)

강화(사자발)약쑥향 국내산

강화도에서 심고 가꾸어 엄선한 사자발 약쑥으로 만든 완벽한 조합이 지쳐있는 심신을 다스립니다. 조연향당이 전하는 은은한 강화 사자발 약쑥향이 번뇌로 복잡한 마음과 정신을 바로잡아 깨끗하고 맑은 기운으로 넘칠 것입니다.

[장, 단] 10,000원 (제조 : 국내산)
[대바라] 15,000원 (제조 : 국내산)

향나무향 국내산

향나무향은 수백년 풍상을 견뎌낸 향나무를 구하여 본사에서 직접 분쇄하여 염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향입니다. 조연향당은 향나무향의 지속적인 연구로 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장, 단] 10,000원 (제조 : 국내산)
[대바라] 15,000원 (제조 : 국내산)

조연향당 조연향당은 국내향 제조 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이(SOY) 왁스 양초 미국산 LOTUD



로터스 양초 특징 :

①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②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식물성입니다.



법당에서 초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불교양초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 창 산 업 SHC 삼환종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수행 쉬운 길’ 안내한 칭명 염불 시조

김성우의 **念佛覺者 列傳**

⑧ 아미타불 칭명염불의 시조 담란 대사



“수행하기 쉬운 길(易行門)이란 부처님을 믿는 인연으로써 청정한 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하면 부처님의 원력을 입어 곧 저 청정한 국토에 왕생할 수 있음을 말한다. 부처님 원력에 의지하여 대승의 정정취(正定聚)에 들어간다. ‘정정’이란 곧 이 아비발치(不退轉地)를 말한다. 비유하면 물 위에서 배를 타면 즐거움이 있는 것과 같다. 이 무량수경 우바제사는 한 마디로 대승의 극치이며 뒤로 물러나지 않고 바람을 타고 항해하는 것이다.” -〈왕생론주(往生論註)〉

성불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 ‘이행문’

지난 회에서는 정토종의 초조인 혜원(慧遠, 334~416) 대사의 구도기를 소개하였다. 이번에는 정토종 조사 계보에는 빠져있지만, 정토종이 하나의 종파로 형성되는 데 기초를 다진 분으로, ‘아미타불 칭명염불’의 시조로 불리는 담란(曇鸞, 476~542) 대사의 정토사상과 행장을 알아볼까 한다.

위의 글 〈왕생론주〉 ‘서문’에서 보이듯 용수 보살의 이행문(易行門)설과 난행문(難行門)설에 기초하여 보다 쉬운 방법으로 중생을 정토, 즉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해주는 염불수행의 길을 본격적으로 안내한 선지식이 바로 담란 대사이다.

담란 대사는 천친(세친) 보살이 〈무량수경〉의 본 뜻에 맞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극락왕생의 원(願)을 세워 지은 게송인 〈무량수경우바제사원생게〉(왕생론)에 주석을 붙인 〈왕생론주〉를 통해 이렇게 자문자답하는 듯 하다.

“성불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아미타부처님의 본원력(本願力: 근본 원력)에 의지하여 업을 지닌 채 윤회계를 벗어난 정토에 왕생하여 불퇴전지에 올라, 무생법인(無生法忍)을 증득하는 염불수행이다.”

아미타불 원력의 배 타고 피안에 당도한다

그렇다면, 쉬운 길(불력수행)과 어려운 길(자력수행)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담란 대사는 〈왕생론주〉 서문에서 “보살이 불퇴전의 경지를 구하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다”면서, 난행도(難行道)와 이행도(易行道)를 설명하고 있다.

“난행도는 오탁의 세상에, 그리고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때에 불퇴전지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것이 어려운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첫째, 외도(外道)이니 보살의 법을 어지럽게 한다. 둘째, 성문(聲聞)이니 자신의 이익으로 대자비를 장애한다. 셋째, 무원악인(無願惡人)이니 다른 사람의 수승한 덕을 깨뜨린다. 넷째, 전도선과(顚到善果)이니 청정한 선행을 능히 파괴한다. 다섯째, 유시자력(唯是自力)이니 타력에 의지함이 없다. 이는 비유하자면 마치 육지에서 걸어가면 힘든 것과 같다.”

우리가 부처님 탄생지인 네팔의 룸비니로 가려할 때, 자력수행의 난행도가 걷거나 헤엄쳐서 가는 것이라면, 불력(佛力)수행인 이행도는 빠른 배나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과 같다.

“이행도는 말하자면, 단지 부처님을 믿는 인연(信佛因緣)으로 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원력에 힘입어 문득 저 청정토에 능히 왕생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하여 곧 대승 불퇴전의 대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왕생론주〉

염불하는 이 마음이 부처를 이룬다

대승불교의 아버지이자 선종을 비롯한 8종(宗)의 ‘할아버지 스승(祖師)’인 용수 보살이 〈십주비바사론〉에서 성불에 이르는 어려운 길과 쉬운 길을 이처럼 극명하게 설명했음에도, 구도자들은 왜 여전히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일까. 더구나 온갖 장애와 유혹이 더욱 치성한 오늘날 이 오탁악세에서 쉬운 길을 외면하는 것일까.

한국불교에 한정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정토법문을 ‘하근기나 하는 쉬운 수행’ 정도로 여기는 오해와 무지에서 비롯된 듯 하다. 하지만 불자들은 대승의 할아버지이자 선종의 제12 · 14대조사인 마명 · 용수 보살이 왜 정토법문을 선양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선종에서는 극소수의 도인들만이 확철대오하여 생사해탈하지만, 정토종에서는 시장의 할머니, 상인, 노예와 심지어는 살생을 업으로 하는 백정이나 반려동물들까지 윤회계를 벗어나 정토에 왕생한 사실이 〈왕생록〉이나 〈동물왕생불국기〉 등에 무수히 등장하는 것이다.

담란 대사를 비롯한 정토의 스승들이 〈관무량수경〉에서 주로 인용하는 “아미타부처님을 염하는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이며(是心是佛), 염불하는 이 마음이 부처를 이룬다(是心作佛)”는 법문을 깊이 참구하여 성불의 지름길을 찾아 보시길 바라마지 않는다.

팔만 대장경을 샅샅이 읽은 후 가장 빠른 성불의 길이 정토법문에 있음을 확인했다는 담란 대사 역시, 난행도를 걷다가 이 행도로 전향해 생사해탈한 선지식임을 상기해 보자.

참된 장생불사법은 정토법문에 있다

중국의 남북조시대인 서기 476년, 산시성(山西省) 안문(雁門)에서 태어난 담란 대사는 어려서 고향 근처인 오대산의 영험한 이적을 보고 발심 출가하여 반야학의 4론이라고 일컬어지는 〈중론(中論)〉 〈백론(百論)〉 〈십이문론(十二門論)〉 〈대지도론(大智度論)〉과 그밖에 불성에 관한 여러 학설을 공부했다.

대사는 뒤에 〈대집경(大集經)〉을 독송하며 깊은 뜻을 살펴 주석을 하고 있었는데, 작업을 절반쯤 했을 때 그만 감기 증세의 병에 걸려 의원을 찾아갔다. 그랬더니, 그 의원이 도교의 방술(方術)을 권하는 것이었다.

“사람의 목숨이 위급하여 하루저녁처럼 무상(無常)합니다. 내가 듣자니 신선술을 배우면 오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신선술을 먼저 배운 뒤 불교를 숭상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담란 대사는 강남으로 유명한 도사인 도은거(陶隱居)를 찾아가 〈선경(仙經)〉열 권을 받아가지고 기뻐하며 돌아오는 길에, 낙양에서 보리유지(菩提留支) 삼장 법사를 만났다.

담란 대사가 물었다. “불법 중에도 이 〈선경〉을 뛰어넘는 장생불사법이 있습니까?”

보리유지 법사가 대답했다. “북방에도 장생불사법이 있는가? 설사 있다 한들 잠시 죽지 않더라도 결국에 윤회하게 되는데, 뭐 그리 귀한 법인가? 참된 장생불사법은 우리 불교라네.”

양무제 “담란 법사는 육신보살이다” 찬탄

보리유지 법사는 정토삼부경의 하나인 〈관무량수경〉을 주면서 “여기에 의지하면 삼계에 다시 태어나지 않고, 육도를 윤회하지 않아서 텅 비어 쉬게 되며, 화복과 성패가 없는 것을 수명으로 한다. 강변의 모래 만큼의 겁(劫)으로도 무한한 수명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우리 부처님의 장생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담란 대사는 크게 기뻐서 〈선경〉을 불태운 다음 정토에 전념하여 〈예정토〉 12수를 짓고, 〈안양집〉 두 권을 저술했다. 위(魏)나라 왕이 담란 대사를 높이 받들어 ‘신란(神鸞)’이라는 법호를 하사했으며, 칙명으로 병주의 대암사(大巖寺)에 머무르게 하였다.

염불수행으로 득력한 담란 대사에게는 신비한 이적(異蹟)이 많았다고 전한다. 남조(南朝)의 양무제(梁武帝)를 만난 뒤 북쪽으로 돌아가자 양무제는 수시로 북쪽을 향해 머리를 조아려 절하며, “담란 법사는 육신보살이다”라고 찬탄했다고 전한다.

극락정토에서 온 용수보살 친견하고 왕생

대사는 만년에 분주의 현중사(玄中寺)에서 주석했다. 또한 개산의 북쪽으로 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염불수행을 했으며, 동위(東魏)의 흥화4년(542)에 평주의 요산사(遙山寺)에서 67세의 나이로 왕생하였다.

어느날 저녁, 성스러운 인도 승려가 나타나서 “나는 용수(龍樹)라네. 오랫동안 정토에 머물다가 그대의 뜻이 나와 같기에 만나러 왔다”며 다음과 같은 게송을 일러주고 사라지는 것이었다.

“한번 떨어진 나뭇잎은 다시 가지에 붙지 못하고/ 다발을 묶지도 않은 수수를 창고 안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이며/ 날아가는 흰 갈매기는 잠시도 머물지 아니하나니/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를 쫓아갈 수도 없는 것이며/ 현재는 또한 이제 어느 곳에 있으리오.”

담란 대사는 때가 되었음을 알고 대중을 모아놓고 당부했다.

“인생이란 괴롭고 괴로움이 그칠 날이 없다. 지옥의 여러 고통을 두렵게 생각하고, 구품정업(九品淨業)을 닦도록 하라.”

제자들이 소리 높여 염불하자 대사는 서쪽을 향해 예배하고 입적하였다. 절에 머물던 모든 사람들은 꽃으로 장식한 깃발들이 서쪽에서 오는 것을 보았고, 하늘의 음악이 오랫동안 울려퍼지는 것을 들었다고 〈속고승전〉 등에 전한다.

대승의 염불심 살아나야 불교중흥 가능

정토종 초조 혜원 대사의 사후 150여년 뒤에 활동한 담란 대사는 정토법문을 사회전반에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아미타불’의 명호를 염하는 관행은 그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인물로는 일본 정토진종의 개조 신란(親鸞)을 들 수 있다.

정토종이 중국과 일본에서 선종과 쌍벽을 이루며 발전해온 반면, 신라 · 고려시대에 성행하던 염불수행이 극도로 폄하되고 정토관련 서적마저 흔치 않은 오늘날. 대승불교의 위대한 선지식들이 고구정녕 선양했던 정토법문을 참구하여 누구나 노는 입에 염불하는 시절이 올 때, 비로소 불자들의 신심이 살아나 한국불교의 중흥을 기약할 수 있으리라.



대문 밖이 저승이니, 불자님들은 언제 어느 때나 ‘나무아미타불’을 염하여 생사해탈의 든든한 양식(資糧)을 삼으시길 간절히 기원드린다. 나무아미타불!

김성우(도서출판비움과소통 대표)



정과사에 모셔진 담란대사의 육신사리(肉身舍利 • 등신불)를 묘사한 삽화. 그림 · 김홍인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4.5~2017.4.1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당신은무엇을먹고사십니까	선재 스님	불광출판사
2	성철평전	김택근	모과나무
3	너는이미기적이다	틱낫한/이현주	불광출판사
4	수구즉득다라니	석법성	운주사
5	정신과 의사의 체험으로 보는 사마타와 위빠사나	전현수	불광출판사
6	완벽하지않은것들에대한사랑	혜민	수오서재
7	붓다컬러링(손끝으로 만드는 마음속평화)	매튜스미스	㈜조계종출판사
8	사찰불화명작강의	강소연	불광출판사
9	대방광불화엄경강설52(여래출현품3)	무비	담앤북스
10	내안에삶의나침반이있다	법상/용정운	아름다운인연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깨달음이란?… 맹목적 버릇을 멈추는 것

깨달음의 재발견

우오가와 유지 지음 | 이광준 옮김
조계종출판사 펴냄 | 1만 5천원



우리가 명상과 불교를 수행하는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

착하게 살기 위해서, 혹은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인간으로서 바르게 사는 길을 찾기 위해서 등등. 사람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이러한 답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불교의 개조(開祖)인 고따마 붓다에게 불교 수행은 그런 게 아니었다. 붓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수행 목적은 '해탈(解脫)'이며 또한 그것을 달성한 경지인 '열반(涅槃)'이었다. 통상 '깨달음'이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유달리 명상 '효과'들이 강조되면서 불교 수행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달성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담론은 먼 나라 이야기다. 심지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불교는 자기계발이나 처세에 동원된다. 나름의 이유는 있겠지만 본래 목적인 깨달음이라는 목표와는 분명 궤를 달리한다. 그러나 저자가 말하듯 애당초 '과학성'과 '합리성'을 바란다면 불교 관련 책보다는 자연과학 책을 읽게 되고, '처세술'을 알고 싶다면 2,500년 전의 인도인이 현대인 상황에 딱 맞게 말하는 자기계발서를 읽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는 빨리어 경전과 아함경전 등 비교적 초기에 쓰였다고 전해진 경전들서 그 깨달음의 전제와 과정 그리고 그 경지에 대한 단초들을 찾아내고, 또한 현대 실천자들의 증언부터 유추해 그 대강을 찾아간다. 그렇다면 저자가 말하는 깨달음은 무엇일까? 저자는 한마디로 "중생이 자신의 버릇 때문에 맹목적으로 계속하는 행위를 끊는 것이다"고 정의한다. 불교에서는 전통적으로 마음에 번뇌가 있어서 더렵혀진 상태를 '유루(有漏)'라 불렀는데 이런 루의 영향 아래 있는 중생의 행동 양식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나쁜 버릇'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습관적이고 맹목적인 행위로서 '이건 나쁜 짓이다. 무의미한 일이다'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정신이 들면 어느새 또 저지르고 마는 행위이다. 불교에서 '수행'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머리로는 제대로 이치를 깨달았다고 해도 습관적인 행위를 끊을 수가 없는 한 달성됐다고 말할 수 없는 게 '깨달음'이라는 것의 성질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깨달음'을 지향한다는 것을 현상의 측면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맹목적이고 습관적인 행위, 즉 버릇(漏)과 비슷한 것, 번뇌를 영원히 정지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간단히 설명하면 '중생이 버릇에 의해서 맹목적으로 행위를 계속하는 상태'가 '미혹(迷)'이고, '이것이 끊어진 상태'가 '깨달음'이다. 특히 남방불교서 강조하고, 최근 대승의 승려들도 채용해서 흔히 사용하는 '마음챙김(sati)'이 이를 위한 실천이다.

깨달음, 일반인 눈높이서 설명
경전서 깨달음 경지 단초 찾아

그렇다면 왜 일본서 이 책 때문에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을까? 이 책은 깨달음의 정의와 깨달음에 도달했을 때의 상태를 일반인 눈높이서 하나하나 설명한다. 특히 깨달음을 설명하기 위해 무상, 고, 무아라는 테마서 시작해 연기까지 이어지는 저자의 설명은 이의가 있을 수 없어 보인다. 그 명징한 설명으로 이 책은 일본 불교학계서 일가를 이뤘다는 수많은 학자들로부터 추천사를 받았다. 하지만 깨달음에 대해 다양한 견지를 갖는 일본 학계는 들썩였다. 심지어 논쟁은 물론 이 책을 비판하는 단행본까지 쏟아졌다. 저자가 던진 도발적인 질문 혹은 신선한 논쟁 중에 수행자와 학계가 가장 불편해 했던 것은 다음과 같은 대목이다.

△붓다는 깨달은 다음에 왜 죽지 않았나?=이 도발적 질문을 던진 후 저자는 "진리를 체득한 다음에 하는 모든 '행위'는 순수한 '유희'임을 고려해야 한다며 붓다의 이타행은 '선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자는 부처님 말씀은 오히려 사회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노동과 생식을 부정하고, 애초부터 그 전제가 되는 '인간'이라든가 '올바르다'든가 하는 이야기들을 파괴하는 작용을 한다고 봤다. 그래서 불교는 반선악(反善惡)이 아니라 탈선악(脫善惡)이라는 주장이다. 〈제 3장 탈선악의 윤리〉

반면 불교를 말하면서 아직도 윤회를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논증, 무아이기 때문에 윤회한다는 논지와 증명은 불교를 더 불교답게 했다는 높은 평가를 일본 최고의 불교 학자들로부터 받았다. 물론 아직도 윤회를 부정하는 일부 학자들과 윤회의 주체가 없을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비판거리가 되기도 했다.

저자는 현재 일본 불교학계서 가장 주목 받는 '젊은 피'다. 아직 마흔도 안 된 젊은 나이라는 것 외에도 학계와 수행자 사이에 여전히 만연한 윤회 부정과 윤회의 주체를 설정하는 문제에 대해 과감히 지적한다. 이 비판에는 일본 불교학계의 거장인 나카무라 하지메(비아설)나 와츠지 테츠로(윤회와 불교 세계관의 분리) 등도 포함돼 있다.

저자는 이런 거장들의 불교 논지 전개가 경전서 자신이 필요한 부분만 솎아 내거나 때론 '절대로 얼버무리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애써 무시하는 태도라도 통렬히 비판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명상으로 인격이 좋아지지 않는다'거나 '불교는 착하게 살기 위한 가르침이 아니다' '붓다가 깨달은 후 바로 열반에 들지 않고 법을 설했던 것은 유희다'라는 등의 도발적인 주장과 논지가 합쳐져 그 '젊은 피'는 논쟁의 한가운데 서고 말았다. 하지만 '깨달음'이라는 불교의 애초 목적을 찾아가는 그의 여정은 어쩌면 '나의 가르침은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한 붓다의 태도와 일맥상통하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우오가와 유지**는?
도쿄대 문학부서 서양철학을 전공했고 같은 대학서 인도철학과 불교학을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마쳤다. 2009년 미얀마로 건너가 현재까지 테라와다 불교의 교리를 배우고 수행하면서 불교, 가치, 자유 등을 주제로 한 연구를 진행한다. 2015년 첫 선을 보인 이 책(원제 〈불교 사상의 제로포인트〉)은 일본서 깨달음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촉발시키며 단숨에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주어진 시간에 주저 말고 흠뻑 사랑하자"

우리가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일초 스님 지음 | 민족사 펴냄 | 1만 4500원



동학사 승가대학서 40여 년 동안 후학을 양성하는 일초 스님과 학인들이 주고받은 편지글을 모은 책이다. 편지에는 스님들의 일상뿐만 아니라 사유체계, 가치관, 숨기고 싶은 감정과 인간관계, 그 시대의 사회상까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게다가 이 책은 동학사 일초 스님과 비구니 스님들의 편지라는 데서도 알 수 있듯 수행의 길을 걷는 비구니 스님들의 편지이다. 그것만으로도 책장을 들추기 전부터 가슴 설렌다. 첫 줄을 읽는 그 순간 마음은 초록색 힐링이 될 것 같다.

책 속에 소개된 편지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마음을 나누고, 사유하고, 진리의 길을 걷는 비구니 스님들이 그 마음을 어디로 향하는지,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주 생생히 묘사됐다. 비구니스님들은 서로 어떤 내용의 편지를 주고 받을까?

〈우리가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란 이 책 제목은 일초 스님의 시, '내가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서 비롯됐다. 74세에 쓴 이 시에서 스님은 세상 모든 것이 사랑임을, 사랑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역설한다.

"남을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가 넘칠 때 남을 칭찬하고 기뻐하는 소리를 더 많이 해서 기쁨이 가득한 세상을 발원해야 합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질시보다는 연민의 정을 가진 보살의 마음이 그리운 때입니다. 나에게 힘이 있다면 더러운 오물이라도 묻어주고 덮어주는 흙의 힘으로 다시 그것이 자양분이 되어 또 다른 것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늘 수 있도록 수행자가 앞장서서 기도 발원하고 보살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일초 스님은 제자스님들로부터 연하장을 받은 새해 새아침에 위와 같은 내용의 편지로 답장해 주었다. 잘못한 사람에게 연민의 정을 가질 수 있는 보살의 마음을 일깨워주고 수행자가 앞장서서 자비행의 릴레이를 하라고 답장해 주는 모습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된다.

또한 1988년 어느 날 한 학인 스님이 보낸 편지에서는 그 무렵 불교계에 발생한 불미스런 일을 떠올리게 한다. '봉은사 사태'가 신도뿐만 아니라 스님들에게도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알게 되면서 숙연해지기까지 한다.

"이러한 설움의 빛깔들이 밀려올 때면 그래도 희망처럼 솟아오르는 스님을 떠올립니다. 어떠한 말로도 그릴 수 없는 스님의 영혼의 강기슭에 묵묵히 침묵보다 진하게 손 흔들고 계신 스님을 바라봅니다. 영혼의 몸살을 앓는 우리들에게 슬픔을 이겨낸 뒤 더욱 아름답고 지고한 순정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시대의 스님의 삶의 지표 속에서 용기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면서 일초 스님으로부터 희망을 찾고 새로운 용기를 발견했다는 학인 스님의 편지를 대하면서 독자들 또한 그동안의 가슴앓이를 속 시원히 풀어낸다.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됐다. 1장에는 우리나라 비구니 강백 중 으뜸으로 손꼽히는 일초 스님의 삶과 고뇌를 진솔하게 담은 편지와 일초 스님의 시가 들었다. 2장에는 도반인 서림 스님의 구체적인 일상생활, 삶의 민낯을 생생하게 드러낸 편지, 3장에는 일초 스님께 지도받은 수많은 제자들의 각양각색의 사연을 품고 있는 편지, 4장에는 일초 스님께 위로받고 싶은 세상 사람들의 고달픈 삶의 애환을 담고 있는 편지가 담겨 있다.

질병, 늙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괴로움 등 삶에 대해 고민하며 서로 마음을 나누는 비구니 스님들의 편지를 읽다보면 스님들도 우리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이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의 근본 고통 속에 흔들리는 존재임을 알게 된다.

아울러 신비하게, 멀게만 느껴졌던 스님들과 한결 가까워진 자신을 느끼게 된다. 스님들도 우리처럼 세상사에 대한 걱정을 하고, 감기, 관절염 따위의 갖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보고 싶어 하고,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괴로움에 번민하는 등 삶의 굽이굽이마다 고민하는 평범한 인간이라는 것을 엿보면서 마음 깊이 공감하게 된다.

김주일 기자

책속의 밑줄 긋기

▲"설움의 빛깔들이 밀려올 때면 그래도 희망처럼 솟아오르는 스님을 떠올립니다. 어떠한 말로도 그릴 수 없는 스님의 영혼의 강기슭에 묵묵히 침묵보다 진하게 손 흔들고 계신 스님을 바라봅니다. 영혼의 몸살을 앓는 우리들에게 슬픔을 이겨낸 뒤 더욱 아름답고 지고한 순정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시대의 스님의 삶의 지표 속에서 용기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진정한 출가는 어떤 것인가?'하는 생각이 이제야 솟구치고 있으니 가끔은 저는 세상을 거꾸로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는 이전에 모두 끝내고 왔어야 하는데, 그 무거운 무게의 짐을 이곳까지 떠메고 왔으니 왜 그렇게 사람이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릇은 작은데 너무 많은 걸 담으려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름다운 계절, 봄입니다. 왜 이렇게 봄은 해가 갈수록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지요. 지금은 붉은 영산홍·철쭉의 꽃잔치가 자못 흥겹고, 파릇한 나뭇잎들의 아름다움도 견줄 수 없을 만큼 황홀합니다.

산하대지가 모여 축제를 합니다. 그 중에 오직 사람만이 축제에 내 놓을 것 없이 남의 축제에 기웃거리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 몇 자 적어보았어요."

피가 돌고 맥박이 뛰는 살아 있는 깨달음, "아리랑" 속에 그 길이 있습니다



깨침 아리랑

우리 민족은 지구촌 어느 곳에 둥지를 틀고 살아가든지 아리랑 노래만 나오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고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리랑에는 우리 민족만의 고유독특한 한(恨)이 서려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 아리랑 가사 속에 스며 있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 민족의 한과 정서가 깃든 아리랑의 유래를 알아보는 일은, 한맺힌 아리랑 노래를 "깨침의 노래"로 승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저자 대현 스님

1968년 백양사로 출가, 강진 백련사에서 南山正日 선사를 은사로 득도하셨다. 1975년 인천 용화사 법보선원에서 안거 후 제방선원에서 50안거를 성만하신 스님은, 간화선이야말로 깨달음에 이르는 지름길인 것이 분명하지만, 깎아지른 바위산을 단박에 오르는 것과도 같아서 상근기에 적합한 수행법이라는 생각을 품고 계시던 중 '위빠사나'를 만난 이후 이를 간화선에 접목, 수행의 바르고 빠른 길로서 "위빠간화선"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지금은 지리산 정각사 죽림선원에서 정진중이시다.
저서로는 『선승의 길』, 『선을 배우는 길』, 『위빠간화선』이 있다.

* 대현 지음 / 264쪽 / 값 15,000원

"나"를 떠나서는 십리도 못 가 발병 나리니
여보게들, 제발 제발
이 "나"를 속살 깊이 연구하여 보세나.
길은 안으로 안으로 놓여져 있다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위빠간화선

* 대현 지음 / 160쪽 / 값 12,000원

위빠간화선

위빠사나와 간화선을 하나로 통합한 "선수행의 길라잡이"

늘 깨어 있어 알아차리면서 "이 뭣고?" 하고 화두를 챙기는 것이, 위빠사나 수행과 간화선 수행의 장점을 잘 살린 "위빠간화선"이다. 한 공간에 어둠과 빛이 공존하지 못하듯, 처음 위빠간화선을 시작하는 사람은 들떠 요동치는 업식을 잠재우는 시간이 길지만, 수행을 열심히 하다보면 위빠사나의 알아차림이 짧아지고 화두 드는 시간이 길어진다. 이렇게 열심히 수행을 하다보면 화두 의단이 독로하여 앉고 서고 가고 오고 말할 때 한결같게 된다.



한영대역판

그림과 함께 읽는
석가모니 붓다의 생애

* 기획 및 감수 ‖ 대현 스님
* 240쪽 / 컬러 / 값 12,000원

가장 행복한 나눔—
"부처님의 생애"를 선물하는 일입니다

천지를 운행하는 거대한 섭리를 향해 던진 큰 물음표가 있었기에, 그리고 해답을 얻고야 말겠다는 구도에의 열정이 있었기에 부처님은 세상의 그 누구도 얻지 못한 큰 깨달음으로 세상에 빛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 안에서 진정한 쉴 곳을 찾았고, 구원을 얻었으며, 삶과 자연과 자기 자신의 가치에 눈을 떴습니다. 부처님의 생애가 주는 감동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진정으로 먹어야 할 영적인 양식이 아닐까요! —대현 스님 ("선승의 길"의 저자)

석탄일 법보시용
산청 정각사에서 정가의 50%를 지원합니다
문의 010-9772-4588
055) 972-1109

올리브나무 전화 070-8274-1226, 010-7755-2261 팩스 031-629-6983 이메일 yoyoyi91@naver.com

봉축 환희, 불교무용·찬불가 등 예술로 장엄

부처님오신날 D-21, 불교예술계 봉축 맞이 공연 '다채'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불교문화계는 벌써부터 봉축 맞이에 한창이다. 불교 무용부터 찬불가, 미술 전시 등 불자들의 문화 감수성을 일깨울 다채로운 공연이 마련된다.

전통무용에서, 발레, 현대무용, 창작무용에 이르기까지 전 장르를 망라한 제3회 불교무용대전이 열린다. 전국 15개 단체가 참여해 4월 7~30일 한 달간 불교무용 대축제를 펼친다. 1~4주차 공연으로 구성되며, 1주차당 4-5팀이 무대를 선보인다. 1주차인 4월 7~9일에만 유선후 씨의 '월하(月下)-지장보살의 사랑'이 단독공연으로 진행됐다.

이밖에 △2주차(14~16일) 김진희 '공무화(空無花)', 최우석 '빛으로 가는 길', 장인숙 '공(空)', 연풍예술단 '연화무' △3주차(21~23일) 마묵무용단 '잡감', 배소연 '승무', 고경희 '천지-蓮', 성소영 '인연(人煙)', 강정일 '....넘어서' △4주차(28~30일) 이해원 '아(我)', 김진희 '空...밤의 소리', 송민숙 '죽비춤', 권효원 '사고', 오은희 '연화경승무' 공연으로 이어진다.

본격 공연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는 기념쇼케이스 및 간담회를 4월 5일 개최했다. 이날 쇼케이스에선 유선후의 '월하-지장보살의 사랑', 마묵무용단의 '잡감', 배소연의 '승무', 송민숙의 '죽비춤'이 대표 시연됐다.

'월하-지장보살의 사랑'은 속초 보광사의 지장보살상에 얽힌 지고지순한 남녀의 사랑을 모티브로 창작된 작품으로, 지장보살상 복장물에서 발견된 조선 전기 환관 나업과 그의 아내 한씨 부인의 사랑을 다룬다. 이 작품은 무용과 함께 진행되는 드로잉쇼를 비롯해 두 배우의 처절한 연기력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40분 간 펼쳐지는 한 편의 드라마와 같다. 이번 불교무용대전을 통해 초연돼 더욱 주목받고 있다.

제3회 불교무용대전
한 달간 15개 팀 공연
전통무용, 발레, 창작무용 등

불교음악원 '찬불콘서트'
4월 20일 국립극장서
최수정, 국악인 박애리 등 출연

국박, 고성 옥천사 괘불전
4월 25일~10월 22일까지
옥천사 괘불 등 4점 전시

마묵무용단의 '잡감' 또한 두 사람이 합을 이루며 신체의 아름다움의 극치를 선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다. 두 사람은 템포의 강약에 따라 부드러우면서도 절제된 동작을 표현한다. 마치 한 몸이 된 듯, 잡감(雜感) 속 희노애락을 겪는 중생의 모습을 표현해내는 두 사람의 연기는 관객을 압도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송민숙의 '죽비춤'은 개인창작 공연으로, 송민숙 씨는 '탁 탁 탁' 정적을 깨는 죽비 소리에 따라 자신의 몸과 마음이 일치되는 찰나를 몸으로 표현한다. 배소연의 '승무'는 흰 저고리의 소매자락부터 버선코까지 하나로 연결돼 물처럼 흐르는 듯한 동작이 돋보인다.

무용대전의 주관을 맡은 이철진 구슬주머니 대표는 "이번 대전에는 불교 초심자들의 참여가 돋보여 매우 고무적"이라며 "불교무용은 다른 분야에 비해 조금 늦게 출발했다. 앞으로는 기존 분야에서 저변을 넓혀 경전 자체의 무용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조계종 불교음악원(원장 정현)은 '부처님오신날 봉축음악회 찬불콘서트'를 4월 20일 오후 8시 국립극장 KB하늘극장서 개최한다. 1960년부터 2010년까지 각 시대를 찬란히 비춘 찬불가 명곡들의 향연이 이어진다.

조계종이 주최하고 불교음악원이 주관하는 이번 공연에선 전통악기서부터 서양악기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형식의 찬불가가 울려 퍼질 예정이다. 김회경 불교음악원 음악감독이 직접 지휘하고, 봉은국악합주단, 스트링 및 브라스, 퍼쿠션 연주자들이 함께 무대를 꾸민다. 또한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12잡가) 이수자 최수정, 국악인 박애리, 베이스바리톤 박경태, 대중가수 김길중 · 송동규 · 쏘이 등 여러 불자가수들도 출연한다.

이밖에 조계사혼성합창단, 봉은사어머니합창단, 도선사어머니합창단, 호압사합창단, 로터스합창단, 불교음악원혼성합창단 등 약 170여 합창단원이 참여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19세기 전반 경남 지역 괘불의 신앙과 특성을 조명하는 '고성 옥천사 괘불전'을 4월 25일~10월 22일 진행한다. 순조 8년(1808년) 제작된 견본채색 대형불과 옥천사 괘불(경남유형문화재 제299호)을 비롯한 4점을 전시한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다채로운 불교문화 공연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왼쪽부터 제3회 불교무용대전에 참여한 배소연의 '승무', 불교음악원 '찬불콘서트'에 출연할 국악인 박애리,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될 고성 옥천사 괘불.

아크릴로 표현한 불교선화의 극치

정현 스님, 나무갤러리서 '판치생모 전(展)'

어딘가 투박하면서도 섬세하다. 색채는 강렬하지만 오밀조밀 모인 물고기와 머리가 두 개 달린 새 공명조, 불상들이 어느 하나 어긋남 없이 조화를 이룬다. 정현 스님의 아크릴 채색 신작들 '판치생모' 시리즈다.

정현 스님은 선화(禪畵) '판치생모 전(展)'을 4월 17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나무갤러리 1층서 연다.

이번 전시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종이에 수묵으로 채색했던 기존 작품들과 달리 캔버스에 아크릴을 이용해 더 강렬하고 묵직한 느낌을 뽐낸다. 또한 수덕사 소림초당의 모습과 수덕사 건너편 오봉산의 아홉 봉우리, 한여름 지리산의 모습 등 정현 스님이 수행과 작업에 몰두하던 때의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번 전시에 대해 한국화가 양태석 씨는 "정현 스님의 그림은 누구에게 사사해서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아니다. 스스로 그리면서 깨달음을 얻어 새 경지를 개척하는 정신주의 회화방법이기 때문"이라면서 "스님의 그림은 주로 연꽃과 물고기, 보살상, 무지개(후광), 쌍두 공명조 등 불교적인 소재를 택하고 있다. 비교적 단순한 소재를 이용해 무거운 주제를 소화하는 것은 선적인 경지에 이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평했다.

정현 스님은 1957년 부산 동래 범어사에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남원 실상사 · 수원 용주사 주지를 역임한 바 있다. '날마다 좋은날'을 주제로 다수의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다.



板齒生毛, 45.5×37.9cm, Acrylic on canvas, 2016

박아름 기자

슈퍼붓다 등 '재기발랄' 불교 미술

법련사 불일미술관, 2017 신진작가 공모전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법련사 불일미술관의 신진작가 공모전이 폭넓은 작품 주제와 다양한 출신의 작가들로 더욱 참신해졌다.

법련사 불일미술관은 2017 신진작가 공모전을 5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한다. 올해는 국내외서 74명의 작가가 지원, 그 중 작품성과 창작성을 고려해 개인 및 단체 11팀을 선정했다. 당초 7명의 작가를 선발해 월 1회 릴레이 전시를 열 계획이었으나, 10대1이 넘는 경쟁률로 인원을 추가 선발하게 됐다.

올해 신진작가 공모전은 지난해에 비해 다양한 출신학교의 작가들이 지원했으며, 불교를 폭넓게 해석하는 작품이 다채롭게 선정됐다.

전시 일정은 △회화, 김일중 '믿는다는 것'(5월 2~14일) △복합, 박승희 외 2명 '동작 반복'(6월 6~19일) △회화, 박신유 외 4명 '느리고 흐린'(7월 11~24일) △북아트 및 사진, 프로젝트 엠 '숨 그리고 쉼'(8월 3~16일) △옻칠회화, 정상엽 '상엽옻칠화전'(8월 11~23일) △풍속화, 최은숙 '공존하는 공간'(9월 1~14일) △금속공예, 김연희 '부처님의 방'(9월 28일~10월 10일) △회화, 김태연 '천지간(天地間)'(9월 30일~10월 13일) △복합, 오숙진 외 'Manada_La 명상의 시간'(10월 31일~11월 13일) 외에 기성 작가들의 특별전으로 △회화, 박은신 '초라하고, 불멸하는'(11월 15~28일) △복합, 왕지원 외 3명 '동사로 그린 예술' 등이 열린다.

작가들에겐 전시 공간과 홍보 인쇄물이 무료로 지원된다.



김태연, Super Buddha 31×18cm 나무, 먹 2014

박아름 기자





도선 국사가 세운 불국토…
수도암 포근히 감싼 불령산

저 절로 가는 길
⑧ 수도암서 청암사 가는 길

불령산 정상에서 크고 작은 숱한 산들이 포개져 그려낸 마루금을 바라보는 도반의 모습이 여유롭다. 산 아래에는 마치 극장 스크린이 펼쳐지듯 시원스럽게 산맥이 눈앞에 들어온다.



'창(건)주 도선국사'가 쓰여진 수도암 석주.



수도암 대적광전 오르는 계단.



법전대에 올라 수도암을 바라보는 원인 스님.

- 걷는길 : 수도암 – 신선대 – 불령산 정상 – 신선대 – 청암사
- 거리와 시간 : 6km, 3시간 정도

"오늘 억수로 추운데이. 여는 산골이라 이래 추버요. 그나저나 수도암 만디는 눈이 안 왔능가 몰라."

장뜰이라 부르고, 장평이라고도 부르는 산 아래 시골마을에서 할머니가 나를 걱정한다. 산 위에 있는 수도암으로 간다니까 쯧쯧 혀를 찬다. 그러다 손을 휘저어 차를 부른다. 스피커를 머리에 단 1톤 트럭이 마을 앞을 지나다 멈춰 섰다.

"야야, 이분 태워라. 수도암에 간다카이."

산림청 하부기관에 속한 트럭인지 옆구리에 '산불방지'라고 쓰여 있었다. 기사는 장뜰마을 사람으로 마침 수도암 신자라고 했다. 덕분에 마을에서 수도암에 이르는 7km 시멘트 찻길을 두 발로 오르는 수고를 면할 수 있었다. 가파른 길이라 차가 들려서 가는 기분이었다. 게다가 구불구불해서 어지럽기도 했다.

"거는 사진 찍을라꼬 가는 겁니꺼?"

기사가 내 목에 걸린 카메라를 힐끗 바라본다. 나는 짐짓 고개를 주억거렸으나 속으론 딴말을 중얼거렸다. 춤추러 가는 거지. 만일 내가 절에 춤추러 간단 말을 입 밖에 냈다간 기사가 브레이크를 쿡 밟을지도 몰랐다.

수도암에서 가까운 수도리란 마을에 이르자 기사는 차 유리창을 내려 이런저런 사람과 아는 체를 했다. 수도리를 벗어나자 지금보다 더 가파른 오르막길이었다. 기사가 이를 앙다물어 비탈길을 올랐다.

그 옛날 도선 국사는 목적지도 정하지 않고 불령산에 올랐다. 바위투성이 계곡을 지나 여러 능선을 오르내리다가 문득 야릇한 기운을 감지했다. 딱히 어디랄 것도 없이 상서로운 기운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그러길 두식경, 다시 능선을 넘어서는데 갑자기 눈앞이 탁 트였다. 휘황한 세상이었다. 아, 저곳이구나! 도선은 한눈에 길지임을 알아 차렸다. 꿈에서도 찾아 헤맸던 명당이었다. 도선은 어린애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다.

수도암. 도를 닦거나 깨우치는 데는 1,050m 높이가 필요했다. 수도산이라고도 부르는 불령산이 1,360m니까 8부 능선에 위치하는 까닭이다. 풍수의 원조 도선은 이 높은 곳에서 천하명당을 찾아냈다.

올라와 보니 4월의 햇살이 그득히 내려앉아 있었다. 장뜰마을 할머니가 궁금해 했던 수도암은 기이하게도 아랫마을보다 따듯했다. 응달진 요사채 골기와에 녹지 않은 눈이 더러 남아있었지만, 그조차도 왠지 포근해 보였다. 과연! 나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다. 풍수에 문외한이지만 햇볕이 두루 충만한 이곳이 예사로운 터는 아님을 직감했다. 수도암에 얽힌 도선의 이야기가 더 있을지 궁금했다. 종무소에 들렀으나 스님들이 선방에 가고 안 계시다고 했다. 관음전에서 대적광전으로 오르는 계단을 밟아 올랐다. 오를수록 조망이 넓어진다. 대적광전 앞에 이르러 등을 돌렸다. 첩첩한 산 너머로 희미하게 가야산 상왕봉이 보였다. 불가에선 그 봉우리를 연화봉이라 부르는데 내 눈에도 그렇게 보였다. 주변을 살피자 대적광전과 약광전 앞에 각각 1기의 통일신라 삼층석탑 우뚝 서 있고, 그 사이에 창주도선국사비와 석등이 놓여 있었다.

풍수가에서는 수도암 터를 옥녀가 비단을 짜는 형상이라 부른다. 멀리 보이는 가야산 상봉은 실을 거는 끌게돌이고, 대적광전과 약광전 앞 삼층석탑은 베틀의 두 기둥이며, 대적광전 자리에 옥녀가 앉아서 베를 짜는 자리라는 것이다. 막상 대적광전에 들어가 보니 옥녀 대신 통일신라 석조비로자나불이 앉아 있었다. 법당이 꽉 차는 거불이었다. 약광전에도 돌부처가 앉아 있었는데, 고려시대 약사여래좌상이었다. 수도암이 명당임을 입증하듯 석탑 두 기와 두 석불이 모두 보물급 문화재였다.

종무소에서 전화가 왔다. 선원장 원인 스님이 나를 찾는다는 것이었다. 나는 원인 스님에 대해 조금 들은 얘기가 있다. 해인총림의 선통을 이어받은 선승으로, 무문관을 자청하여 3년 동안 외부와 단절하고 묵언으로 정진했던 우리 시대의 도인. 그는 또 종정을 지냈던 법전 스님의 상좌이다.

"도선 스님 얘기를 듣겠다고 했다면서요. 보여줄 곳이 있어서요."

스님이 앞장서 관음전 옆으로 난 좁을 길을 걸었다. 다리를 건너 나한전에 이르렀는데, 거기서부터 숲길이 나 있었다. 원인 스님은 숲길의 끝, '법전대'라 부르는 바위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었다.

"여기서 법전 스님이 불령산과 가야산을 향한 자세로 좌선하시곤 했어요. 이 바위로 올라오시오."

스님이 먼저 뒷짐을 진 채 바위에 올라섰다. 따라 올랐더니 과연 수도암을 감싼 불령산이 극장에서 스크린을 보듯 펼쳐진다. 수도암으로 내리뻗은 능선이 보였는데 원인 스님은 그걸 지맥이라 불렀다.

"풍수에서 저걸 지맥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매우 특이하게도 불령산 지맥이 세 가닥이나 수도암으로 흐릅니다. 풍수가들 말인즉, 전국 어느 산을 보더라도 지맥이 같은 방향으로 세 가닥씩이나 흐르는 건 매우 희귀한 일이라 해요."

보아하니 지맥이 태극 문양을 그리듯 S자로 휘어져 흘러내리다가 수도암 앞에 잠시 멈췄다가 다시 흘러내린다. 잠시 멈출 때 세 가닥 지맥이 모이는 곳, 그곳이 수도암 선방 터였다.

스님이 몸을 돌려 이번에는 해인사가 있는 가야산을 향했다.

"저렇듯 첩첩산중 너머에 우뚝 솟은 가야산 봉우리가 보이잖아요. 구름이 층층 끼는 새벽에 보면 첩첩산중이 일(一)자를 그리면서 마치 바다처럼 보입니다. 수평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 위에 피어오르는 연꽃을 상상해 보세요."

수평선, 즉 높낮이 없는 바다의 모습은 좋고 나쁨이 없는 무분별,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불이(不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中道)를 의미한다고 한다. 진리는, 그 위에서 꽃을 피운다. 가야산 상왕봉은 진공이라는 산의 바다에 묘유라는 연꽃 봉우리를 피운, 진공묘유(眞空妙有)의 세계를 상징한다는 것이 원인 스님의 설명이었다. 그는 덧붙였다.

"수도암 모든 전각들은 연화봉을 향하고 있어요. 무릇 수행자란 어느 한 면에 치우치지 않고 정견을 유지하는 자세라야 하기에 연화봉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나. 법전대에 올라 원인 스님 설명을 듣자 그 이전보다 수도암이 조금 더 자세히 보이는 듯했다. 도선처럼 견딜 수 없는 충동에 춤이 터져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수도암을 감싼 신령한 기운이 자연과 부처의 깨달음이 어울려 조화를 이룬 까닭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신선대를 지나 불령산 정상에 오르는 동쪽으로 가야산이 보이고, 남쪽으로 지리산 천왕봉이 구름 위에서 가물거렸다. 서쪽은 덕유산과 민주지산이 가지를 뻗어와 가야산에 합류했다. 그 밖에도 크고 작은 숱한 산들이 포개져 마루금을 그려냈다. 산과 춤이 포개지는 순간이었다. 산들이 춤을 추려고 몸을 들썩거리더니 이내 참을 수 없도록 춤이 흘러넘쳤다. 산의 몸속에 고인 춤이 빠져나오고 있었다. 춤이 산을 빙의하고 있었는데, 이 같은 풍경이라면 도선 스님이 아닌 누구라도 춤을 출 수밖에 없겠다!



고원영(조계종 산악회 수석부회장)

이젠 몸에 좋은 천연방향제가 대세!!
천연 한방방향제
동의보향 香
DONGUIBOHYANG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중 향이 좋은 생약재를 엄선한 한약 방향제입니다. 그냥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숲속의 아침처럼 청정하고 상쾌한 향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향은 화학방향제와는 달리 자연에서 얻은 천연향으로 심신을 안정시켜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는 향기보약입니다.

주는 이의 마음처럼
향기로운 동의보향은
오래토록 기억되는
좋은 선물입니다.

선물용 대량 구매 시 추가로 덤 증정
• 용도 : 자동차, 공부방, 침실, 장롱 등
• 규격 : 12*19cm(복주머니),100g

주문전화 : 010-5607-3313 (062)385-9954
입금계좌 : 농협 810-02-157670 (박해숙) 제조원 : 수풀림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놀라운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용수 스님(세첸코리아 대표)

티베트 불교 1분 명상

자신을 믿으세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온전함을 믿으세요.

세상이 나를 도우려 함을 믿으세요.

사람들의 순수함을 믿으세요.

자신을 믿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모두에게 친절하세요.



그림 · 최주현



황선미(시인)

隨處作主, 내 삶의 주인공은 나

배움은 나를 향기롭게 한다

유대인의 지혜가 담긴 〈탈무드〉에 '배움은 흉내에서 시작한다'는 속담이 나옵니다. 배움은 이렇게 모방에서 출발합니다. 갓난아기가 엄마의 손짓과 말을 흉내 내면서 한 사람의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불제자에게 배움은 부처님이 되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수레(乘)'에 비유되곤 합니다. 불제자에게 있어 배움은 수레의 두 바퀴, 즉 정진과 숙련이라는 이름의 바퀴를 끄는 동력입니다. 만약 정진과 숙련이라는 두 바퀴가 없다면 배움의 수레는 멈추고 말 것입니다.

호수에서 유유히 헤엄치는 물오리가 수면 아래에서 두 발을 습관처럼 움직이듯이 배움의 정진은 지나치게 애쓰지 않는, 부드러운 물결과 바람의 흐름과 같아야 합니다. 모든 게 자연스레 이뤄지는 여정에서 배움은 한 단계씩 나아갑니다.

불제자에게 배움은 경전에 나오는 교학적인 지식을 단순히 습득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론적 교학이 토대는 되겠지만, 부처님처럼 되기 위한 실천의 덕목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자비의 실천행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불설함수유경(佛說鹹水喩經)〉에는 배움의 과정을 '오탁악세(五濁惡世)'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사람이 밖으로 나와 지혜의 언덕에 오르는 과정으로 비유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에 빠진 사람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 때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그대들을 위해 물에 빠진 사람을 비유로 들어 일곱 가지를 말하겠다"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물을 비유로 든 일곱 가지란 무엇인가? ①어떤 사람은 물에 빠져 있고 ②어떤 사람은 물에서 머리를 내밀었다가 다시 물에 빠지며 ③어떤 사람은 머리를 내밀어 사방을 둘러보고 ④어떤 사람은 머리를 내밀고 다시는 물에 빠지지 않으며 ⑤어떤 사람은 물에서 나가려고 하고 ⑥어떤 사람은 저쪽 언덕으로 가려고 하며 ⑦어떤 사람은 저쪽 언덕에 이르러 깨끗한 마음으로 저쪽 언덕에 서게 된다."

이어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이들 중에 첫 번째, 물에 빠진 사람은 좋지 않은 법(法)이 온몸을 감싸고, 죄가 무거워 지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이고, 두 번째, 머리를 물 밖으로 내밀었다가 다시 물에 빠진 사람은 선한 법에 대해 믿음이 있어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 그 방법을 구했다가, 다시 여러 선한 법에 대해 부끄러움을 품는다. 세 번째, 물에서 나와 사방을 둘러보는 사람은 선한 법에 대해 믿음이 있고 부끄러워하는 마음과 용맹스런 마음이 있으며 온갖 선하지 않은 법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고, 네 번째, 물에서 나온 사람은 세 가지 번뇌[結使]를 다하고 수다원이 되어 물러나지 않으며 반드시 인간에 돌아와서는 얻는 바가 있다. 다섯 번째, 물에서 빠져나와 저쪽 지혜의 언덕에 가려는 사람은 세 가지 번뇌를 다하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엷어지고 사다함이 되어 (천상으로 갔다가) 이 세간에 와서 괴로움의 근본을 없앤다. 여섯 번째, 저쪽 언덕에 이른 사람은 5하분결(下分結)을 끊고 아나함이 되어 저 천상에서 열반에 들고, 다시는 인간 세계로 돌아오지 않는다. 마지막 일곱 번째, 저쪽 언덕에 이르러 깨끗한 마음으로 서 있는 사람은 온갖 번뇌가 없게 되어 생각과 지혜를 해탈해 생사의 근본을 끊는다. 비구들은 이렇게

공부와 깨달음의 과정, 비슷
'배워 남 주는 마음'도 중요
'사홍서원', 배움 자세로 삼길

또다시 어머니의 태에 들어가지 않도록 부지런히 노력하라." -〈불설함수유경〉 中에서

공부는 숙련의 과정

배움을 시작해 열반에 이르는 단계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속의 물은 오염된 세상인 오탁악세를 의미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중생이며, 물에서 빠져나와 언덕에 이르는 과정은 보살의 성취단계를 비유합니다. 부처님의 법이 무르익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살기위해서는 물속에서 나와야합니다. 하지만 물 밖으로 나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신심이 부족해 의심과 두려움으로 주변을 기웃거리면 물 밖으로 잠시 머리를 내밀 수 있을 뿐 다시 물에 빠져들고 맙니다. 혼돈의 상황은 반복됩니다. 물에 휩쓸리지 않고 지혜의 언덕(바라밀)에 이르기 위해서는 참된 자각(올바른 앎)이 필요합니다.

참된 자각에 대한 성취는 시간과 노력에 비례하진 않지만 인내하며 훈련하는 과정은 거쳐야합니다. 현실에 대한 참된 자각은 법(Dharma)에 대한 믿음을 갖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후 숙련과 인내를 통해 점점 향상될 것입니다. 의심을 버린 수다원을 거쳐, 고통과 혼란을 정화한 사다함, 참된 법을 얻은 아나함과를 성취하면 드디어 대자유인인 아라한에 도달하게 됩니다.

보살에 이르는 단계는 이렇게 배움의 단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불제자의 배움은 자신을 알고, 타인을 이해해 전체를 아우르는 일입니다. 반면 학창시절의 공부도 숙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현실적인 이익과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더라도 조금씩 성장해 상급학교로의 진학 등 향후 진로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때문입니다. 배움은 '나'를 키우고 향기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리더의 다짐인 '사홍서원'

배움의 자세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①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아이쇼핑 ②자각의 참맛을 잠시 맛보았지만 비판 · 비평하는 태도 ③배움과 훈련의 과정을 순수한 아이처럼 흡수하는 자세 ④자신을 부드럽게 리드하는 태도 등입니다. 두려움과 의심 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신명나게 배우는 자세는 리더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배움의 자세라 하겠습니다.

더불어 배움을 회향하는 과정 역시 소중합니다. 즉, 실천의 과정은 모든 불자들이 불교의식과 법회에서 독송하는 네 가지 큰 서원에 담겨있습니다. 바로 ①중생무변서원도(衆生無邊誓願度)-중생을 다 건지기 위해 깨달음의 피안(彼岸)에 도달하겠다는 다짐 ②번뇌무진서원단(煩惱無盡誓願斷)-모든 번뇌를 다 끊겠다는 다짐 ③법문무량서원학(法門無量誓願學)-드넓고 심오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두 배워 깨닫겠다는 다짐 ④불도무상서원성(佛道無上誓願成)은 깨달음을 다 이루어 성불하겠다는 다짐 등입니다.

'배워서 남 주자'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학문의 실천을 강조한 재치 있는 표현입니다. 육바라밀(보시 · 지계 인욕 · 선정 · 정진 · 지혜)과 사무량심(자비희사-慈悲喜捨) 등 자신과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실천은 삼독(탐욕, 무지, 분노)에 오염된 오탁악세를 정화시켜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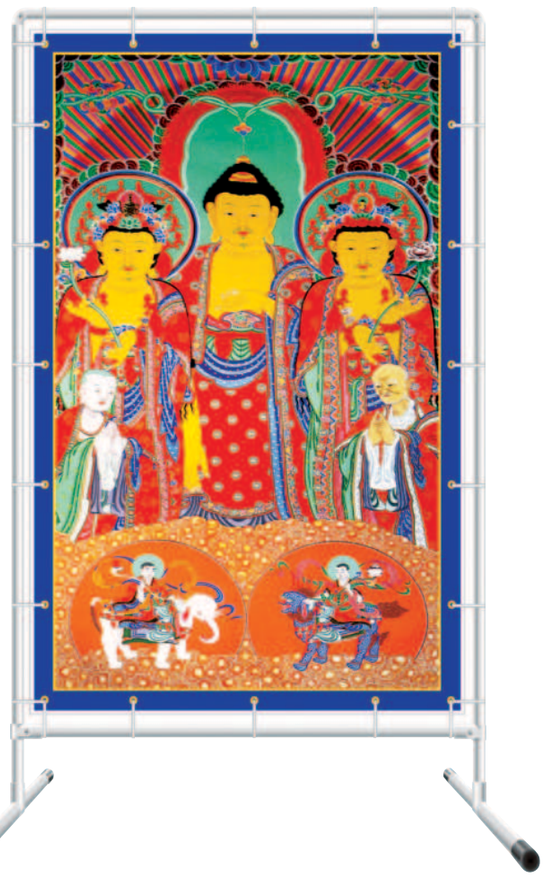
〈법구경〉에서 "우리의 현재는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결과"라고 전합니다. 배움과 실천을 다짐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당당한 불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괘불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며 가방에 담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 품 설 명

- 괘불 크기 : 가로 200㎝ × 세로 300㎝
- 무 게 : 15kg
- 구 성 품 : 휴대용 가방(괘불+설치틀+설명서)
- 구입가격 : 56만원(주문 → 입금 → 배송)
- 배 송 : 입금 후 5일내 배송 가능

판 매 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한국 전통 혼을 담아 제작한 전통 풍경

국내유일의 에밀레 풍탁

고즈녁한 산사, 도심포교원에 울리는 너무나 맑은 소리 풍탁

1 에밀레풍탁은 백제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풍탁을 모티브로 개발된 제품으로, 백제 금동 풍탁의 형태에 우리나라 최고의 범종인 에밀레종의 문양을 접목시켜 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디자인 한 새로운 형태의 풍경입니다.

2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풍경은 지금의 형태가 아닌 타원형 또는 정사각 형태의 풍탁이 많으며, 하단의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이 아닌 구름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3 언제부터인가 전통적인 풍탁이 사라지고 원형에 물고기 바람판이 달린 풍경이 출현하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풍경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조선시대 이전에 제작된 풍경에 지금 형태의 풍경은 없으며,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은 없습니다.

4 우리 전통의 풍경의 모습을 되찾고자 지금까지 제작된 풍경중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백제 금동풍탁에 화려한 에밀레종의 문양을 어우러지게 하고 하단의 바람추도 전통 바람추의 형태에 연꽃 문양을 넣은 새로운 풍경입니다.

■ 규격 및 가격
「소」 85×65×135㎜ 15만원
「중」 110×80×160㎜ 20만원
「대」 140×95×200㎜ 25만원

■ 재질 : 청동







판 매 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3
- 입금계좌 : 농 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가정의 수호신 그리고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 진언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그림 족자

42수진언 족자 (그린)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아
서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卍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145㎝ 가정용 45×110㎝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만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십장생이 들어간

16나한도(18나한) 달마도 족자

작품 한점 한점 마다 수호신이 될 것이며 그림에서 발산하는 기운은 가정을 평화롭게 지켜줄 것이며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모든 어려운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며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달마도와 포대화상도, 나한도 그리고 여러가지 스님과 사찰 풍속도를 그려온 청곡 이한동화백의 작품을 족자로 제작하여 불자님들에게 보급합니다.

■ 그 림 만 : 70㎝ × 폭 44㎝ | ■ 판매가 : 각 70,000원
■ 족자포함 : 120㎝ × 폭 54㎝ | ■ 판매가 : 각 100,000원

나한은 아라한의 준말입니다. 나한 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되는 나한이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 전, 미륵불께서 세상에 나오실때까지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에게 복전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이들 나한들은 6가지 신통력과 8가지 해탈법 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번뇌를 아주 떠난 부처에 버금가는 성지입니다. 16명의 나한 외에 미륵불의 하연이며, 용을 타고 복을 전해준다는 항룡나한과 야수를 다스리며 악귀를 물리친다는 복호나한을 더하여 18나한이라고 합니다. 이들 18나한들은 열반에 들지않고 영생을 누린다는 뜻에서 한 분 한 분의 신비한 모습들을 십장생도와 함께 모셨으며, 이 영원한 수호신을 모셔주기를 바랍니다.

수강생 모집

● 과 목 : **풍속화 달마도** ● 강 사 : 청곡 이한동 화백
● 장 소 : 서울 을지로 세운대림상가 10층 55호
● 일 시 : 토요일, 일요일 오전 11시 ~ 오후 6시
● 수강료 : 16만원 5천원

● 과 목 : **문인화, 수묵화** ● 강 사 : 도선 김용현 화백
● 장 소 : 서울 을지로 세운대림상가 10층 55호
● 일 시 : 월요일 ~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6시
● 수강료 : 15만원



16나한도



달마도

● 16나한도를 구입하시면 「16나한의 이름과 권속나한들과 같이 살고있는 곳을 기록한 설명서」를 드립니다.

현불샵 ☎ 02)2004-8213, 010-6701-7709
입금 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